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上)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민족공동체에 기반한 점진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반세기 동안 형성된 남북한간 상호적대의식을 청산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통일문화'의 창조가 요구된다. 이같은 인식하에 당 연구원에서는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제기되는 문화적 현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차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인 94년에는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향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남북문화간의 이질화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문화교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년도인 금년에는 통일문화 연구를 보다 구체화·체계화하기 위해 부문별 북한사회문화 실태를 연구함과 동시에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함으로써 장차 통일국가의 문화상을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의 방대한 분량을 감안하여 연구보고서를 상·하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는데, 본 보고서에 실린 8개 연구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에서 시민사회의 구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발전 방향을 남북한 민족통합의 내면적 중심축인 통일문화의 이념적 지향으로 제

시하였다. 둘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연구」,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기업소 관리운 영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등의 연구를 통해 분단이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사회·문화 실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반세기 동안 상이한 체제하에서 생활해온 남북한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와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방안」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를 감안하여 향후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가 남북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 총 목 차 〉

< 상 권 >

- | | |
|----------------------------------------|-----|
| ■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 | 윤덕희 |
|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 임순희 |
| ■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연구 | 조한범 |
| ■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 박형중 |

< 하 권 >

- | | |
|---------------------------------------|-----|
| ■ 북한의 유교문화 실태 연구 | 이헌경 |
| ■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
|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대석 |
| ■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확대방안 | 홍관희 |

차 례(상권)

■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 윤덕희

제 I 장 서 론	3
제 II 장 시민사회의 개념 및 이론	7
제 III 장 남북한 시민사회의 비교고찰	21
제 IV 장 시민사회 형성과 통일문화	50
제 V 장 결 론	64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임순희

제 I 장 서 론	71
제 II 장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틀	79
제 III 장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86
제 IV 장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실제와 변화전망	196
제 V 장 결 론	213

■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연구

조한범

제 I 장 서 론	219
제 II 장 이데올로기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227
제 III 장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역사관	236
제 IV 장 북한의 주체사상과 역사관	248
제 V 장 북한의 역사관과 지배체제의 정당화	269
제 VI 장 북한 역사관의 평가	281
제 VII 장 결 론	289

■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박형중

제 I 장 서 론	297
제 II 장 관료제적 연줄형성의 제도적 배경	306
제 III 장 관료제적 연줄의 성격과 기능	321
제 IV 장 관료제적 연줄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	336
제 V 장 결 론	354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

윤 덕 희*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시민사회의 개념 및 이론

제 III 장 남북한 시민사회의 비교 고찰

제 IV 장 시민사회 형성과 통일문화

제 V 장 결 론

* 명지대학교 교수

빈 면

제 I 장 서 론

몇년전부터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남한을 비롯한 제3세계 등 전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적 변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민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시민사회의 발전단계에서 기존의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주의적 억압과 통제에 대항하여 각각 보다 질적으로 고양된 시민사회를 구축하려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3세계의 재민주화, 동구권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등의 역사적 정치적 전환은 서구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과 함께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사를 크게 증대시켰으며,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가 동구, 서구,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등 국내외에서 부활하였다.

시민사회의 성격은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사회를 지향한다. 시민사회는 비록 자본주의라는 실험실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거두었지만,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분명히 자본주의에 선행하여 존재하였고, 또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미약하나마 싹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사회주의이건 자본주의이건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를 공통의 이념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이 보장되는 '다원적이고 개방된 시민사회'가 제도적 선행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사회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적 다원사회에서만 꽃을 피울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같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격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물질 토대(혹은 경제적 기반)가 구비되고, 또 이와 직결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결과로 사회적 삶의 다양성과 이질성, 유동성과 개방성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때만이 가능하였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측면은 자본 축적 혹은 물질 풍요라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구조적 분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과 결합될 때만이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발달은 보편적 의미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가늠한다. '시민사회'의 개념을 단순화해 보면 "사람들이 사적 시민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들 자신의 여러가지 조직을 창조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즉, 시민사회란 개인적 권리, 자유, 자원단체들이 제각기 사적 관심, 이해 그리고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시민사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념을 지닌채 살아오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섞여 살아가게 되는 통일이라는 상황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사회적·문화적 형태일 것이다. 즉, 시민사회가 내포하고

1)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서울: 한울, 1992), p. 66.

있는 다원주의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이념은 남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함으로써 내적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계층, 직업, 성별, 세대, 지역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모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이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이 가져오는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와 '통일문화'와의 상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문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²⁾ 첫째, 통일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 극복이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문화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통일문화 이념은 한편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민족통합을 가능케 하는 전

2) 통일문화의 개념정립을 시도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윤덕희, “통일문화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통일문화연구』 上(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통성 또는 민족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즉,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전통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통일문화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은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수성, 즉 '환경과 역사속에서 축적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문화의 이념은 통일된 민족의 발전이 국제사회의 문화적 변화추세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부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역사적 흐름인 시민사회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이 각기 체제 대립에서 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 민주화, 개방 등으로 요약되는 세계적 조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일국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화의 이념은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의 기반이 되는 민족이념과 인류의 보편적 발전방향인 시민사회 이념이라는 두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문화 이념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 논의가 남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적실성을 갖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와 통일문화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시민사회의 성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민문화적 통일문화 이념의 성격을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시민문화적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시민사회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현실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론의 수용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적 성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사회적 통일문화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 장 시민사회의 개념 및 이론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정치적 전환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사를 크게 증대시켰다. 특히 제3세계의 재민주화, 동구권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서구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들 경험하면서,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가 동구, 서구,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등 국내외에서 부활하였다.

시민사회의 재발견은 현실적·경험적 수준 뿐만 아니라 규범적 수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분석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동유럽 변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레닌주의적 국가에 대한 저항의 중

심체로서 역할을 한 폴란드 솔리다리티 노조와 같은 자발적인 결사체에 대한 것이다. 동유럽과 소련에서는 시민사회의 강화가 국가사회주의의 반명제로서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는 규범적인 수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태로 존재하는 사회의 성격 문제보다는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서 시민사회를 논의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예컨대 규범적인 시민사회 논의를 대표하고 있는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시민사회의 강화 혹은 공공영역의 민주화가 없이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화와 이론적 논의는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계기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³⁾ 토크빌(Tocqueville)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을 논하는 사람들은 제3세계와 동구권 사회에 부재했던 서구적인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부르주아 사회로서의 서구 시민사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변화속에 내재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맑스주의자들 가운데 시민사회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도

3) 시민사회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 관해서는, Kumar, Krishan, "Civil Society: An Inquiry into the Usefulness of Historical Ter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3, 1993. pp. 376~383를 참고할 것.

나타나고 있다.⁴⁾ 그들에게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인 성격을 간과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개념과 의미를 둘러싼 혼란이 존재하고 있고, 분석적인 개념으로서 시민사회의 개념의 유용성이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장에서는 시민사회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재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사회 개념화를 둘러싼 논의를 역사적으로 검토해보고 나서 남북한 사회현실 및 통합문제에 있어 시민사회론의 수용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시민사회의 개념화

시민사회의 의미는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시민사회 개념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철학에서 시작되어 토크빌에 의해 체계화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관계와 계급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맑스·엥겔스의 시민사회론과 여기에서 파생된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론, 그리고 최근 시민사회 논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버마스(Habermas)의 비판이론 등의 맑스주의 시민사회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서구에서 계몽시대 이래로 신분제적으로 예측받지 않

4)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지적 입장에 대해서는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들의 모색,”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1995) 참고.

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사체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소수에게 위임하여 국가를 구성토록 하는 정치적 주권의 소재지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와 대별되며, 구조적으로는 귀족사회의 화신이었던 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봉건적 관계는 점차 변화되어, 권력은 시민, 즉 평민들에 의해 장악되고 국가는 이들의 의지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이란 어떤 공동체사회 내에서 신분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시민권이다.⁵⁾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은 토크빌에 의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 토크빌은 보통선거를 통해서 출발한 국가권력도 민주적인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새로운 국가전제주의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았다.⁶⁾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혁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전제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시민단체가 발달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차원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조직의 활성화야말로 정치적 전제주의와 사회적 부자유·불평등을 막고 민주적 혁명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토크빌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은 부정적인 국가관에 기초해 있다. 국가를 전제주의(despotism)와 관련시키고 민주주의를 시민사회와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고 시민사회

5) 정태석·김호기·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1995), p. 265 참조.

6) 토크빌, 박지동 역, 「미국의 민주주의」(서울: 한길사 1983).

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은 맑스에 의해 재해석된다. 맑스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동질적이지 않으며, 형식과 내용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형식적으로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내용의 면에서는 부자유·불평등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계급관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시민은 생산수단을 가진 시민(즉 부르주아지), 그렇지 못한 시민(즉 프롤레타리아트),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소시민(즉 꼬띠부르주아지) 등 크게 3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의 권리관계는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계급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형식적 시민과 실질적 시민, 즉 시민과 시민계급(부르주아지)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시민들의 결사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의 시민, 즉 부르주아 계급이 다른 시민들, 즉 다른 계급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들의 결사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맑스에 의해 재해석된 시민사회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적 계급관계의 의미가 강한데,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을 거듭함에 따라 경제외적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되는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를 포착해 내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영역은 경제와 국가를 매개하는 ‘상부구조적 시민사회’라 할 수 있는데, 그람시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그람시는 기존의 지배질서의 유지는 단지 강제에 의존하는 억압

적 국가기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동의에 기반하는 헤게모니적 기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상부구조의 한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좁은 의미의 국가(정치사회)와 구분한다. 시민사회는 근본계급들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한 기존질서의 재생산·변형을 위해 중요한 보루가 되는 것이다. 그람시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경제'라는 삼분모델에 기반하면서 각 영역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⁷⁾

시민사회(와 경제구조)의 모순구조-특히 계급적대-는 근본계급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발생시키는데, 지배세력은 국가에 의한 강제와 시민사회를 통한 동의라는 이중적 과정을 통해 기존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배에 저항하는 피지배세력은 시민사회의 광범한 동의에 기반하는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평등하고 자율적인 삶 속으로 국가를 흡수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경제구조는 변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노동자계급은 근본계급으로서 시민사회의 중심적 변혁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의 핵심은 시민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변혁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하버마스는 공공영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맑스의 경제주의적 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사회는 크게 국가의 '공적 권위영역'과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으

7)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p. 21.

로 이루어진 '사적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한 이 공공영역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항이자 통로로서 등장하며, 근대 의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급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부르주아 계급의 갈등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체제의 한 형태이다.

최근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1981)에서 시민사회의 내부분화, 즉 경제영역의 합리화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경제의 분화 현상에 주목하여, 현대사회를 경제체계 및 행정체계로 구성되는 '체계'와 사적영역(시민사회)과 공공영역으로 구성되는 '생활세계'로 양분한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모델은 시민사회로부터 경제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행정체계)·경제체계·시민사회의 3분 모델에 가까우며,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의 재정치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시민사회의 정치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중 대표적인 것이 코헨과(Cohen)과 아라토(Arato) 등의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인데, 이들은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와 동구국가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를 국가와 경제 양자로부터도 자율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⁹⁾ 이들은 시민사회를 “무엇보다도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들의 영역(특히 자발적 결사체들), 사회운동들, 그

8)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Cambridge: The MIT Press, 1991), pp. 113~118.

9) Jean Cohen and Andrew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ass: The MIT Press, 1992).

리고 공공의사소통 형태들로 구성된, 경제와 국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정의한다.¹⁰⁾

한편, 킨(Keane)이나 헬드(Held)의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은 ‘국가·시민사회’라는 전통적 이분모델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과 유사하게 국가와 (경제구조를 포함하는)시민사회의 현실적 분리를 인정하고 각 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은 자기제한적인 이중적 민주화 프로젝트라는 실천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시민사회의 식민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새로운 정체성, 사회규범, 연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사회운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국가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불가능성을 고려해 정치개혁가의 역할 및 제도개혁 또한 필수불가결하다.¹¹⁾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체계분화로서 경제, 정치, 사회의 3가지 하위체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민사회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즉, 시민사회는 의미와 상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개방된 영역으로서 비경제적, 비정치적 하위체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개념화는 시민사회를 생활세계 내의 공공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 사이의 사적 또는 자발적 묶음으로 조직되는 사회생활의 영역이라

10) 위의글, p. ix.

11) 위의글, pp. 15~16.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로부터의 시민사회의 분리’ 내지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지닌 시민사회를 민주적 질서의 중심적 특질로 여기며, 나아가 사회생활의 민주화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남북한 상황에서의 시민사회론 수용 문제

최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1990년을 전후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맑스주의 위기론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사회주의적 발전 전망의 위기는 기존의 접근방법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에 관한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맑스주의론’을 제창하는 흐름이 생겨났으며, ‘민주주의,’ ‘시민사회’ 문제가 이론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민사회,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세계사적인 상황변화 및 이에 대한 지적 대응이라는 외적 조건 뿐 아니라,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및 정치역학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내적 조건이 함께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은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자율성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그 결과, 국가는 공식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주화 조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단체와 사회세력들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쟁점들에 덧붙여 환경, 소비자, 여성, 교육, 생활문화 등의 새로운 쟁점들이 동시에 부각됨으로써 시민사회 내의 세력관계도 분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분화현상과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틀에 의한 분석을 요구하게 되고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남한 내의 시민사회 논쟁과 더불어 소련 및 동유럽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역할은 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소련과 동구권의 대변혁은 좌파 스스로가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의 재검토를 자청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파에서는 이미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억압적·폭력적 국가로부터 다원적·자율적 시민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세계사적 전개과정의 지연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체제의 고전적 특징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 인식되어 왔다.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유일한 지배이데올로기로 군림했고, 시민사회의 조직은 해체되어 국가에 의해 장악되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체제의 목표는 시민사회가 폐기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생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 시민사회를 재건하려는 의지마저 박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하에 사회주

의체제는 개인을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전개하였었다.¹²⁾

그러나 전체주의를 대표하던 소련의 체제가 스탈린 사후 체제내적인 혹은 체제외적인 압력에 의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소련과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서서히 사회변화가 진행되었다. 1956년의 폴란드와 헝가리 사태,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 1981년 폴란드의 자유노조 결성 등의 일련의 동구의 변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으로 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민사회의 재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¹³⁾ 동구, 그리고 미약하나마 소련에서 국가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율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재생은 이들 국가에서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société officielle)와 대결하며 공존하는 '제2사회'(seconde société 또는 société parallèle)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민사회의 부활을 본질로 하고 있는 제2사회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예컨대, 암시장 등 제2의 경제권 형성, 지하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야학 등 비공식채널에서 공부하기(flying university), 재즈나 록 등 서양음악에 대한 관심, 교회 나가기 등 당국의 영향력 밖에서 자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2사회의 성장은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주의, 공식이데올로기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체제

12) Rau, Zbigniew. ed.,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Oxford: Westview Press, 1991), p. 11.

13) 동유럽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를 시민사회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Jacques Rupnik, "Dissent in Poland, 1968~78: the end of Revisionism and the rebirth of the Civil Society," in Rudolf L. Tokes ed., *Opposition in Eastern Europe*(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9).

가 붕괴된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모니가 비공식 사회, 자율적 사회의 발달, 즉 시민사회의 부활에 의해 침식되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국가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와 행위에 대하여 흥미와 에너지를 철회하는 것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소련 및 동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현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며 발달하였으며 결국은 19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 새로이 등장한 시민사회 개념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한다. 즉,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전체주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의 모든 행위를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각 사회마다 그 강조점이 다양하다. 예컨대 폴란드의 경우는 지식인들의 반체제 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들의 움직임, 노동자들의 결사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헝가리의 경우는 주로 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지하경제의 발달이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서구의 학계에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시민사회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분화의 패러다임을 사용해왔다. 즉, 사회주의국가의 집단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을 공적 부문이라 지칭하며, 공적 영역 밖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사적 부문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달을 공적인 것이 약화되고 사적 영역과 사적 가치의 추구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의 이행, 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로의 이행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서 국가의 개입이나 강제가 배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 가치의 추구는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와 체제에 대한 저항심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별될 수 있다. 동유럽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적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체제에 압력을 가하는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내에서 시민사회를 부활시킨 요인은 무엇보다도 체제의 구조적 변화이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전체주의적 획일적 사회통제를 어렵게 하고 시민사회와 개인 자율성의 발달을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에서 도시화의 진전, 직업의 분화, 교육수준의 향상, 개인선택 범위의 확대,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 매스컴의 발달, 여론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요인에 의하여 사회가 다원화되었다고 한다.¹⁴⁾

두번째 요인은 경제침체이다. 경제가 침체하여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유일한 고용주였던 국가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14)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Jacques Rupnik, *L'Autre Europe: crise et fin du Communisme*(Paris: Editions Odiles Jacob, 1990) 참고.

세번째로 서방세계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발달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서방의 집요한 ‘침수작전’이었다. 서방국가들은 공산국가와 사회의 분리전략을 통해 동유럽 주민들에게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체제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소련과 동유럽국가의 주민들은 서구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그리고 다원적 문화에 대한 동경을 키우게 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소련 및 동구의 경우와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도 도시화의 진전, 직업구조의 분화, 교육수준의 향상, 신중간계급 지향적 가치의식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사회구조 분화가 있었다. 둘째, 북한의 경우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어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생필품 획득이 개인의 수단에 맡겨진다면 국가권위의 실추와 개인주의의 발달이 조장될 것이다. 셋째,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온 정보, 상품, 자본주의적 암시장의 성행이 주민들의 가치의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¹⁵⁾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개념은 효율적인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시민사회 개념은 한국에서 특히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

15)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1.

련하여 새로운 통일국가의 구성문제와 직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현존하는 남북한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검토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제 III 장 남북한 시민사회의 비교고찰

우리가 시민사회의 형성을 봉건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을 대신해서 시민사회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이 공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부터라고 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공간적으로 형성 또는 성립된 것은 대체로 20세기 전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달이 주로 외세의 영향력하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도기적 정치상황에서 취약했던 국가권력은 외세, 특히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과도하게 성장하였다.¹⁶⁾

이처럼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형성은 외세의 개입에 의해 처음부터 파행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시민사회적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민족주의 세력들은 외세의 정치적 지배에 항거하여 3·1운동 등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으며, 식민통치하의 자본주의화는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 및 노동자의 계급적 조직과 활동을 낳아 시민사회적 생활양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갔다.

16) 정태석·김호기·유팔무, 앞의글, p. 271.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상이하고도 대립적인 체제를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남북한의 체제차이는 시민사회의 성격 및 국가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남한사회의 변화과정은 시민사회의 발달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북한사회는 아직 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신민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신민사회에서 개인은 외적인 강제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이 없는 종속적인 신민(subject)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부터 북한사회에서도 시민사회의 맹아가 출현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해방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시민사회가 어떻게 형성, 발달되어 왔으며 그 특징적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분석해보기로 한다.

1. 남한의 시민사회

가. 시민사회의 발달과정

해방 직후는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가장 첨예하였던 시점이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힘의 관계에서 본다면, 시민사회의 세력들은 8·15해방 이후 국가권력이 공백상태에 있었을 때 강력히 분출되었고 자율성도 확대되었다. 당시 시민사회의 분출은 노동자·농민 중심의 계급갈등과 중앙·지방간의 지역갈등을 촉발시켰고 이러한 사회갈등과 대립은 진보적이고 좌경적인 정치발전애 편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의 자율화는 미군정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남한에 이식하고자 했던 친미·반공지향적 민주·자본주의 체제와 남한 내부의 자생적인 사회·정치운동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남한사회의 계급혁명과 중앙에 대한 지방의 도전은 모두 미군정에 의해 좌절과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미군정이 들어서고 서구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친미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공간은 협소해졌고 자율성도 약화되어 갔다.¹⁷⁾

이와 같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제압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195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전반적으로 1950년대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영역의 비대칭적 확대와 물리적 강제력의 신장에 의해 사회적 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대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예외가 있었다면 고등교육 기관이 양적으로 팽창한 결과와 맞물린 학생집단의 정치사회적 성장이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외세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며 시민적 권리를 억압해온 국가권력은 부정부패와 비민주성으로 인해 시민사회 민주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4·19혁명은 억압받던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이 국가권력에 대해 지배정당성을 부인하고 저항을 표출한 일대사건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적 경로와는 달리 식민지적·신식민지적 조건, 그리고 분단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외세와 외세의존적

17) 전상인, “남북한 체제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비교연구,” 세종연구소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남북한 이질화의 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에서 발표한 논문(1995. 8. 25), p. 10.

국가권력의 영향력하에서 주로 ‘바깥에서 안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발전되어 왔다.¹⁸⁾ 그런데 1960, 70년대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형성의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가지배의 비민주성과 정당성의 취약함은 시민사회 민주세력의 활성화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가져왔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발전은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6년에는 ‘직선제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 이에 도전하는 야당을 포함하는 온건세력, 그리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변혁세력 등이 대치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힘의 균형은 1986년에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1987년 ‘6월항쟁’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일대 전면전이였다. ‘6월항쟁’은 외형상 시민사회의 승리였으나 동시에 그것은 남한체제 자체의 변혁을 방지하였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승리이기도 했다. ‘6·29선언’의 ‘타협적 성격’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서 도출되는 것이다.¹⁹⁾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에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은 급격히 활성화되어 국가권력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지배계급이면서도 국가권력의 통제하에 있던 독점자본도 국가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급진적 민주세력을 비판하는 양면전략을 펴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의 한국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국가

18) 정태석·김호기·유팔무, 앞의글, p. 273.

19) 최장집, 「한국 현대정치외교의 구조와 변화」(서울: 까치, 1989), p. 295.

로부터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인 세력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사회세력들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나.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은 첫째, 사회문화적인 생활양식과 의식의 측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친미사대주의와 민족주의, 유교적 권위주의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연고주의와 경쟁주의, 반공주의와 민중주의 등은 시민사회의 경쟁적 갈등적 의식 및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중 친미사대주의, 유교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반공주의 등은 의세의존적인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배이념 및 통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 시민사회와 경제의 민주화를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위로부터 도입된 민주적 정치제도와 이념이 교육, 매스컴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본주의적 생산 및 계급관계의 발달에 상응하는 시민사회의 생활양식 및 의식구조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민족주의,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경쟁주의, 민중주의 등이 기존의 지배적인 의식들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다양한 의식형태들과 이데올로기들은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시민들과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성과 갈등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들어 왔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자율성을 급격히 확대되어 다양한 사회단체와 사회세력들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통일운동 등 기존의 사회운동들 뿐만 아니라 전교조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생활문화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²⁰⁾

1990년대 이후 남한 시민사회내의 세력관계는 환경, 복지, 여성, 반핵, 평화, 반문화 등으로 그 영역이 급속히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들도 점차 탈정치화, 탈계급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내의 갈등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역갈등의 문제는 거 어느 시점 보다도 결정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²¹⁾ 그 밖에 이념갈등의 불씨도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다. 1994년의 ‘김일성 조문 파동’이나 ‘주사파 파동’ 등은 남한사회에 두가지 ‘인식공동체’가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세대갈등이 남한사회의 전체 갈등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학생운동에서와 같이 계급갈등이나 이념갈등과 중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신세대’ 혹은 ‘X세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풍요상태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자라면서 민주화를 경험했던 남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가치관과 인생관 등의 측면에서 구

20) 남한의 사회운동에 관해서는, 강문구, “변혁 지향 시민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일 전망,”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1995)을 참고할 것.

21) 1995년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역패권주의 혹은 지역할거주의가 남한의 사회갈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대와는 매우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남한의 시민사회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²²⁾ 시민사회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이념적 가치나 내적 윤리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한국적 토착화 또는 한국적 시민사회의 형성 대신에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 외래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들이 마구 뒤범벅이 된 채로 무정형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²³⁾ 그리하여 시민들의 생활세계는 개인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반면, 이 같은 원자화된 사적 차원으로서의 원심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사회 자체의 응집력은 매우 미약하다. 시민사회에 걸맞는 시민의식이나 시민정신의 함양, 시민사회의 통합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시민윤리의 정착과 같은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은 결국 한국자본주의가 대외의존적 타율성을 극복하여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내적 자생력을 배양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외형적 하부구조적일 뿐, 토착화 혹은 내실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남한의 시민사회는 한국자본주의의 불평등발전의 결과로 인해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관계를 겪게 되어 지역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특히 오랜동안 중앙집권주

22)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이 시민사회의 성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성국,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서울: 한울, 1992)를 참고할 것.

23) 위의글, p. 153.

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하여 온 한국에서 이같은 시민사회의 지역적 분열은 중앙정치(또는 국가)에 의해서 교묘하게 악용됨으로써 전체로서의 시민사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한국자본주의의 불평등 발전은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도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만들어 놓았다.

다섯째,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자본주의적 속성은 자율성과 시민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도래를 저해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는 한국사회의 많은 속성들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바탕이 된 물질만능의 풍조이다.²⁴⁾ 이밖에 정부조직이나 교육기관 같은 근대적인 조직과 사회생활에서도 이러한 천민적 속성들이 반영되어 시민의식과 도덕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저항이 한국 시민사회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시민사회는 천민자본주의에 의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존중,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부문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또한 남한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치고 있는 장애요인들로서 연고주의, 혈연주의, 지역이기주의, 가족이기주의 등 여러 형태의 집단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특정지역을 단위로 집단적인 조직과 이익추구 행위가 이루어지는 연고주의는 남한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심화되었다. 정

24) 신광영, "천민자본주의와 천민적 시민사회," 「참여사회」(1995. 7/8), p. 60.

부요직 임명에 있어서 특정지역 출신의 우대와 이들이 보인 역대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충성은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인간관계의 하나인 연고주의를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신학교에 기초한 학연이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적인 이해보다 더 중시되는 것도 남한사회의 독특한 현상이다. 남한사회에서는 각급학교의 동창회가 시민사회 조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사회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남한사회의 중요한 조직원리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또다른 조직원리로서 혈연주의를 들 수 있다.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1차집단이었던 혈연집단은 그 의미를 상실해가는 것이 서구의 역사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사회의 경우 혈연집단은 종친회의 형식으로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의 의의가 주기적인 선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다.²⁵⁾ 유권자들의 정체성이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속적인 지위인 혈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집단을 구성하는 단위가 더 작은 경우인 지역이기주의와 가족이기주의를 집단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시민사회의 규범적 조직원리로서 연고주의, 가족주의 등은 시민사회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의 차원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또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25) 특히 지방의 경우 종친회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지배이념 및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 및 신념체계들은 외부로부터 도입된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쟁주의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가족주의적, 연고주의적 인간관계가 합리성, 계산성, 효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민사회의 비인간화를 제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권위주의하에서 관찰되는 상위자의 권위는 하위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또한 갖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엄격히 볼 때 이 가족주의와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의 자율성 및 책임성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북한의 시민사회

남한사회가 산업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태동을 경험하는 동안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신민사회'를 구축해나갔다. 신민사회에서 개인은 외적인 강제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이 없는 종속적인 '신민'(subject)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 부터 북한사회에서도 공산체제하의 동유럽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행동양식이 표출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내의 비공식적인 요소들이 시민사회의 맹아적 형태인 '제2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 '신민사회'의 형성

해방직후 북한지역에서는 남한사회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밑으로 부터의 사회혁명이 자생적으로 분출하였다. 1945~46년도 북한에서는 자생적으로 등장한 인민위원회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고, 소련은 그것 위에 편승하면서 첫 반년 정도는 '밑으로 부터의 정치'를 방관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은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의 후견으로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던 1946년 초 부터였다. 해방 직후 남한의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던 것에 비해 북한은 일찍부터 김일성의 일원적 리더쉽하에 사회주의체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이념적으로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거부하고 사회갈등의 소지를 구조적으로 제거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1946년 2월, 이미 당과 군을 장악한 김일성이 북한 단독정권의 원형인 북조선 임시위원회의 수장이 되면서 북한의 통치 스타일도 '위로 부터의 정치'로 바뀌어졌다. 이로써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다.

북한은 일찌기 194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하부구조의 혁명적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집단주의적 사회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전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일찍부터 '유기체적 정치'를 지향하였는데, 그것은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가부장적' 혹은 신격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이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세력으로 등장한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50년대는 또한 생산양식의 전면적 사회주의적 개조와 병행하여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이 전개된 시기였으며, 1955년 말, 북한에서는 ‘주체’라는 이름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제기되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급속한 공업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산업사회로 점차 이행하게 되었다.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북한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높은 사회적 통합수준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북한체제가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으며,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무갈등 사회를 지향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정치지도부의 내부적 균열을 없애는 것,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혁명적’으로 추진하는 것, 사회영역별 혹은 사회집단별 불평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 주체사상의 고양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개조하는 것, 그리고 일탈세력을 철저히 통제 격리하는 것을 포함했다.²⁶⁾ 그리고 북한의 이와 같은 노력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북한이 고도의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의 유일지배체제를 성역화함으로써 주민의 의식자체를 체제순응적으로 개조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1967년에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된 주체에 관한 이론은, 그 이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이른바 ‘4개노선’에 입각한 북

26)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197~217.

한 사회주의의 발전전략으로 부터 벗어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통치담론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²⁷⁾ 이 때부터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변질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은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추진되었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해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우상화를 통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주체형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1969년경에 정리된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에 의하면, 북한에 있어서 혁명의 원천은 바로 김일성 수령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성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은 북한 주민들 최고의 사회적 덕목이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확립이후 북한에서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 ‘사상론’에 입각한 정치사업, 곧 ‘사람과의 사업’으로 변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개인의 삶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사상적, 정서적 합일과 귀의에 의해서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일종의 ‘신정체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김일성은 신격화되었고, 김일성주의는 경전이 되었으며 노동당은 사제단이 되었다.²⁸⁾ 그리고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학습과 교양은 종교적 의식이 되었으며, 그 결과 주체사상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화되고 내면화되었다.

이는 남한이 산업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태동을 경험한 것과는

27) 북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을 참고.

28) 이상우, “서론: 김일성 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11~30.

대조적으로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신민사회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이와 같은 신민사회가 형성되고 또한 주민들의 높은 자발적 동의를 얻게 된 것은, 주체사상이 정통적인 맑스·레닌주의와 멀어지는 대신 한국사회의 전통이념 혹은 지배윤리와 대거 결합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주체사상이 제기하는 이른바 철학적 원리는 관념론적 인간관과 역사관, 그리고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와 불교, 및 단군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²⁹⁾ 특히 유교가 지향했던 집단주의 원칙과 신인합일의 인간중심주의, 덕에 의한 통치와 처세의 규범 및 윤리, 그리고 개인의 수양과 교육의 중시 등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주체사상이 유교적 원리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결과로 보이게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서양 맑스주의의 산물이면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정치문화의 계승자이기도 하며, 맑스주의적인 사회공학적 혁신과 유교주의적 유산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서 주체사상을 통한 북한의 신민사회화는 북한이 사실상 ‘신분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북한은 반혁명, 계급투쟁의 일환으로서 주민을 이른바 ‘성분’에 따라 계층화하였다. 소위 ‘중앙당 집중지도’ ‘주민등록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은 개인의 성분과 당성에 따라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 혹은 ‘복잡계층’의 세가지로 대분류되고, 이는 다시 5~60개

29)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해서는,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을 참고할 것.

의 계층으로 세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북한주민은 부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위신에 있어서 불평등한 분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북한이 계급사회를 지양하는 대신 신분에 따른 새로운 '신분제도'를 이룩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도 신민사회적 성격이 희석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고도의 사회통합성을 동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점차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사회적 갈등의 단서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북한 역시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경우 산업화가 거의 전적으로 국가나 당의 관료주의적 개입과 통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집단의 분화는 더욱 더 뚜렷해진다. 북한에서 농민이 총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의 44.4%에서 1987년에 25.3%로 크게 감소했으며, 노동자의 비중은 38.3%에서 57.0%로 대폭 증대했다.³⁰⁾ 그런데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식인과 기술자, 사무원 그리고 일반관료를 포함하는 이른바 '근로인테리' 혹은 '신중간계급'의 비중도 동시에 크게 증가시켰다.³¹⁾ 또한 산업화는 교육수준을 증

30)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381.

31) 1960년에 전체 인구의 13.7%에 머물렀던 근로인테리의 숫자가 1987년에는 약 16.8%까지 성장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 위의책, p. 381.

대시키고 도시화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사회집단의 분화, 도시화의 진전,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이 국가에 의한 획일적이고도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점차 어렵게 만든 것이다.

둘째는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국면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선 사회의 저변 계층에 가장 민감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점에서 이따금씩 보도되는 북한의 식량폭동이나 경제사범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평과 불만이 표현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인다. 또한 경제적인 침체는 일반 주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관료나 근로 인테리를 동요시킬 수도 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 증가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또한 1992년 12월에 정권 수립 이후 최초로 북한이 '조선지식인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지식인에 대한 사상교양이 부쩍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 북한의 상류계층내에 사회갈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세대의 흐름상 북한도 혁명사회로부터 후기혁명사회로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시기적으로 혁명사회로 부터 후기 혁명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세대갈등의 대두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³²⁾ 북한에서 1987년 현재 인민학교 취학 이전의 유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을 새세

32) 북한에서의 세대갈등에 관해서는, 김재용, "북한의 신세대, 그들의 세대 갈등," 『사회평론·길』(1994.9)을 참고할 것.

대로 본다면 이른바 전후세대는 83.7%에 달한다. 이들은 혁명의 일상화 과정에서 대체로 사상성과 혁명성이 약화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나. 시민사회의 태동

이상과 같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경제적 침체상황의 지속, 그리고 혁명후기 세대의 출현 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개혁과 개방화와 관련하여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맹아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주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혹은 중국의 변화 과정으로 부터 유추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분화는 직업집단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계획 및 통제경제체제의 실정은 경제행위에 있어서 개인적 수준의 미시적 합리성을 제고시킨다. 이는 시장원리의 부분적 도입이라든가 대외개방과 같은 경제정책의 수정과 맞물려 일반 주민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점차 분리하려는 태도로 발전되기도 한다. 더욱이 인구학적인 세대교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태동을 더욱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은 전체주의적 체제하에서 그들의 정치·경제생활 뿐 아니라 모든 사회관계와 의식세계까지 철저하게 국가적 통제를 받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적 차원 이면에는 동시에 일괄적인 관료·행정적 처리나 정치적 공작의 범위를 넘는 다양한 사회변동이 나타났다. 동시에 나타

난 다른 많은 변화 가운데는 객관적으로 탐지하기도 어렵고, 또 탐지되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억제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시켜, 모든 변화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선로동당의 체제 운용 지침과는 괴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 요소들은 국가에 의한 통제, 부정, 은닉의 대상으로서 체제의 합법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비 공식적인 사회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³³⁾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이처럼 체제 운용상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차적' 사회 요소들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의식세계, 경제활동, 사회관계 모두에서 이차적 요소들의 생성과 증가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맹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사회적 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가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발달되어 있는가, 나아가 남한의 시민사회와는 어떠한 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되는 것이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33) 장경섭, "북한의 잠재적 시민 사회: 이차 의식, 이차 경제, 이차 사회, 「현상과 인식」 18(4), 1994, p. 144.

< 경제분야 >

동구의 국가사회주의 경제에 있어 공식적 국가 이념과 정책상 사회주의 경제 부문으로 간주할 수 없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칭할 때 '2차 경제'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³⁴⁾ 일차 경제 또는 공적 경제부문이 국가 및 집체부문을 포함하는 반면 이차 경제는 공식적으로 용인된 사영 생산 부문, 소규모 가족 생산 부문, 비공식적 사영 부문을 포함한다. 이차경제에 속하는 경제활동 가운데 일부는 그 존재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 받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그 기능을 인정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형태의 제2경제는 장사 또는 암시장이다.³⁵⁾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에서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암시장을 통한 생필품의 조달이다. 암시장은 1980년대 초 서서히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³⁶⁾ 암시장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거시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침체에 기인하지만, 경제침체에 대응한 북한 당국의 몇가지 정책변화가 암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국경지대의 각 도, 각 군에서 인접 중국 연변지역과 자유

34)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35) 서제진, 앞의책, pp. 26~34.

36) 북한에는 국영상점, 직매점 외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으로서 10일마다서는 농민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항시 개설되기 때문에 암시장화된 것이다. 10일장이 매일장으로 바뀔 때는 1989년 무렵이라고 한다.

무역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1984년 경부터 중국의 교포상인들의 자본주의식 장사가 유입되어 변경무역이 활성화 되었다.

북한에 암시장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 또 하나의 정책은 1984년부터 추진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으로서 이 운동이 가내수공업을 장려하면서 개인부업과 물물교환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암시장이 더욱 발달하게 된 것은 1989년 제13차 평양축전을 계기로 해서이다. 이 때 외국의 상품들이 많이 보급되었으며, 축제기간 중 외국 프로그램 등이 많이 소개되었다.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장사꾼(전체인구의 약 3~4%에 해당)이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1980년대 이후에는 비록 집단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회집단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특히 1980년대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여유 있게 잘 살게 된 것을 보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장사를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하는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³⁷⁾

장사외에 제2경제의 한 유형은 부업이다. 북한 시, 군 당 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독립된 '땅집'이나 일정한 유희공간이 있는 공용아파트에 기거하면서 돼지를 기를 수가 있다. 도시나 농어촌에 사는 퇴직여성들도 각기 부업에 종사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경제의 발달은 북한 주민들사이에 소유주의 또는 소비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모든 생산수단이

37) 북한에서는 현재 공식경제의 몇배에 달하는 규모의 지하경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암시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도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적 소유주의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중국-북한 북경을 통하여, 그리고 시베리아 벌목공들을 통하여 유입되는 중국산 의류, 일본 및 남한제 가전제품 등의 소비품이 북한주민들의 소유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품의 유입은 주민들을 더 이상 주체사상의 이념에만 묶어 놓기 어려운 물질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소비물자에 대한 요구증대는 식량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³⁸⁾

개인소유주의는 동시에 배금주의를 수반하고 있다. 암시장을 통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고 이득을 올리는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급격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 당적으로 인정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경제영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된 의식을 곧 체제저항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체제내에서의 경제적 실용주의 또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업, 암시장 등의 성공으로 이차 경제의 구성원들이 수와 경제력에서 강화된다면, 이들은 이차 경제적 요

38) 1990년 9월 5일에 입법화된 북한의 민법과 1990년 10월 24일에 입법화된 가족법에서 북한은 개인의 소유권과 그 소유의 상속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이러한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조선」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한 공민의 개인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과도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소들에 대한 국가의 공인 및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시장 지향적 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려 들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공식적 요소로는, 사회관계와 의식구조에 있어서 가족주의 및 개인주의의 발달, 비사회주의적 하위문화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2차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관계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공식적인 집단주의적 사회관계 이면에 연고주의, 인정주의, 개인화 등의 사적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가족 뿐아니라 개인관계, 조직생활에서도 집단주의적 원칙보다는 개인의 연줄을 활용한 개인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개인화가 발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가족주의가 발달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 사상과 성분이라는 집단적 이데올로기는 역설적으로 가족간의 연줄을 강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 가치지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는 공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뇌물수수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뇌물은 사회전체에 만연하는 일탈

행위로 되었다. 북한에서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시민들의 생필품에 관련된 경제 범죄, 관료들의 권한 남용과 부정 부패, 국가·집체 기업들 사이의 공공연한 불법 거래 등이 사회일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절도, 강도, 횡령, 사기, 암거래, 품귀 상품 부정 유출, 정량 미달 출고, 감량 판매, 부정 계량기 사용 등”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낯익은 문제들이 “물품과 금전을 취급하고 있는 경리 담당원, 매점원, 배급 및 수매 사업고 종사원이나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간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³⁹⁾ 이상과 같은 개인이익을 위한 사회일탈 행위들도 북한에서 ‘제2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을 촉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일탈 행위들은 북한주민들의 가치지향도 국가가 제시하는 사회규범과는 괴리가 있는 개인주의적 규범에 몰두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북한주민들은 나름대로 공적영역과는 분리된 개인적 의식세계를 유지하면서 실제생활에서의 적응을 꾀했을 것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분리된 개인적 의식세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그들 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해 행위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 생활 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행위들이 빈번히 국가에 의해 억제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⁴⁰⁾

39) 북한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에 관해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을 참고할 것.

40) 이렇게 북한주민들이 공적 영역과는 분리된 개인적 의식세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해나가는 행위양식을 ‘인지적 구획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제시하는 혁명적 또는 국가 권위주의적 사회 질서와

최근 북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이나 집단주의외에도 인정주의, 연고주의, 소시민적 성향 등이 일반화된 가치지향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 지향이 일괄적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탈(반)국가적인 행위 양식을 표출해 낼 심리적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직·간접적인 통제와 처벌이 미치지 못하는 사적 영역에서 국가의 이념적 지도와는 괴리된 가치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시적 환경의 변화로 그러한 통제와 처벌 기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경우에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개별적 이해 관계와 규범적 가치를 좇아 집단화된 일탈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또한 엄격한 대외통제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문화가 유입하여 사회주의 지배문화와는 이질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소련 및 동구의 경우 보다는 훨씬 미약하지만 북한에도 서방의 문화가 유입되어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서구문화가 북한사회에 확산하게 된 계기는 동구유학생, 조총련, 북한에 친척을 방문하는 재미동포 및 중국동포들을 통해서 들어온 개방 물결의 영향 때문이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와 방문객들을 통하여 외국문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와 개방분위기가 만연했다. 또한 북한당국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도입한 골프장, 가라오케, 디스코텍 등 자본주의식 레저생활도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하

시민들의 개인주의적 사회규범이 논리적 상충성을 띠기는 하지만, 인지적 구획화를 통해 이 두 원리가 개개인의 실제생활에서는 행위양식의 만성적인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장경섭, 앞의글, p. 144.

나의 하위문화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위문화의 형태로 북한 주민들은 록음악과 디스코를 즐기며, 나아가 남한노래도 애창한다고 한다. 또한 패션과 헤어스타일에서도 집단주의를 탈피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나 동구라파에서 체제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하문화' 같은 체제저항적 문화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지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가의 공식 분배통로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이미 유통구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태동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개혁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체제개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고,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공식 제도 및 의식체계가 공식제도 및 공식 가치체계와 함께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을 체제저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체제비판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갈등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은 무엇보다도 사회내의 이데올로기의 퇴조이다. 혁명적 이념으로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의식이 팽배하

다면 국가의 동원이데올로기는 설득력이 미약해질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사상교양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식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게 된 요인도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하는 자유주의,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가치의식이 발달한데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침체와 주민의 가치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3. 남북한 시민사회의 비교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상이하고도 대립적인 체제를 갖게 되었다. 먼저 남한의 정치적 질서는 정부 형태에 있어서 권력이 궁극적으로 개인 혹은 국민에게 귀속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했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따라서 합리적·법적 권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다원주의를 신봉했다. 그러나 남한의 정치체제는 실제에 있어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지도자의 관용 수준이 매우 저조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한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질서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한은 경제행위의 목표를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 두고 경제활동의 사회적 메카니즘을 시장원리로 부터 구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남한의 경제체제는 공공 이익의

구현과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개입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⁴¹⁾

한편, 북한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르조아민주주의로 일축하면서, ‘인민민주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체제를 구축해 왔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다원주의가 아닌 획일적 ‘유일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국가권력의 실질적 소유권은 당과 최고지도자의 몫이 되었고, 지배의 정당성은 카리스마적 권위에 크게 기초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통치형태는 20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인 전체주의적 속성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질서에 있어서 북한은 경제행위의 목표를 사회적 수요의 충족에 두고 경제활동의 사회적 메카니즘을 중앙집권적 계획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당과 국가에 의한 완벽한 경제통제, 그리고 시장원리 및 사적 소유권의 원칙적 부정이 그 특징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체제차이는 시민사회의 성격 및 국가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남한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적이다. 시민사회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적 소유제도와 시장 메카니즘,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신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과 결사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국가 대(對) 시민사회라고 하는 역학관계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주·자본주의체제에서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더불어 지배구조를 강화하거나 정당화할

41) 전상인, 앞의글, p. 7.

수도 있고, 국가와 기존의 지배체제에 대항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 갈등의 표출은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이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는 융합적이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완벽한 통제, 그리고 당·국가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예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체제를 놓고 국가에 대해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논할 수 없다. 이는 ‘국가중심적’이라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사회의 이념형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신민사회’이다. 여기서 국가는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우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하여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역학관계의 성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신민적’ 개인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국가에 종속되고 흡수될 따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은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내부의 갈등 역시 부자연스럽고도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성격이외 각 사회는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한의 경우, 시민사회의 형성은 처음부터 파행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과잉발전에 따라 시민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저발전은 1945년 해방 이후 분단구조의 정착과 한국전쟁, 장기간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지배로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간이 어느 정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은 처음부터 파행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의 많은 부분

이 국가에 종속되었고, 따라서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연되었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주민들의 경제활동, 사회 관계, 의식세계 모두에서 이차적 요소들의 생성과 증가를 탐지할 수 있다. 2차 사회는 한편으로는 2차 의식과 2차 경제에 관한 논의가 제시 하듯이 사회의 총체적 통제를 시도하는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이탈하거나 저항하는 사회적 행위나 연대 관계, 비공식 경제활동 등을 포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식적 목표나 선전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되는 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한 객관적 사회구조를 포함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체제일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차적 요소가 확산되게 된 요인으로는 중국이 개혁 개방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인과 상품 및 정보가 유입되었다는 대외적 요인과 경제침체라는 대내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할 경우 외부정보의 유입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경제회생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본격 경제회생의 프로그램이 실천되기까지는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을 체제저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체제비판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갈등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입증하듯이, 이러한 이차적 사회요소들은 중대한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

권력 구조의 균열과 결합되었을 때 시민사회적 질서 형성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이차적 사회요소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작용을 통해 어떠한 성격의 시민사회적 질서를 창출하고 어떠한 방향의 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시민사회 형성과 통일문화

남북한 시민사회의 성격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는 그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시민사회가 확대 또는 형성되는 방향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주민들의 경제활동, 사회 관계, 의식세계 모두에서 이차적 요소들의 생성과 증가를 엿볼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체제일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이차적 요소가 확산되게 된 요인들 - 즉, 중국이 개혁 개방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인과 상품 및 정보가 유입되었다는 대외적 요인과 경제침체라는 대내적 요인 - 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공식 사회 및 사회일탈 현상들은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발현할 수 있는 맹아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문화의 이념은 이러한 남북한의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현대사회의 성숙한 시민문

화를 지향해야 한다. 본장에서는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사회 성격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성격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가 시민의식의 회복과 사회적 갈등구조의 완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가. 시민의식의 회복

진정한 시민의식이란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합리주의, 다원주의적 문화의식을 포함한다. 또 나아가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통한 연대주의의 회복, 사회참여의 증진 등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적 통일문화의 성격은 시민의식의 회복을 지향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남한과 북한사회 모두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와 혈연주의 그리고 각종 권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추구하려는 집단이기주의를 척결하고 시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주의적 문화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1960년대 이래 남한과 북한은 각기 근대화와 산업화를 지향해오

면서도 이러한 산업사회의 구조에 적합성을 가지는 합리주의적 문화를 키워오지 못했다. 남한에서 60년대 이후의 공업화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각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였다. 그 대신 남한에서는 재력, 권력, 학력과 사회망이 인간관계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관료주의의 병폐와 새로운 불평등 사회구조⁴²⁾가 발생하게 되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지배-피지배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남한과 북한에 잔존해 있는 힘의 지배와 힘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대안은 무엇보다도 합리주의가 적합하다. 즉,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더 이상 전통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대사회구조에서는 합리주의가 중요한 통합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성 가운데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하는 합리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³⁾ 비판적 이성은 어떠한 가치나 유형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창조와 개혁의 영역을 넓혀준다. 이와 같이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 문화는 절대화된 가치, 권위주의적인 가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원적인 가치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질서를 지향한다.

둘째, 남북한은 기존의 권위주의 문화와 획일성에 바탕을 둔 냉

42) 이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77~390 참고.

43)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서울: 현암사, 1986), pp. 27~28.

전문화에서 벗어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와 비교해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 여러방면이 다원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이한 신념, 의견 등을 포용할 사회적 관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문화개조로 인해 전체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가 그 문화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생활모습에서의 변화는 북한사회도 점차 종전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다원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다원주의 문화는 광범한 신념, 사상 또는 태도들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그러한 신념, 사상, 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문화이다.⁴⁴⁾ 다원주의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신념이나 조직세력이 오랫동안 사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위협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다층적이고 균형잡힌 여러 정치적 형태와 과정, 여러 가지 소유형태, 다양한 결사체들이나 공개적인 토론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는 데 관심을 둔다.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문화체계는 신념이나 종교, 이익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문명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다원주의적 문화만 아니라, 자유주의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계급적 불평등과

44) 다원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Gale Stokes, "Lessons of the East European Revolutions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vol.XL Sept.-Oct. 1991 pp. 17~22.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평등지향적 사회운동에 의한 평등주의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다원주의는 또한 사회내의 권력이 분산되고 그 권력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개인들, 공동체들, 그리고 결사체들 사이에 각기 다르게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원주의는 시민사회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셋째, 현대사회는 사회관계의 비인격화와 개인의 소외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를 공동체적 관계의 재추구를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체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또한 공동체주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속에 오랫동안 담겨져 온 상부상조의 생활원리라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결속력을 지닌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원래 그것의 업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공속성 내지 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⁴⁵⁾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의식 가운데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에서 공히 구조적 원리의 하나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적 집합주의일 것이다. 연고주의는 그것이 지닌 배타성, 비합리성, 파쟁성 등으로 인하여 슬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고주의가 하나의

45)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p. 30 참조.

사회·문화적 규범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강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급격하고 전면적인 사회 변화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의 농촌공동체적 질서 아래서 누렸던 안정감과 정체성을 연고주의적 집단 의식을 통해서나마 되찾아보고자 하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므로 만약 연고주의적 사회조직이 이처럼 이익추구성을 억제하고, 감정 및 의사소통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회의 비인격화 내지 소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집단들이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공익을 위한 봉사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연고주의는 사회적 분열과 파쟁의 원천이라는 역기능 대신에 시민적 연대와 통합이라는 순기능을 행사할 것이다.⁴⁷⁾ 따라서 연고주의와 가족주의가 갖는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공동체문화의 창조가 불가능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나. 사회갈등의 해소

통일문화의 형성은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기존의 사회갈등을 완화하여 통일국가의 시민사회가 이를

46) 연고주의는 성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속성상 감정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불신풍조와 이기주의, 끊임없는 경쟁관계로 특징지어지는 인간성 부재의 시대에서 연고주의적 인간관계는 인정과 격려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는 합리적 조직 내에 온정주의나 가족주의 문화와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47) 김성국,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격: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pp. 160~161 참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남한사회는 본질적으로 통합적이라기 보다는 갈등적이다. 근대화, 특히 산업화에 의해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사회적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증대되었으며, 남한의 사회갈등은 다양한 전선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남한이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회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담아내는 사회통합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시장과 민주주의의 거시적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사회갈등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회통합의 유지 그 자체가 체제의 존립 근거를 가늠했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은 철저히 은닉되거나 완벽하게 통제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와 사회적 통합 자체를 최고의 체제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사회갈등을 비자연적, 반사회적, 비도덕적, 그리고 반윤리적 일탈현상으로 치부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통합의 측면이 크게 두드러지나, 북한체제의 전반기에 비해 1980년대 이후 부터 무갈등의 신화가 점차 빛을 바래면서 갈등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경제상황의 지속적 침체, 후기혁명 사회로의 세대론적 이동, 그리고 대외적 폐쇄성의 점진적 약화로 부터 불가피하게 유리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통합과 갈등에 있어서 남북한의 현상적인 차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와 수준의 문제이며, 그것은 남북한의 상이한 두 체

제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정책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갈등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제기된다.

첫째,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남한에는 동서간의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간의 생활격차로 인하여 부분적인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후 남북한 주민이 모두 단일 생활경제권에 살게 될 때,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거나 정치·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⁴⁸⁾

둘째로 세대간의 갈등도 새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젊은세대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이나 적응력을 발휘하여 통일된 체제의 이념이나 제도에 비교적 빨리 적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통일 후 초기단계에서는 민족의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교육만을 받아온 젊은세대들이 더 경직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⁴⁹⁾ 그러나 이들도 곧 새로운 교육제도하에서 체계적인 사회화

48) 통일이후의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강명구, “통일한국의 지역 격차 문제: 공존의 지역정책을 위한 제언,”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예음, 1994), pp. 237~262 참고.

49)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출생자의 비중이 70.6%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구성은 북한의 경우도 비슷하여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남북인구의 2/3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남북인구의 대다수가 각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가치 체제하에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최협, “더불어 사는 사회로 이념의 벽을

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장년이상의 세대들은 기존체제에 익숙하고 재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기존의 이념체제와 문화성향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는 새로운 체제에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⁰⁾

셋째,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사회문화적 갈등은 통일 이후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남한지역 주민들은 오랜동안 통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왔다.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위상강화, 남북한의 보완적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부흥,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정치사회적 안정이 일시적으로 저해되거나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불만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주민들도 통일이전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하더라도 남한지역 주민들과의 격차 때문에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⁵¹⁾

극복,”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대에 열리는 통일시대」(서울: 동아일보사, 1993), pp.105~6.

50) 그러나 분단이전 시대의 경험이 있는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1) 또한 통일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과정에서 새로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계급도 재편될 것이며, 통일에서 수혜를 입은 계급과 피해를 입은 계급간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이우영, “통일의 사회·심리적 후유증 해소를 위한 체계적 방안 연

넷째,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의 소지도 완화시켜야 한다.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으며 사회활동에서 남녀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²⁾ 따라서 통일 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성적 가치관에 대한 차이로 인한 여성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 여성의 근로조건, 탁아정책, 가족정책 등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통일정부의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갈등구조가 완화되어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해 공존하는 시민사회만이 통일문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통일문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민주적인 시민윤리 및 도덕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도덕교육과 정치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절실하다. 교육이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를 형성시키는 기초라고 할 때, 학교교육은

구,” 강광식 외, 「통일휴유증 극복방안 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 386.

52) 남북한 여성의 사회적 위상 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서울: 민중사, 1994), pp. 323~393 참고.

이러한 민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덕목, 합리적 의사결정, 사회참여와 비판, 공동체에 대한 협동과 연대의식은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은 올바른 시민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통로이다. 특히 타인의 견해에 대한 관용과 타협을 승인하는 도덕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하는 정치교육은 가치체계의 민주화와 사회제도의 민주화를 연결하는 매개영역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기존의 통일교육과 연계시켜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시민의 양성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⁵³⁾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을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⁵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은 일반적인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민족번영을 약속하는 통일한국의 정신적 기초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냉전구도하에서 심화된 적대의식을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

53) 이우영, “평화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한국도덕정치교육연구원 94년도 학술세미나 「개혁의 과제와 민주시민교육」 발표논문(1994.10.21).

54) 통일원, 「화해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서울: 통일원, 1993), p. 4.

국의 정신적 기초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통일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자유, 민주, 복지체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첫째 남북분단의 역사적 상황, 원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분단에 따른 부작용을 규명하는 적업을 토대로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실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설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어내는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방법은 기존의 공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정치교육연방본부'와 같은 통일대비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다양한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일대비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각 교육기관의 유기적 연결, 교육담당자의 양성 및 연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실체험, 문화행사의 이용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정치권력과 독립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

육 대상별로 교육내용과 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교육대상의 지적 능력, 세대별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민주적 시민윤리의 형성은 시민문화의 형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민윤리의 확립은 시민들이 개인적·집단적 활동을 통해 공적인 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충족될 때 보다 원활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참여의 절차와 통로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주거지역 단위나 직장과 작업장 단위에서의 실질적 참여 기회는 더욱 봉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부에 필적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강화, 정당 내의 권위주의 불식과 민주적 관행의 강화, 이익집단들의 조직화 및 활성화등의 제도적 조건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문화의 민주화와 의식개혁은 쉽사리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기존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적 체제에 의하여 소멸된 시민사회를 희생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다원주의의 확대와 민주화 진척에 힘입어 점차 다양한 계급, 신념, 이데올로기, 종교패턴 등으로 분절되면서 다양한 집단의 배합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기업집단과 노동단체, 이념, 사상적인 자율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지식인 집단으로서의 교육자, 작가, 예술인, 종교세력 등이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자율적인 영향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완전한 통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상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없었다. 더욱이 김일성 일인통치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시민사회가 생성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강력한 국가와 기술관료의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해온 권위주의적 지배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전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민운동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규범,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주적 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환경, 여성, 교육, 청소년, 교통문제 등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운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지역운동 사례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이 시민운동들은 냉소주의, 무기력증, 비판정신의 부재, 이기주의, 가족중심주의, 무엇보다도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일반 시민들을 공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민주적 시민문화의 정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제 V 장 결 론

본 연구는 통일문화의 이념이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의 기반이 되는 민족이념과 인류의 보편적 발전방향인 시민사회 이념이라는 두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명제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통일문화 이념의 구성요소인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사람들이 사적 시민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들 자신의 여러가지 조직을 창조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시민사회는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민사회는 체계분화에 있어서 경제, 정치, 사회의 3가지 하위체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 사이의 사적 또는 자발적 묶음으로 조직되는 사회생활(비경제적, 비정치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현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며 발달하였으며,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전체주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상과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개념은 자본주의·사회

주의라는 체제적 구분을 초월하여 ‘국가로부터의 시민사회의 분리’ 내지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지닌 시민사회를 민주적 질서의 중심적 특질로 여기며, 나아가 사회생활의 민주화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는 그 속성상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념을 지닌채 살아오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섞여 살아가게 되는 통일이라는 상황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는 사회적·문화적 형태일 것이다. 즉, 시민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다원주의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이념은 남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함으로써 내적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개념은 효율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였다. 남한사회가 산업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태동을 경험하는 동안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개개인이 종속적인 신민으로 이루어진 ‘신민사회’를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 부터 북한사회에서도 공산체제하의 동유럽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행동양식이 표출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내의 비공식적인 요소들이 시민사회의 맹아적 형태인 ‘제2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체제저항 혹은 체제비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내의 이데올로기의 퇴조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시민사회 개념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남북한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검토에 바탕을 둔 통일국

가의 내용문제와도 직결된다. 왜냐하면 통일문화의 이념은 남북한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변화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미래의 사회구조에 대한 높은 적합성을 갖는 문화이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시민사회의 성격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는 그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시민사회가 확대 또는 형성되는 방향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문화의 이념은 이러한 남북한의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현대사회의 성숙한 시민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가 시민의식의 회복과 사회적 갈등구조의 완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시민의식 합리주의, 다원주의적 문화의식을 포함하며 나아가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통한 연대주의의 회복, 사회참여의 증진 등을 요구한다. 또한 통일문화의 형성은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기존의 사회갈등을 완화하여 통일국가의 시민사회가 이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민주적인 시민윤리 및 도덕의 내면화를 위한 도덕교육과 정치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둘째 시민들의 공적인 결정 과정에의 참여의 보장, 정치권의 권위주의 불식과 민주적 관행의 강화, 이익집단들의 조직화 및 활성화 등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 셋째 시민사회운동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연대의식과 민주주의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의식과 사회문화의 통합을 주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가와 같은 공적기구가 사회문화적 통합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획일화되고 전체주의화된 의식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빈 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임 순 희*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들

제 III 장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제 IV 장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실제와 변화전망

제 V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정치학 박사

빈 면

第 I 章 序 論

1980년대 후반이래 전개되어 온 對內外的 통일외교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특히 동·서독통일에 크게 고무되어 최근 우리 사회에는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보다 더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對北接近이 지속적으로 적극 모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고조와 對北接近의 적극화에 즈음하여,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북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사회의 下位集團에 관한 연구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새 세대에 속하는 북한의 청소년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종래의 북한연구 動向에 비추어 보면¹⁾ 현저한 발전을 보인 것이라 하겠으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물의 主內容은 정치사회화, 혹은 사상교육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²⁾ 요컨대, 북한 청소년의

1)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945년 부터 1986년 까지의 북한연구는 정치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북한의 권력관계와 후계체제에 관한 것이다. 신정현,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북한」(1989.9), pp. 158~168.

2) 이영숙외, 「북한 청소년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pp. 5~38 참조. 한편,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다분히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정치학자나 사회학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사회학

가치관을 論題로 한 先行研究物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³⁾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논문의 主題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論題로 한 선행연구물은 한 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 새 세대의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경험적 분석이 불가능한 연구결과의 타당성 내지 신뢰도에 懷疑的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1. 研究目的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국민 모두의 숙원이며 당위적인 絶對課題이다. 이를 근거로 한, 머지않은 장래의 한반도 통일을 既定事實化하고, 최근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남북의 정치적 통합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진정한 화합, 즉 내면적 통일을 위한 事前 整地作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통일의 과정에서 뿐만

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정치적태도나 정치사회화 이외의 다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현 외, “청소년의 성격형성 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한국심리학회, 1993)

- 3) 채중묵,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국토통일원, 1973); 이필은, 「북한 청년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박용현, “북한의 정치교화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학보」, 4집 (서울: 북한연구소, 1980); 유종해, “남북한 청소년, 학생의 가치관형성 - 교육제도를 통해 본 관찰,” 「북한」 (1975.11); 서동익, “북한 청소년들의 경로관,” 「북한」 (1988.8); 김옥순 외, “남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비교,” 「자유공론」 (1994.7); 박성희 외,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내면적 통일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남북한의 相互異質化 극복 내지 同質性의 회복을 위한 연구 논의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연구의 문화적 접근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統一文化의 형성을 지향한 연구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즈음하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적실성을 갖는다고 하겠으며, 특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상호이질화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北韓體制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담당할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문화가 동질적이면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더 할 수 있다고 할 때, 남북한 통일에 앞서 북한사회의 각 하위집단이 共有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북한 새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統一文化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즉, 본 연구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究明해 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방향을 추론, 전망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과 研究展開過程

가치관의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技法은 설문조사, 심층 대담, 또는 행동관찰 등이며, 이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화된 技法은 설문조사를 통한 가치관 측정방법인 서베이방법(survey methods)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분석은 서베이방법과 같은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인 技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間接技法들 중에 하나가 내용분석이며, 이는 특히 경험적인 자료입수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자의 자료가 문헌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본 논문의 分析技法도 내용분석이며, 이는 주로 1990년대에 발표된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한 質的分析이다. 즉 북한소설에 나타나는 북한 새 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신·구세대의 갈등 관계 내지 그 양상을 읽고 분석하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究明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입증 내지 반증을 위해-一次資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귀순자의 증언 및 북한을 가 본 사람과 북한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등의 현지 체험을 통한 증언을 활용할 것이며, 이외에도 南北韓의 공식보도 자료, 통일원 간행물 및 북한연구 학자들의 既存 연구결과를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方法論上에서 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연구는, 그 연구결과가 경험적인 실증성을 결여하여 연구결과 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따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지 않은 概念化나 要因究明은 자칫 연구자의 관

념적인 편견에 불과할 수 있으며, 理論化를 지향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극도의 폐쇄성은 연구기법의 과학성을 거의 무색하게 하므로 활용가능한 次善策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로서 드러날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은 ‘측정’된 것이 아니라 ‘추측’된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⁴⁾ 가능한 한 主觀을 배제한 客觀的이고도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타당성 및 신뢰도가 인정되는 연구결과를 내 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지이다.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 및 변화방향을 추론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은 북한 新舊世代 가치관의 비교분석 내지 새 세대 가치관의 시대적 비교분석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논문은 80년대 후반 이래 전개된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실제와 변화방향을 살펴 보려고 한다. 즉 8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북한 경제의 침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한 對西方關係 개선 및 부분적인 체제개방 모색, 그 과정에서 일어난 西歐思潮 및 文物의 유입, 그리고 蘇聯 및 동구권의 붕괴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즈음하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설과 공식보도자료 등을 포함한 북한원전과 북한체험자의 증언에 있어서, 최근(80년대 후반이래)에 나타나는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양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주요 근거로 하고, 또한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새 세대의 공식적인 가치지향과

4) 최현 외, 앞의 글, p. 177.

북한 새 세대의 실제적인 가치관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 및 변화방향을 추론하게 될 것이다.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연구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틀에서는 북한 새 세대의 개념과 가치관의 개념을 定義한 후,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대상을 각 領域別로 概念化하고, 각 분석대상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밝힌다.

제3장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서는 제2장에서 개념화한 각 분석대상 영역별로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제4장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실제와 변화전망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특징적인 면을 밝혀 논하며,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결과와 가치관 형성에 작용한 요인들에 근거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추론, 전망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前述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가 갖는 對社會的인 의의를 살펴 본다.

3. 資料의 性格

소설을 자료로 삼아 한국인의 가치관을 분석한 김태길교수에 의하면, 소설은 同時代人의 의식과 생활태도를 비교적 알기쉽게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⁵⁾ 북한소설 분석

5) 김태길, 「소설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일지사, 1977), p. 8.

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를 밝혀 논한 이은죽교수에 의하면, 소설작품들을 대하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⁶⁾ 또한 그는 소설과 같은 자료는 동시에 이중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하나는 북한당국이 표방하는 공식적 가치지향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자료이고, 또 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 묘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에서 비교적 사실적인 자료라고 본다⁷⁾고 한다.

이상과 같은 두 견해는 북한소설이 지닌 북한연구 자료로서의 유용함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의 문학은 주체사상과 당의 문예정책에 충실한 當爲的인 결말만을 지어내는, 체제와 수령의 홍보물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도 북한소설은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첫째, 북한소설은 북한주민들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내면세계를 비교적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문학작품의 진실성은 작품에 그려진 생활이 현실과 같은가, 같다면 어느 정도 같은가 하는 것을 재는 척도로 된다.”⁸⁾라고

6)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p. 239~240.

7) 위의 책, p. 240. 또 다른 책에서 이은죽교수는 소설이 사회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바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p. 237~238.

8) 현종호, “주체문학 창작의 형상원리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해명,” 「조선문학」 (1993. 8), p. 25.

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진실성은 사실주의 문학의 본성적 요구이며 사실주의는 말그대로 작품에 현실을 사실과 같이 묘사를 수단으로 생활을 반영하는 묘사문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묘사, 세부묘사라고 한다.⁹⁾ 요컨대, 이른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창작물인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에 관한 세부묘사는 심층적인 가치관 분석에 有用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소설은 그 소재와 배경 및 상황이나 줄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共有하고 있는 특징은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특히 사회적 가치지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북한의 소설은 특수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¹⁰⁾

셋째, 80년대 이후 북한소설은 실제 일반사람들이 당대 현실생활에서 느끼고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 즉 오늘날 북한의 보통사람이 겪는 직접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¹¹⁾ 80년대 소설문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 世代間의 갈등, 그리고 여성문제 등이며, 이러한 사회주의 현실주제는 90년대의 북한문학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¹²⁾ 여기에서 특히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90년대에 들어서 보다

9)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문학형태 이론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9), p. 32.

10) 이은숙, 「북한사회연구」, p. 238.

11)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p. 263~271.

12) 위의 책, pp. 287~307.

더 細分化되어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본 논문이 주로 90년대에 발표된 소설을 자료로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북한소설은 분석자료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그 유용함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연구 자료로서의 북한소설을 어떻게 읽고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소설에 담긴 북한 새 세대와 관련된 黨의 공식적인 메시지 내지 공식적인 가치지향과 북한 새 세대의 실제적인 가치관을 명확히 究明해 내는 것이라 하겠다.

第 II 章 北韓 새 세대 價値觀의 분석틀

1. 概念定義

가. 北韓의 새 세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이라는 對內外的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소비문화의 開花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 등장한 新世代는 여전히 그 概念定義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90년대에 들어 우리사회에 등장한 신세대는 보통명사가 아닌 固有名詞化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를 데면, 그들은 대체적으로 20대의 젊은이들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物質的인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이며, 기존의 질서가 부여해 온 억압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고, 오직 자유만을, 홀로서기만을 원하는 강렬한 개성을 가진, 새로운 道德觀과 價値觀의 소유자로 지칭되는가 하면,¹³⁾ 無節制한 過消費, 지나친 감성적 사고와 행동, 전통적 가치관 거부와 서구적 문화의 무분별한 모방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이다.

북한사회에도 신세대가 존재하며 그들에 대한 공식적인 定義는 이른바 혁명의 4세대이다.¹⁴⁾ 또한 북한의 신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대들이며 말그대로 '새 세대'라고 불리운다.¹⁵⁾

북한의 새 세대 역시 한국의 신세대와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對內外的정세를 배경으로 90년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신세대가 對內外的정세의 긍정적인 추세 속에서 비교적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면, 북한의 새 세대는 김일성 사망, 극심한 경제난, 핵문제와 외교적고립 등 對內外的정세의 부정적인 추세 속에서 그다지 밝지 않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西歐思潮와 西歐文物의 침투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마저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북한당국도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새 세대만큼은

13) 현실문화연구,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3) 참조.

14) 머리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 (1993.7), pp. 4~5.

15) 북한문헌에 나타나는 바, 북한에서는 청소년, 청년 학생 등이 '새세대'로 지칭된다. 한편, 북한의 청소년은 소년기(9세부터 13세까지)와 청년기(14세부터 30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층을 의미하며, 1990년 기준으로 북한 전체인구의 약 43.2%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희 외, 앞의 책, pp. 10~14 참조; 김재용, 앞의 책, pp. 292~294 참조.

자유화와 민주화, 개방과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대조류에 물들이 없이 오로지 主體思想化될 것을 다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당국의 우려는 그들의 '새 세대' 定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주체사상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 옹호자”¹⁶⁾, “당의 믿음직한 전투부대, 혁명의 계승자, 당의 근위대, 결사대”¹⁷⁾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업 수행에서 높은 충실성과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한다.”¹⁸⁾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새 세대들에게 있어 가치관의 변화 내지 動搖가 있음을 感知하게 하는 몇 가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사상문화적 침투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미치게 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나라를 내부로부터 분열 와해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¹⁹⁾라고 하여 서구사조와 문물의 침투로 인한 북한 새세대의 동요와 혼란을 경고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착취계급의 도덕과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은 청년들을 병들게 하는 위

16) 김일성,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수 하자,” 「청년문학」 (1993.4), pp. 6~7.

17) 김정일, “현 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김정일 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474~485.

18) 위의 글, p. 480.

19)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천리마」 (1991.11), p. 22.

협한 독소입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유화》 바람과 날라리풍에 유혹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²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현실에는 아직 자기 개인을 먼저 내세우며 못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다. 자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사소한 요소들이 자라면 종당에는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몰라보는 속물로 정치적 오락자로 혁명의 배신자로 돼버리게 마련이다.”²¹⁾라는 지적도 있다.

1989년 평양축전 이래, 북한의 신문·방송이 북한 새 세대의 사상적 이완현상, 무사안일 풍조, 개인주의적 생활태도 등 혁명의식 약화와 노동기피 풍조를 점차 강도 높게 비판해 오고 있음은上記한 바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는 訪北者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디스코풍의 록음악을 즐겨 들으며 은밀한 곳에 모여 디스코를 추기도 하고,²²⁾ 또한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가요가 은밀히 애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요가 수록된 테이프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도 한다.²³⁾

이상과 같은 예로써 미루어 볼 때, 최근 북한의 새 세대 사이에는 사상적 동요 내지 가치관의 변화가 일고 있음이 사실이라 하겠으며, 최소한 북한의 새 세대 역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신세대와의 동질성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

20) 김일성,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청년문학」 (1993.4), p. 7.

21) 김익철, “추억과 소원,” 「조선문학」 (1993.3), p. 58.

22) 「내외통신」 종합판(44) (1991.7.1-12.31), p. 336.

23) 「내외통신」 (1995.1.5).

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 신세대와 북한 새 세대의 동질성은, 그들 모두가 앞으로의 한반도를 책임질 젊은이들이라는 데에서 그 근거가 찾아진다.

나. 價値觀

가치 내지 가치관의 개념은 다양하게 定義된다.²⁴⁾ 이를 테면, 가치관이란 “비록 실천은 따르지 않더라도 마음 속에 일어난 관념으로서의 가치의식,” 또는 “실제 행동의 원동력으로서의 의지작용” 등으로 정의되거나,²⁵⁾ “여러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²⁶⁾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 되기를 바라는 것, 의무로 느끼는 것, 숭배하는 것, 즐기는 것”²⁷⁾ 등으로 정

24)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치관도 태도와 같이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다는 점과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동성향이라는 점에서 태도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가치관은 태도 보다 더 포괄적이며 보다 지속적이고 더욱 일반적이며 중심적인 뜻을 갖는 개념이다. 구성요소면에서 본다면 가치관은 주로 인지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치관은 보다 추상적이며 당위적 사회적 문화적인 뜻을 가졌다.” 정인석, 「신청년심리학」 (서울: 대왕사, 1988), p. 141. “가치의식이란 가치관 또는 가치지향, 규범 태도 혹은 의견 같은 말들과 동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 가치관이나 가치의식은 개인의 수준에서 갖는 생각이고 이것을 사회의 수준에서 논의할 때는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가치의식의 방향을 일반화하는 뜻으로 가치지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은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pp. 242~243.

25) 김태길,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 (서울: 민중서관, 1975), pp. 14~15.

26)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1992), p. 14.

27) Robin M. Williams, Jr.,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52), p. 375.

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개념정의는 클러크혼(C. Kluckhohn)의 定義로 그는 “가치란 이용가능한 행위의 양식, 수단, 목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에 특유한, 바람직한 것에 대한 明示的 또는 默示的 觀念”²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上述한 바를 종합해 보면, 가치관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선택상황에 있어 작용하는 평가적기준 내지 행동의기준이며,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2. 研究분석틀

前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가치관의 개념정의에 따라 북한 세세대의 가치관 분석은 북한사회 전반의 諸領域에 있어서의 북한 세세대의 평가적기준 내지 행동의기준과 행동방향 및 동기를 분석하게 되며, 분석대상 영역은 다음과 같이 概念化된다.²⁹⁾

28) Clyde Kluckhohn et al.,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 Parsons, Edward A. Shils et al.,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 395.

29) 북한 세세대 가치관의 분석대상 영역은 국내에서 행해진 한국인, 대학생 및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 8편에서 설정된 대상영역을 취합 정리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진 대상영역을 개념화한 것이며, 특히 김형립교수의 논문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에서 설정된 가치관 영역을 주로 원용하였다. 다음은 선행연구결과들에서 다루어진 가치관 분석대상 영역들이다.

가정관, 교우관, 정치관, 교육관, 도덕·윤리관, 박성희 외,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 가족가치관, 경제가치관, 정치가치관, 사회가치관, 종교가

먼저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대상 영역은 人生觀, 家庭觀, 社會關係觀 등 3개 範疇로 나뉘어지고 3개 범주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이 포함된다. 첫째, 인생관에는 自我概念, 인간관, 삶의 목표, 직업관, 행복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가정관에는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관계관에는 男尊女卑觀, 長幼有序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관과 교우관, 이성관 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대상 영역의 개념화에 있어서 정치관, 경제관, 국가관, 전쟁관, 통일관 對外國觀 등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前述했듯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분석은 북한소설을 일차자료로 삼고 있으며, 분석의 한 관점에 있어서는 북한소설에 그려진 세대간 갈등 내지 모순, 새 세대 간의 갈등 내지 모순, 그리고 북한사회 현실에 대한 북한 새 세대의 불만 등을 읽고 분

치관(한국인의 가치관), 전통적가족관념, 결혼상대자 선택의 문제, 정치적태도, 對外國觀念, 對人格價值觀, 행복·불안관념, 對戰爭觀念, 인생·세계관, 생활목표(대학생의 가치관),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자아 및 타인관, 직업관, 사회 및 국가관, 윤리관, 인생관, 최윤진, “청소년과 가치관,” 한국청소년연구원 編, 「청소년문화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pp. 17~43; 爲政者, 利己 및 利他, 사회정의, 우정·연애 및 결혼, 師弟·長幼 사이의 예절, 효도, 형제의 우애, 부부의 道 등 15가지, 김태길,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서울: 일조각, 1967); 자화상 혹은 자아개념, 가족관, 장유유서관, 직업관, 인생관, 교우관, 이성관, 최일섭, “청소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사회과학연구소 編,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p. 209~230; 인간관, 역사관, 사회관, 정치관, 경제관 문화 예술 종교 기타의 가치관, 임희섭, 「남북한의 가치관 차이와 남북통일 문제」 (서울: 국토통일원, 1975); 정치적 가치의식, 경제적 가치의식, 사회적 가치의식, 일반적 가치의식, 박용현, “대학생의 가치의식,” 사회과학연구소 編, 앞의 책, pp.231~250; 인생관, 가정관, 윤리관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마다 諸下位領域 포함, 김형립,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안귀덕 외, 「한국의 청소년문화 (II)」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 281~382.

석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上記의 가치관 영역들은 餘他の 가치관 영역에 비해 정치성 내지 이데올로기성이 보다 더 강하게 內在되어 있는 대상 영역들이므로,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가치영역들에 대한 북한 새 세대의 갈등관계 내지 불만이 북한소설에 그대로 묘사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上記의 가치관 영역에 대한 분석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석대상 영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치관 분석대상영역을 중심으로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第 III 章 北韓 새 세대의 價値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분석은 인생관, 가정관, 사회관계관 등 3개 영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각 영역마다 다음과 같은 數個의 하위영역이 포함된다. 먼저 인생관에는 자아개념, 인간관, 삶의 목표, 직업관, 행복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가정관에는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관계관에는 남존여비관, 장유유서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관, 교우관, 이성관 등이 포함된다.

1. 人生觀

人生은 인간의 삶, 생활이며 인생의 主體는 자기자신, 즉 自我이다.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各個自我는 타인 및 사회환경과의 不斷한 상호작용 속에서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며 나름대로의 목표 내지 목적을 설정하여 보다 나은 인생, 보람 있는 삶, 행복 등을 추구한다. 한편, 한 의식있는 자아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자체와 자기자신에 대한 파악 내지 이해가 先行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새 세대도 인생의 主體이다. 그들 역시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일정한 삶의 목표하에 보람된 삶과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새 세대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아개념, 인간관, 삶의 목표, 직업관, 행복관 등이 그것이다.

가. 自我概念

自我觀 내지 自我認識의 대상은 자신의 성격 및 의지, 자신의 능력 및 자신의 일, 자신의 존재 가치 및 의의, 자신의 對人關係 및 사회환경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새 세대의 자아개념은 북한의 새 세대가 上記의 자아관 내지 자아인식의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석한다. 즉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또는 만족해 하는가, 불만스럽게 느끼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소설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존재가치 및 의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북한의 새 세대는 자신들을 일컬어, “우리야말로 태어난 첫날부터 당의 해빛 같은 사랑을 받으며 당의 품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친형제들”³⁰⁾이라고 하여, 자신들은 당의 은덕과 배려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난 새 세대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로세대의 뒤를 이어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세대, 그래서 더욱 책임감과 행복감을 간직한 세대”³¹⁾임을 자긍심 높게 言明하고 있다. 또한 북한 새 세대의 일부는 스스로를 “농촌 청년운동의 선구자”로 自處하고, 이른바 “청년분조원”으로서의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테면 그들은 “우리시대 청년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그 힘겨운 투쟁 속에서 행복을 얻고 고향땅을 락원으로 만들어 다음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것”³²⁾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농촌의 새 세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청년분조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농촌진지를 지켜선 혁명전사라고 불러

30) 남대현, 「청춘송가 하」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1988), p. 135.

31) 김삼복, 「세대」 (평양: 문예출판사, 1985), p. 122.

32) 김용한,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p. 315~316.

주신 것”³³⁾에 대해 감격하기도 하며, 자신들은 김정일을 모시고 행복감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로부터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았으므로 “어느 때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달려가 자기를 바치기에 준비된 인간”³⁴⁾임을 自負한다.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북한 새 세대의 자기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내지 의무감과 일에 대한 적극성 및 강한 의욕, 그리고 일의 성취를 통한 자부심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테면, 북한의 새 세대는 “피와 땀으로 가꾸어 놓은 오늘에의 무지개빛 운무에 휘감긴 래일로 이어지는 새 세대의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³⁵⁾하고 있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고는 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수도건설돌격대에 자원하였다가 동료들의 무관심과 모욕을 당하며, 자신의 희망과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다른 직장으로의 《도주사건》을 일으킨 한 새 세대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후회와 번민에 휩싸여 다음과 같이 自責한다.

내가 일하는 대외사업처에서 난 하나의 인형과두 같은 존재야. 막 말루 말해서 자격도 없는 내가 남의 눈치만 살필래기 정신이상일 생길 지경이다...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수동체인데 그래 과연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란 말이야?!...나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

33) 위의 책, p. 304.

34) 정영중, “복무는 희생이 아니다,” 「청년문학」 (1993.11), p. 35.

35) 이정수, “사랑이 시작된 곳,” 「청년문학」 (1992.11), p. 45.

어...나는 그 어떤 자기기만의 철사에 묶여버리고 말았어. 생활은 자기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주지 않는다는걸 지금 나는 사무치게 깨닫는구나...친구들, 난 다시 시작하구 싶다. 내 손으루 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스스로 의무를 다하겠다. 쓰고 달고 맵고 짠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꼭 다시 찾고싶다.³⁶⁾

또한 북한 새 세대의 자기자신과 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은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면에서 영남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힘의 축적과 리용을 바로 하였기 때문에 기본상 자기목적에 달성하며 살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그림을 몇 점 당선시켜 사회적인정을 받아 중견미술가로서의 확고한 자격을 받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³⁷⁾

이상과 같이 북한소설에 나타난 북한 새 세대의 자아관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자아인식은 인생의 주체로서의 한 독립적인 人格體라기 보다는, 하나의 집단 속에 매몰된 劃一화된 자아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는 자립적인 인간들이고 지향을 가진 하나의 집단입니다.³⁸⁾

우린 누구나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교육 받아오지 않았는가!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덕으로 고결한 의무로 된다고 배우지 않았는가!³⁹⁾

36) 김철준, "건설장 소묘," 「조선문학」 (1992.8), p. 41.

37) 조수희, "향나무," 「조선문학」 (1993.12), p. 62.

38) 김용한, 앞의 책, p. 103.

39) 남대현, 「청춘송가 상」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1988), p. 87.

하고 보면 수연이 지닌 매력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마음깊이 새겨져있는 아름답고 진실한 감정 바로 거기에 있음이 틀림없었다. 사회적집단의 대가정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사는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와 동지의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계선을 긋고 갈라놓을 줄 모른다. 하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제기하는 스스로의 요구를 동지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의무로, 권리로 간주하는 것이다.⁴⁰⁾

위 글에서는 북한 새 세대 간의 同志的 감정 내지 同志愛를 발견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도 더 示唆的인 것은 집단 속에서의 획일화된 자아이다. 이는 김일성에 의해서도 단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집단”⁴¹⁾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의 자아인식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북한 새 세대는 자신의 권리주장 보다는 의무수행을 중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당에 대한 의무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는, 한 소설의 중심인물인 새 세대가 私的인 일로 괴로워 하는 여자동료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다.

우린 오직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키워준 당의 은덕에 당의 사랑에 보답해야 할 그 의무밖에 없소. 그 어떤 번민도 새것을 위한 투쟁으로 환원시킬 권리밖에 없단 말이요.⁴²⁾

40) 현희균, 「새 땅」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326.

41)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p. 14.

42) 남대현, 「청춘송가 하」, pp. 135~136.

上述한 바를 종합해 보면,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는 긍정적인 自我觀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자아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들의 자아인식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자아는 집단 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나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당에 대한 의무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최근 북한당국이 새 세대의 혁명성 약화를 우려하고 '부르주아 사상 및 날라리풍 등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풍조'의 침습을 비판하며⁴³⁾ 사상교육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부 청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⁴⁴⁾ 극도의 감시 통제체제인 북한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이른바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고, 사상일탈, 체제일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⁴⁵⁾ 청소년 싸움패, 불량아 등이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⁴⁶⁾ 오늘날 북한 새 세대의 자아인식에 있어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지난해 4월 귀순한 여만철씨의 자녀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정토대가 나쁜 아이들은 어차피 북한사회에서 제대로 살기는 글렀다는 생각에서 불만이 있으며,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특히 노동자 자식들은 뭘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43) 「세계일보」, 1995. 4. 26.

44) 「중앙일보」, 1995. 7. 24; 「중앙일보」, 1995. 7. 31. 보도에 의하면 일부 청년들이 조직의 지시와 규율을 어기거나 각종 조직생활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45) 「내외통신」 제 946호 (1995.3.30)

46) 북한문제연구소 編, 「북한의 현실」 (서울:북한문제연구소, 1993), pp. 80~84.

만 별면 된다는 말이 입에 붙어다닌다”고도 한다.⁴⁷⁾ 이와 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날 일부 북한 새 세대의 자아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아관을 갖는 북한의 새 세대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가치지향인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과는⁴⁸⁾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북한소설의 한 대목에서도 북한 새 세대의 부정적인 자아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반장동지가 차라리 욕이나 꼭 해주었으면... 우릴 추궁할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구나. 우린 정말 단발머리 헛내기인 모양이지? 단발머리, 무엇때문에 사람들은 단발머리 시절을 하찮게 여기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설심아, 정말 이렇게 단발머리 시절일까?⁴⁹⁾

위의 소설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자신들에 대한 既成世代의 불신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⁵⁰⁾

나. 人間觀

북한 소설에서 북한 새 세대의 인간관은 주로 다음의 관점에

47) 「중앙일보」, 1994. 5. 11.

48) 이은숙, 앞의 책, pp. 258~261.

49) 김은옥, 「단발머리」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69.

50) 1994년도에 귀순한 조영호, 최명학, 백영길 등 3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1995. 5).

서 분석된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의 아름다움을 무엇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人間像은 어떠한 것인가 등을 살펴 본다.

북한의 영화문학으로 소개된 「내 고향의 처녀들」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라고 말한다.⁵¹⁾ 또 한 소설에서는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강렬히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며 청춘”⁵²⁾이라고 말한다.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며, 이 아름다운 존재는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강렬히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 소설에서 새 세대 여주인공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 신념 내지 원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하며 약자를 옹호하고 부추겨주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정의를 열렬히 사랑하며 부정을 경멸하고 타매하는 투쟁력이 강해야 한다. 높은 정신문화를 소유해야 한다. 남녀 간의 애정도 깨끗하고 무한히 아름다워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조건 복종이나 종속이 아니라 호상 존중과 평등이 지배해야 하며 두 사람의 지향과 이상이 다같이 활짝 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기본품성이며 표징이다.⁵³⁾

위 글에서 나타나는 바, 소설 속의 북한의 새 세대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요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보편적인 것

51) 리춘구, “내 고향의 처녀들,” 「조선영화」 (1991.10), p. 49.

52) 김용한, 앞의 책, p. 126.

53) 림종엽, “결혼준비,” 「청년문학」 (1993.12) p. 52.

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들의 충족이 곧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 다 할 수 있는 기본품성이라 하는 것은, 결국 북한 소설에서 말하는 북한 새 세대의 인간관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주장 내지 가치지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사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매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 다시 말하여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며, 당과 수령에게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인간의 가치가 평가된다...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은 가장 값높고 빛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다.⁵⁴⁾ 또한 「주체의 인간학」에서는 “새 시대의 주인공인 주체형의 인간, 인민대중 속에서 나온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성격, 고상한 풍모를 지닌 인간”인데, “주체형의 인간의 아름다운 성격에서 핵을 이루며 그의 고상한 풍모를 규정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혁명동지에 대한 참다운 사랑, 혁명적 동지애는 주체형의 인간의 아름다운 성격과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⁵⁵⁾

이상과 같은 공식적인 가치지향이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인간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上記했던 소설 외에

5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編,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9.

55)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53~164.

도 몇 가지의 예를 들면, 먼저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 한 새 세대는 인간의 능력과 양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난 요즘에야 사람의 힘이 무궁하다지만 매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란 그를 이끄는 사상의 높이를 얼마나 자기의 심장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았어. 오늘에야 비로소 난 어떤 경우에도 최대한 우리 당이 의도하는 대로 사색할 줄 알 뿐 아니라 행동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참된 량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던 말이네.⁵⁶⁾

위의 글에서 새 세대는 인간의 능력과 양심까지를 주체사상과 黨의 의지에 準據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양은 단순히 나서 자란 고향이나 사랑과 리상의 터전이기 전에 아버지 수령님께서 계시는 우리 조국의 수도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성스러워요. 제 생각엔 우리 평양에서는 가장 참되고 깨끗하고 숭고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들만 살아야 한다고 봐요. 여기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량심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지 말아야 해요.⁵⁷⁾

上記한 글에서도 새 세대는 인간의 참됨, 깨끗함, 숭고함, 양심 등을 이른바 아버지수령의 神性和 그에 대한 흠모, 충실성에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神性を 지닌 수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흠모와 충실성을 지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장 참되고 깨끗하고 숭고하며 양심적인 사람들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周知하듯이 북한에서 김일성수령의 존재는 상상을 초월한다. 死後에도 神的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북한 새 세대의

56) 남대현, 앞의 책, p. 168.

57) 손광영, “강변의 버드나무,” 「조선문학」 (1991.7), p. 54.

정향은 다음의 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한 젊은 여성근로자는 “조선인민의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은 김일성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⁵⁸⁾ 여러 차례 가봤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평양이며, 이는 단지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새 세대도 있다.⁵⁹⁾ 그런가 하면 한 새 세대는 그의 소원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충직한 전사로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투쟁하는 혁명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⁰⁾

이상과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정향으로만 미루어 본다면, 북한 새 세대의 인간관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주장 내지 가치지향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보겠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오늘 날 북한 새 세대의 자아개념에 있어 변화가 있음을 想定한다면, 북한 새 세대의 인간관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테면, 자아에 대해 새로이 인식한 북한 새 세대는, 주체사상을 통해 인간을 보기 보다는, 진정한 자아의 눈을 통해 인간을 보고, 인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 삶의 目標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삶의 궁극목적은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것이며, 우리들의 행위는 거의 모든 경우에

58) 연합통신, 「북 행복도 강요되는 땅」 (서울: 연합통신, 1991), p. 302.

59) 위의 책, p. 346.

60) 이찬삼, 「평양특파원」 (서울: 중앙일보사, 1990), p. 257.

있어서 저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⁶¹⁾ 북한의 새 세대도 예외일 수 없다. 그들도 역시 목표지향적이며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북한의 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에의 강한 의지는 다음의 소설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이란 목적있게 살아야 하며 그것이 없을 때 참된 보람과 생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⁶²⁾

사람은 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영웅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향해 이악하게 돌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³⁾

그러나 한편, 소설 속에 나타나는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 내지 지향은 主體的인 개성이 없으며, 나아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가치지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人間觀의 분석에서 처럼 소설 속에 반영된 黨문예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새 세대에게 있어 자아란 집단 속에 매몰된 자아이며,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강조되는 북한 새 세대의 지향과 이상, 포부, 생활의 목표, 참된 삶 등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는 것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리상으로 삼는다.⁶⁴⁾

61) 김태길, 「소설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p. 223.

62) 김용환, 앞의 책, p. 252.

63) 류정옥, “매력,” 「조선문학」 (1991.9), p. 37.

64) 고혜숙, “청년들의 리상과 수양,” 「천리마」 (1994.6), p. 80.

...청년들의 지향과 리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 하나의 지향으로 불타야 하며...⁶⁵⁾

한 생을 후회없이 빛나게 살자면 귀중한 청년시절에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여야 한다.⁶⁶⁾

우리 청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때 그것은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요약하건대,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 내지 지향은 오로지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에 헌신, 희생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는 데에 있을 뿐이며, 이러한 삶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새 세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을 삶의 요구로, 가장 숭고한 리상으로 삼고, 그 길에 자기 한 몸 깡그리 바쳐 청춘을 빛내일 뜨거운 지향만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⁶⁸⁾는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공식적인 가치지향이 소설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 및 지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개인지향적이기 보다는 사회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

65) 오춘식,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과 리상에 대한 형상문제,” 「조선문학」 (1991.11), p. 30.

66) 김항미, “한 생과 청년시절,” 「천리마」 (1995.3), p. 79.

67) 우정숙,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삶,” 「천리마」 (1995.2) p. 79.

68) 김항미, 앞의 글, p. 78.

음의 몇 가지 예에서 잘 나타난다.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차례지지 않는 청춘시절, 그 귀중한 시절에 그만큼 흔적도 없어야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사람이란 사회에 보탬을 주자고 태어났으며 그렇게 사는 것은 떳떳한 삶인 것이다. 그 권리로 하여 자유롭게 행복하며 그것으로 하여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향유할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⁶⁹⁾

청년분조원이 힘들다고 물려서면 되나요? 어렵더라도 집단이 내세운 목표를 실현해서 가래말을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죠 뭐. 전 개인의 몫이 아니예요.⁷⁰⁾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나라에 리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이상 보람이 무엇이겠나요.⁷¹⁾

그는 도시의 변화가에 자리잡은 양북점에서 재단사로 일하였다. 처녀는 자기 직업을 그지없이 사랑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어떤 불만을 느꼈다. 그것은 청춘의 지향과 현실의 불일치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온 나라에 <90년대 속도> 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한 때였다... 이 벅찬 시대에 자기도 사회와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 시작한 일이 가을이면 탄광지원을 가군하는 것이였다.⁷²⁾

일신의 안일이나 한 가정의 안락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의 번영을 위해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지향이 아닐까요.⁷³⁾

69) 남대현, 「청춘송가 상」, pp. 37~38.

70) 김용한, 앞의 책, p. 72.

71) 위의 책, p. 317.

72) 손광영, “갈매기,” 「조선문학」 (1994.8), p. 63.

73) 박용운, 「지향」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219.

이상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사회지향적이며, 이는 새 세대에게 있어 아무런 저항감도 불러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상한 미덕, 고결한 의무로 인식되어 있다.

우린 누구나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교육 받아오자 않았는가!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덕으로, 고결한 의무로 된다고 배우지 않았는가!⁷⁴⁾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삶의 목표가 사회지향적인 북한 새 세대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내지 보람된 삶, 참된 삶은 무엇인가? 이는 다음의 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지향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지향이.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지향은 한 마디로 당에 기쁨을 드리는데 있을거예요.⁷⁵⁾

누구나 한 번 밖에 없는 청춘시절에 더 큰 보람으로 당을 받들고 위훈으로 조국을 빛내여 나간다면 것처럼 보람찬 삶이 어데 있겠어요.⁷⁶⁾

옳은 리상이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온넛과 심장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세워지는 목표니까, 그런 목표를 위해 바친 삶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삶이고...⁷⁷⁾

74) 남대현, 앞의 책, p. 87.

75) 박용운, 앞의 책, p. 221.

76) 장옥순, “청춘시절,” 「청년문학」 (1992.8), p. 45.

77) 정영중, 앞의 글, p. 38.

上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 새 세대의 사회지향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당과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다.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당과 수령의 뜻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재능, 꿈과 포부를 미련없이 내던져 버린다.

앞으로 훌륭한 로동자기사가 되겠다던 성학동무가 위대한 수령님 유훈을 받들고 조국보위 초소에서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내일 결심을 하였다는 소식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의 청춘을 누구를 위해 바쳐야 하는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다고 할는지...⁷⁸⁾

명숙은 원래 공예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자기 공예기술의 최첨단을 걸어보리라는 푸른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온실 남새농사를 잘 지어 근로자들에게 사시절 신선한 남새까지 먹이시려고 사랑의 교시를 주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끝없는 은덕에 목이 메여 명숙은 자기의 꿈과 희망을 뒤로 미루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어 드리려고 온실분장으로 탄원해 온 것이다.⁷⁹⁾

이상과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당과 수령을 위한 희생, 헌신이며, 따라서 그렇지 못하고 개인적인 理想實現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이 가해진다. 한 단편소설에서, 전문학교 시절에 전자공학 전문가를 꿈꾸었던 한 청년이, 단지 “시대의 비등된 열의, 젊은 혈기의 일시적인 충동”으로 탄광에 진출하여 6년을 일한 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시대앞에 지닌 의무에 충실했음을 자부하면서” 자신의 이상

78) 립병순, “막내아들,” 「조선문학」 (1995.3), p. 41.

79) 김은석, “푸른꿈,” 「청년문학」 (1991.10), pp. 40~41.

실현을 위해 탄광을 떠나는 것에 대해 그의 애인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개인적리상을 실현한다고 당의 요구를 외면한 동무가 아무리 새로운 초소에 충실한들 그 생활이 참될 수 있을가요. 동무와 사귀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저조차도 죄의식을 느끼게 되니 설사 남들 앞에 떳떳하다 해도 자기 량심 앞에는 부끄러울거예요.⁸⁰⁾

上記한 바와 같이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상과 희망, 포부를 실현해 나가는 主體的인 존재라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당과 수령의 뜻만을 따라가는 客體的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소설의 行間을 읽고,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 분석해 보면,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소설에 묘사된 새 세대의 삶의목표와 같지 않다. 먼저 소설 속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 새 세대의 삶의목표 내지 지향, 그리고 삶의 방식 내지 類型은 개인지향적이고, 이른바 이기적이며, 명예와 편안함을 추구하고 도시생활을 동경하며, 탄광, 산촌, 농촌생활을 기피한다. 그 몇 사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난 자진해서 탄광으로 진출했던 사람이야. 시대앞에 지닌 의무에 충실했던 만큼 개인적인 리상을 이를 권리도 가질 수 있단 말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거요. 나는 자신의 리상을 탄갱 속에 묻어버릴 수 없었던 말이요.⁸¹⁾

편지를 읽어내려 갈 수록 순미의 얼굴은 흠빛을 띠었다. 은연중 밝고 화려한 무대가 떠올랐고 박수갈채에 귀가 멍멍해진다. 혜정의

80) 손광영, “강변의 버드나무,” p. 58.

81) 위의 글, p. 56.

편지에는 만사람의 찬사 속에 사는 자부가 짙은 향수내처럼 푹푹 풍긴다. 행복한 무대생활, 순회공연... (그러니 내가 이곳에 와 있던 말든 생활은 앞으로만 전진하는구나...) 마치 자기가 지구를 떠나 어딘가 떠나면 행성에 와있는 듯한 외로움과 고독이 마음을 사로잡았다.⁸²⁾

개인 영웅주의자 -정녕 내 마음 속에 자기에 대한, 자기 체면과 명예에 대한 생각 밖에 뭐가 더 있었던 말인가!... 오직 자기의 서툰 어찌 '량심'을 증명해 보이려는 그 일념, 그것을 통해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해 보일 그 일념 밖에 뭐가 또 있었던 말인가!⁸³⁾

몇몇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새 세대의 삶의목표 내지 꿈과 理想은 다음과 같다. 94년도 4월 귀순한 여금주씨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들은 꿈을 위대하게 갖지 않으며, 요즘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장사에 나서 돈을 벌겠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군복무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북한 여성들의 꿈은 김일성종합대학이나 평양외대를 졸업, 외화별이기관에서 근무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며, 요즘 북한여성들 사이에선 시집 잘 가는 게 대학 15곳 다닌 것보다 낫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도 한다.⁸⁴⁾ 역시 지난 해에 귀순한 조영호씨 등은 북한 새 세대의 삶의목표 내지 지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物質的, 文化的 측면에서 희망이 있는 직업, 예를 들면, 외국으로 다닐 수 있는 직업이나 노동당 간부가 되어 인생을 부러움없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기

82) 리창록, "숲의 교향곡," 「조선문학」 (1991.8), p. 57.

83) 남대현, 「청춘송가 하」, p. 84.

84) 「서울신문」, 1995. 4.17.

를 원하며, 이를 위해 당, 행정간부들에게 뇌물도 주고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⁸⁵⁾

이상과 같이 자아개념의 분석에서처럼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소설분석의 결과와 귀순자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 소설 속에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사회지향적이며, 理想的인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 새 세대와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는 개인지향적이며, 현실적인 富와 명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문학에 대한 黨문예정책의 영향력과 북한소설의 계몽성, 그리고 귀순자의 諸證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날 북한 새 세대의 삶의 목표를 代辯하는 것은 소설 속에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 새 세대의 삶의 목표라 하겠으며, 이는 북한의 공식적 가치지향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職業觀

일반적으로 직업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生業으로서의 직업, 사회적 역할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天職으로서의 직업, 個性伸張을 목적으로 하는 自我實現으로서의 직업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 형태의 요건이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또한, 이상과 같은

85)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86) 정태운, 「인간과 직업윤리」 (서울: 문경출판사, 1990), pp. 337~341.

의미의 직업이 人間社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職業觀은 생업으로서의 직업적측면을 강조한 自己本位の 직업관(이기주의적 직업관), 사회적 역할 분담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社會本位の 직업관(전체주의적 직업관), 자아실현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일 본위의 직업관(자아실현적 직업관) 등 세 가지 유형의 직업관으로 구분되며, 대체적으로 인간은 上記한 세 직업관의 요소가 적절히 결합된 직업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⁸⁷⁾ 요컨대, 직업이란 자기 능력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뜻하며,⁸⁸⁾ 인간은 이러한 직업활동을 통해 생계유지는 물론,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와 더불어 個性伸張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직업의 의미는 以上の 내용과 다르다. 북한의 辭典的定義에 의하면, 직업이란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의 일정한 분야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의 종류”를 뜻한다.⁸⁹⁾ 여기에서 示唆的인 것은 북한에서의 직업은 개인적차원에서 그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차원에서 의미가 규정되며, 이로써 북한에서의 직업관은 사회적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직업을 보는 사회본위의 직업관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폐쇄된 사회는 사회본위의 직업관, 전체주의적 직업관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때,⁹⁰⁾ 극

87) 위의 책, pp. 341~345.

88) 민중서림 편집국 編,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8), p. 1781

89)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82.

90) 정태윤, 앞의 책, p. 345.

심한 폐쇄사회인 북한에서야말로 사회본위의 전체주의적 직업관이 지배적이리라 하는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라 하겠으며, 북한에서의 職場 및 就業現實은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김일성이 말하길, “우리 사회에서는 ... 전체인민이...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⁹¹⁾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周知의 사실이다. 이를 테면, 북한에서의 모든 직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당의 획일적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관리되고, 또 국유화, 집단화되어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데다, 어떤 부문에 취업하든 당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직장이란 단순히 노동현장으로만 인식되고 있다.⁹²⁾ 또한 북한에서의 취업의 개념은 개개인의 成就欲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주어진 대상, 즉 ‘당과 수령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희생과 봉사’를 감수할 수 있는 기회부여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⁹³⁾ 개개인의 직장배치는 주로 각 개인의 성분과 黨性에 의해 좌우되고, 취업대상자들 가운데 일부의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른바 ‘무리배치’를 통해 집단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사실 등이 북한에서의 직장 및 취업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직장 및 취업현실 속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는 다음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즉, 북한 새 세대

91)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문화어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682.

92) 「내외통신」 종합판(43) (1991.1.1~6.30), p. 519.

93) 「내외통신」 종합판(44), p. 334.

가 선망하는 직업과 꺼려하는 직업, 직업선택의 動機 등이 그것이다.

북한 새 세대의 직업관과 관련하여 북한 소설의 내용에서 特記할 만한 것의 하나는, 소설에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의 신분이 대부분 대학졸업자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도시에서 탄광, 농촌 등지로 自願해 나가는 새 세대의 대부분이 대학졸업자이며, 농촌, 산촌 등지에서 이른바 혁신자로서 일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자나 제대군인들의 대부분도 결국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학졸업자를 선망하고 대학진학을 꿈꾼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점잖은 대학생복이나 깨끗한 옷차림을 싫어할 청년이 어디 있겠는가?⁹⁴⁾

...그러니 이 언니의 말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대학엘 가거라. 대학을 나와야 기술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인간다운 자기의 품모를 갖출 수 있어.⁹⁵⁾

우리는 열렬히 토론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퇴근길에 나란히 섰다. 처녀는 들가방을 들었는데 책을 어찌나 삐곡이 넣었는지 자크도 채우지 못한 채로 벌어져 있었다. 《대학엔 왜 안갑니까?》 나는 처녀가 그냥 실험공으로 있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녀요. 지금 공장대학 졸업반이에요.》 《아 그렇소?!》⁹⁶⁾

혜정은 명랑한 대학생들에 대한 부러움을 금치못하고 그들에게로 머리를 돌렸다.⁹⁷⁾

94) 김용한, 앞의 책, p. 126.

95) 김은옥, 앞의 책, p. 4.

96)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 (1991.11), p. 43.

97) 김은옥, 앞의 책, p. 129.

이상과 같이 북한의 새 세대가 대학졸업자를 선망하고 대학진학을 동경하는 이유에 대해 한 귀순자는, “북한에서 대학생이라면 최고의 지성인이며 문화인으로서 일반인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 가는 길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⁹⁸⁾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가 선망하는 직업은 정규 대학과정을 마쳐야 하는 의사, 과학자, 기사, 연구사, 교수 등이며, 특히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새 세대의 부모들도 거의 대부분이 교수, 연구사, 화가, 지질기사, 의학박사 등,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전문학교 시절 탄부가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그의 희망은 커다란 눈창으로 해살이 머그러지게 들어오는 깨끗하고 정갈한 설계실에서 복잡한 프로그램도 척척 작성해 내는 전자공학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⁹⁹⁾

《...나이는 스물셋, 보시다시피 제대군인이고...희망은 의사로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였음!》... 의학박사인 아버지처럼 장차 의사가 될 꿈을 품고 있는 현미였다.¹⁰⁰⁾

그에게서 지식이 해박한 연구사는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이 높이 보이는 선생이었던 것이다.¹⁰¹⁾

《참, 아버지 뭘 하시여?》 그가 물어서야 송미는 무아경에서 깨어났다. 《식물원에 있어요.》 《관리원이나?》 《연구사예요.》 《약하

98) 전철우, 「평양 놀세 서울 오렌지」 (서울: 자유시대사, 1994), pp. 102~111.

99) 손광영, 앞의 글, p. 55.

100) 정영중, 앞의 글, p. 30.

101) 김용한, 앞의 책, p. 14.

지 않군. 내가 동무라면 그런텔 들어가겠어. 처녀들에겐 딱 소리나는 직업인데》 102)

이 곳 갈연구소의 연구사 조진숙이었다. 그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에 떨어진 아들을 마중하려고... 103)

이상의 예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새 세대에 있어서도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이 職業的 選好度가 높으며, 육체노동자들은 일종의 열등감마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몇 편의 소설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호려졌던 나의 기분은 처녀를 만나서야 햇빛 받은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물리학연구소의 조수인 처녀는 자기들의 연구사업을 현장로동자들이 팔을 걷고 나서 도와주고 있는데 대하여 감동에 겨워 이야기 하였다. “우리 로동자들은 다 그렇소.” 나는 저도 모르게 긍지 높이 말하고 나서야 실수를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처녀에게 내가 일용품공장 수리공이라는 것을 숨겼던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처녀에게 내가 로동자라는 것을 정확히 그리고 떳떳이 밝혀두지 못했다. 처음에 처녀는 “전 물리학연구소 조수예요. 그런데 동문?” 하고 물었다. “예, 전...” 순간 나는 처녀에게 짝지지 말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불쑥 솟아오름을 의식했다. 그리하여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모르면서,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나는 순간의 자존심에 못 이겨 웃음까지 보태며 천연스레 말했다. “저 역시... 일용품공장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요.” 104)

그날 나와 춘삼아바이는 분공장으로 가다가 책방에 잠깐 들렀었다. 아바이는 소설책 한 권을 샀다. 나에게는 새로 출판한 로조사전이 번쩍 눈에 띄었다... 나는 얼른 돈을 꺼내 들었다. “저 이 사전을 좀 삼시다.” 도서판매원 녀인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책을 집어드는

102) 동성립, “좋은 땅,” 「조선문학」 (1993.6), p. 51.

103) 립병순, “갈숲의 저녁노을,” 「조선문학」 (1991.2), p. 53.

104) 정현철, “희열,” 「빼꼭새가 노래하는 곳」 (서울: 살림터, 1994), pp. 66~69.

데 “나도 하나 삼시다.”하고 내 뒤에서 또 짙짙은 목소리가 울렸다... “어쩌나 책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보매 녀인은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내 뒤에 선 사람도 물러설 차비가 아니었다... “손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보십니까?” 녀인은 내 뒤 사람에게 먼저 물었다. “전 공업대학 박사원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동무는?”... “예, 전...” 나는 얼른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직분을 밝히기가 부끄러워선지 아니면 사람을 대조하여 차별하려는 듯한 예감을 느껴선지... 스스로도 내 심리를 알 수 없었다. 아니다. 나는 다음 순간 반발심과도 같은 격렬한 감정의 충동에 떠밀리우고 있는 자신을 분명히 깨달았다. “전 일용품공장 로동잡니다.” 나는 그저 로동잡니다 하면 될 것도 일용품공장이라고 구태여 똑똑히 찍어 밝힘으로써 따지듯 묻는 녀인에게 그래서 어쩔셈이요? 하는 감정을 로콜적으로 내비쳤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긍지와 존엄의 웨침이 아니었다. 자존심의 반발과도 같은 저속한 감정의 투레질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 동무가 양보해야겠구만요.” 녀인은 상냥스레 웃었다. 나는 격분이 주먹처럼 솟아올랐다. 녀인의 웃음이 이렇게 혐오스러울 줄은 몰랐다.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는가. 책은 내가 먼저 사자고 했다. 그런데?... “사람을 업수이 보지 마시오!”¹⁰⁵⁾

나는 내가 하는 불도젤운전이 천하다거나 하치않다거나 값없다고 생각해 본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한 그 처녀처럼 유식한 대화를 한다거나 감정의 섬세한 구석을 끌어내어 이리저리하게 에둘러서 이야기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대신 나의 이야기는 투박하고 직선적인만큼 진실하고 소박한 것이 있었지요. 그 동무는 나의 이런 점을 유치하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그 녀자의 불만이 커지더군요. <동무는 이상해요, 우리 동창생들을 보라요. 모두들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어느 기업소의 지도원쫘미야 해야 하지 않아요. 군사복무를 하고서두...> ... 하기야 그 동무들은 내가 군사복무를 하는 동안에 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껏 제 하고싶은 대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겨우 로동자란 말입니다. 나도 잘못 생각하면 그 동무처럼 되고 말지요. 하지만 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과 많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¹⁰⁶⁾

105) 위의 글, pp. 70~71.

106) 정승일, “제대병사,” 「청년문학」 (1991.4), p. 42.

다음의 소설대목은 제철소 원료작업반에 갓들어온 후배 기능공에게 하는 선배 기능공의 푸념섞인 충고이다. 여기에서는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데 대한自嘲와 후회의 심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콘베아라는게 쉽지 않아 제 기대 보는 것만으로 성차는 줄 아 니?... 너는 몇 번을 해보구 얼굴을 찌프리는데 거의 10년을 일해 온 나를 생각해 봐라. 피대가 낡아 물량이 많이 떨어지면 하루종일 잔 등에 김이 서리게 일해야 해... 흠 말들이야 오죽 미관하니?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의 정열을 다 바치자, 하구 말이야.》 107)

《그 땐 일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 그래도 힘든줄 모르구 뛰여다 났어. 그러는 사이에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며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는 때가 많더구나. 그동안 나의 동창들은 대학을 졸업하구 기사가 되고 교원이 되고 또 소문난 재단사가 된 애도 있어 보란 듯이 나를 찾아 오더구나. 그런데 난 어떻게 되었겠니? 근 10년 동안의 로동생활에 나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뭔가 말이야. 기능? 자격? 배운 것이란 삼질 뿐이고 있다면 로동경험 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가슴아프게 후회되더구나. 그 때 뭘 좀 해보자구 해두 이미 늦었어... 나는 시집갈 준비나 하는 처녀들을 보면 제일 경멸하는 부류에 속했더랬어. 하지만 점점 나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 너무도 자기를 모르고 어리석게 남을 비웃은 것을 깨달았어. 너 지금 내 말을 리해하지 못할거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첫 걸음을 잘 내짚어야 해... 나처럼 후회 속에 살지 말고...》 108)

다음의 예는 위 대목의 충고를 들은 후배가 그의 친구에게 내뱉는 노동에 대한 불만이다.

107) 김은옥, 앞의 책, p. 58.

108) 위의 책, p. 61.

《난 아무래두 여기서 일할 것같지 못할 생각이 드는구나. 마음을 불이려구 의식적으로 노력해두 안되는구나... 난 정말 하루하루 일하는 게 지긋지긋할 정도야.》 109)

《내가 뭐 육체로동이 힘들어 그러는 줄 아니? 난 전망이 보이면 까짓거 정말 해보겠어. 난 뿔때문에 내가 이 원료작업반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처녀들앞에 먼지봉당을 쓰구 나타나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나 무엇보다 이게 창피해서 그래... 순옥언니랑 금숙언니랑 여기 로chner들을 봐라. 몇 년 동안 일하고 남은게 뭐니? 그들은 아직 시집도 못갔어. 로동에서 거칠어진 성격.》 110)

이상과 같이 북한의 새 세대는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의 직업을 選好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육체노동에 대한 직업적 차별의식이 북한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端的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다음의 대목은 이를 입증해 주는 한 예이다.

참 아바이두, 아 지금 어디 내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걸으로야 로동자? 아, 로동자가 좋지, 하면서도 그 뒤부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은근히 낮추 본단 말입니다.111)

또 하나의 예로 단편소설 「제대병사」에서는, 곧 연구사가 될 한 여자가 결혼을 약속한 노동자 애인을 부끄럽게 여기며 면박을 주는 태도를 통해 육체노동의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제대군인이며 불도젤 운전수인 남자가 불도젤을 몰고 시내의 중심도로를 지나는데 갑자기 불도젤이 고

109) 위의 책, p. 73.

110) 위의 책, p. 76.

111) 정현철, 앞의 글, p. 73.

장난다.

나는 기름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수리에 달라 붙었습니다... 농기계 작업소에 가서 자그마한 부속 하나를 가져와야 할텐데 불도젤을 네 거리 한복판에 남겨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그 동무가 횡단도로로 지나가겠지요. 나는 너무 반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한테로 달려 갔습니다. 그와 함께 대여섯명의 남녀들이 멈춰섰는데 그들은 나를 놀랍게 쳐다 보더군요. 나는... 멈춰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선 생각할 사이도 없이 늘 하는 말투로 농기계작업소에 갔다와 주어야겠다고 말했지요. 그는... 자기와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 분들은 우리 대학 교원들과 연구생들이에요. 난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왜 그렇게 눈치없이 처신하세요.> 그는... 리해는 커녕 기름투성이 불도젤 운전수 애인이 나타난 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하더라 말입니다. 나는 그 때 처음으로 그에 대한 격분을 체험했습니다. 돌아서고 말았지요.¹¹²⁾

한편, 북한 새 세대가 선망하는 직업에 대한 귀순자들의 증언은 이상의 내용과 다르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신분의 안정과 상승을 위해 절대적인 요건이지만, 대학교를 나와야만 되는 많은 직종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인기없는 직종이며,¹¹³⁾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는 외국어, 관광, 예술학과 등을 가장 선호하고, 의대, 사대, 과학기술 분야 학과는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⁴⁾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새 세대는, 대체적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부수입 없이 정해진 월급에만 의존하는, 어려운 직종이면서도 대우가 별로 좋지 않은 교수,

112) 정승일, 앞의 글, p. 43.

113) 정덕성, 「북녘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서울:남북문제연구소, 1993), p. 64.

114)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의 현실」 (서울:북한문제연구소, 1993), p. 132.

의사, 연구사 등 보다는, 외국을 드나들며 외화를 쓸 수 있는 외교관, 무역관이나, 또는 김정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 가수, 배우 등 예술인을 선호하며, 특히 새 세대에게는 부수입이 많은 상점점원, 운전사, 식당종업원 등 서비스업종과, 외화벌이 지도원, 식료품을 다루는 직업, 자재인수원 등이 인기가 높고,¹¹⁵⁾ 이외에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당간부, 보위부원 및 사회안전원, 사로청간부 등이 북한의 새 세대가 선망하는 직업이다. 또한, 귀순자 여금주씨에 의하면, 북한의 여학생들은 대학가길 꿈꾸기도 하지만 대개는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라며, 생산직은 싫어하고 비생산직, 이를 떼면 학교교원, 탁아소 보육원, 유치원교양원, 부기원, 상점판매원, 호텔과 식당의 접대원 등을 선호한다고 말한다.¹¹⁶⁾ 이는 곧 북한의 여학생들 역시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을 원하며, 돈벌이가 가능한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 새 세대의 직업관과 관련하여 북한 소설의 내용에서 特記할 만한 것의 또 하나는, 북한 소설에서는 북한의 새 세대가 싫어하는 직업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물론 스스로 택한 일이라고는 하지만)에 대해 好惡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연구사, 제대군인, 고등중학교 졸업자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탄광, 산촌, 농촌 등으로 자원, '탄원'해 나가며 당과 수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쁜마음으로 일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5) 강철환, "좋은 직업, 자재인수원의 위험한 생활," 「북한」 (1994.11), pp. 86~91.

116) 「중앙일보」, 1994. 5. 11.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그 인식을 말짱이 들어내면... 그게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지요.¹¹⁷⁾

직업!... 누구나 많이 또 수월히 외우곤하는 말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직업이다. 소중한 것이다...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사람들도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소중히 여긴다.¹¹⁸⁾

그러나 총국장인 아버지의 탄탄한 배경을 믿고 대학진학을 시도했다가 실력이 모자라 좌절되고 난 후, 제염소 노동현장에 배치된 한 세 세대의 자조섞인 푸념에서 북한 세 세대의 육체노동에 대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난 상급학교 시험두 쳐볼 수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더는 아버지 신세를 지지 않겠어요. 소금밭에 나가 소금농사나 지어먹겠단 말이에요.¹¹⁹⁾

또한, 아들의 대학진학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한 남편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다.

117) 동성림, 앞의 글, p. 58.

118) 허창근, “실습보고서,” 「조선문학」 (1993.1), p. 63.

119) 리규택, “인간의 수업,” 「쇠찌르레기」 (서울: 살림터, 1993), p. 217.

알고도 남았어요. 그렇다해도 설마 제 자식까지 그 소금밭에서 일을 시켜야만 하겠나요? 지금은 그 때와는 사정이 달라요. 할 수 없으니 그렇지. 그래 자식들을 키워서 보란 듯이 주간대학에 보내면 나쁜 게 뭔가요?¹²⁰⁾

또 하나의 예는 문학적 재능을 지닌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현장에서 내뱉는 푸념이다.

그 날 영수는 대학에 가 있는 동창생으로 부터 오래간만에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인즉은 현실 속에 용약 뛰여든 영수가 못내 부럽다는 것이었다. 《선반공 영수여! 그대 깎아놓은 쇠밥만도 무득히 봉우리를 이루었겠지... 난 그대가 부럽네.》 그러나 친구의 편지구절은 영수의 기분을 오히려 잡쳐버렸다. 《흥, 모르는 소리. 한번 진짜로 당해보면 이런 멋들어진 환상 같은 소리는 안할거야.》 영수는 생각할 수록 노동현장으로 자기를 《내동맹이 친》 응철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끓어올랐다.¹²¹⁾

前述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새 세대는 육체노동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특히 그들은 농촌, 탄광 등지에서의 일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²⁾ 김정일의 한 담화는 이를 말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지금 농촌청년들 가운데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농장원 수가 몇 만명 줄어 들었는데 그것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이리저리러한 구실로 도시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촌

120) 위의 글, p. 222.

121) 백금선, “짜,” 「조선문학」 (1993.9), p. 60.

122) 전철우, 앞의 책, p. 42.

처녀들은 농촌 총각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도 시총각에게 시집을 가서 농촌에서 빠져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¹²³⁾

한편,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가 특정직업에 대한 好惡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소설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북한의 새 세대가 농촌을 기피하고 도시를 동경한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도 새 세대의 농촌기피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새 세대의 離農 방지와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계몽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소설 가운데 농촌을 배경으로 새 세대의 건실한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은 것도 새 세대의 농촌정착을 위한 계몽의 일환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의 농촌에 대한 好惡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소설 속의 새 세대는 대부분 농촌을 예찬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생활을 해 나간다.

... 여기 농촌에는 아직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농촌현실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남을 것을 바라지 않는가!¹²⁴⁾

...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우리 농장원들의 임무는 그렇게 단순치 않거든요. 바람에 허리가 꺾이구 령해를 받구 하여 옹근 수확을 못내는 포전들이 있으면 병신자식을 보는 마음이란 말입니다.¹²⁵⁾

123) 이상경, “최근 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94. 북한 및 통일 연구논문집』, 제2권 (서울: 통일원, 1994), p. 136에서 재인용.

124) 윤승상, “물길공사장에서 쓴 일기,” 『조선문학』 (1991.9), p. 62.

125) 김금옥, “청년들,” 『청년문학』 (1991.5), p. 17.

농촌으로 탄원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꿈이구 지향이에요! 난 꼭 은천농장으로 나가겠어요!¹²⁶⁾

저는 소조기간 뿐 아니라 한 생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아직 도시를 닦지 못한 이 산골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락원으로 일떠세우렵니다. 그 때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¹²⁷⁾

이상과 같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북한의 새 세대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농촌일에 헌신하며, 그 동기와 목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관철시켜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 고향마을은 논 이랑 하나하나에도 밭 이랑 하나하나에도 어버이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지요... 세 차례나 우리마을을 다녀가신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 대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려고 애는 쓰지만 너무도 하는 일이 적지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두 배, 세 배 더 힘을 내어 일한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공산주의 리상촌이 우리 마을에도 일떠서리라고 말입니다.¹²⁸⁾

그러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새 세대 가운데는 농촌일을 힘들어 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청년들도 적지않다. 몇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6) 장유선, “도시처녀 시집와요,” 「조선영화」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2), p. 76.

127) 로종익, “목표,” 「조선문학」 (1991.8), p. 43.

128) 장유선, 앞의 글, p. 72.

제작년 우리가 집단진출할 때의 포부와 희망은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는 몇년어간에 무슨 굉장한 전변이라도 가져올 것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꿈이 많았다. 그렇지만 물론 그 꿈은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하나하나 이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피약별 아래서 논두렁 가래질을 해야했으며... 비가 내리는 여름날에 논에 들어가 논감을 매야 했으며 탈곡을 하면서 밤을 밝혀야 했다. 날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하느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변이나 위훈은 있을 것같지 않았다. 농촌에서 한 생을 보내온 부모들의 뒤를 이어 고향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한 우리들이었지만 때때로 밀려드는 권태와 동요를 어찌지 못했다.¹²⁹⁾

나는 눈을 감았다. 졸업할 때의 화려한 리상과 꿈은 어디로 갔는가. 생활이란 우리가 학교에서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사회주의 농촌진지를 지켜나갈 결심 품고 농촌에 나온 나 자신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던 계획을 실현시켜 보려고 몇 번 애쓰다가 집어 치웠다... 우리는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며 땅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이 과정에 길남이는 막일은 싫다면서 트랙터로 운전수가 되었다... 이렇게 몇 해가 흘러가는 사이에 나 자신도 이렇게 계속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며 오늘은 이 산속에 와서 락후분자가 되었다.¹³⁰⁾

위 소설에서 도시로 떠나간 길남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북한의 새 세대가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시사적으로 나타나 있다.

... 저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부모님들을 데려다 모시려는 것입니다. 남포는 큰 도시인 것만큼 여기서 나는 재능껏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물차 운전사나 뺨스운전사를 할 수도 있고 공장에 들어

129) 김삼복, 앞의 책, p. 30.

130) 위의 책, p. 53.

가 기계공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안목도 견식도 넓어지고 발전에도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이제는 늙으셨으니 제가 도시에 모셔다 편안히 지내시도록 하지는 것입니다.¹³¹⁾

위의 대목과 前記한 인용문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북한의 새 세대가 도시를 동경하고 離農을 꾀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바와 농촌현실의 괴리에서 느끼는 일종의 허탈감 내지 자괴감, 단조로운 농촌생활에서 오는 권태,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문화환경 속에서 느끼는 자기발전에 대한 불안감, 육체노동의 어려움, 전반적인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물질적인 부족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농촌을 떠났던 새 세대는 한결같이 농촌으로 돌아온다. 도시를 동경하고 농촌을 떠났던 새 세대는 농촌을 떠났다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과 도시생활에의 회의와 부적응으로 인해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은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농촌으로, 제 고향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처음에 그는 자기만이 도시에 와서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¹³²⁾

난 마음 속이 깨끗치 못했어요. 날 욕해줘요... 난 동요했었어요. 나는 무엇인가 화려하고 보람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이 나와 함께 내 곁에 나의 노력 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값있는 삶이 어떻게 이룩되는지 몰랐었어요... 내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상 어떻게 여기를 떠나요 네?¹³³⁾

131) 위의 책, p. 105.

132) 한운, 「씨앗」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42.

133) 김삼복, 앞의 책, p. 125.

내가 어리석었어요. 나는 남포에서 외롭게 보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작 떠나고 보니 그리워 못견디겠어요.¹³⁴⁾

上記한 바처럼 소설 속의 새 세대는 離農 후 오래지 않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북한의 새 세대가 농촌을 기피하고 도시를 동경하여 갖가지 구실하에 離農과 함께 도시정착을 꾀하고 있음은 귀순자의 증언으로도 뒷받침 되는 사실이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새 세대가 싫어하는 직업은 탄광, 건설장 등지에서의 노동과 농장원(농민)이다.¹³⁵⁾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는 자기의 원대한 이상이나 포부, 명예 같은 것 보다도 돈과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또한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을, 농촌 보다는 도시생활을 선호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분위의 직업관 보다는, 생계유지와 일신의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기주의적인 자기분위의 직업관이 지배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소설 속의 새 세대가 지닌 직업관과 크게 다른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북한 새 세대의 직업관 분석에 있어 또 하나의 관점은 그들의 직업선택 동기이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자기능력과 취향, 적성 등을 고려한 適職의 선택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는 대학진학 부터가 본인의 실력이나 희망, 적성 등과는 無關하게 부모의 권력, 성분, 黨的배경 등에 의해 결정되며, 직장진출 역시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 능력 등과는 無關하게 당에 의한 일

134) 위의 책, p. 139.

135)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와 그 외의 귀순자들의 글 참조.

방적인 배치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새 세대의 직업선택의 동기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직업선택에 있어 북한의 새 세대는 자신의 뜻 보다는 부모의 뜻, 부모의 직업을 보다 더 존중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새 세대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는 당과 수령의 뜻 구현,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이다.

학교에서 성적이 제일 높고 대학을 지망했던 초급단체위원장 혜정이가 갑자기 제철소로 자원해 나섰다... 동무들의 놀라움이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토록 학습에서도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고 동무들의 사랑을 받던 그가... 곧 제철소 지원자들이 꼬리물고 생겨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시고 용해공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워주는 제철소에서 자기들의 단발머리 시절을 위훈으로 빛내이자고 굳게 약속하였다.¹³⁶⁾

그러나 前述했듯이, 여러 편의 소설 속에서 새 세대는 특히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데에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별로 없는 것이 특이하게 보여진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에서 한 생을 보내온 부모들의 뒤를 이어 고향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한 우리들이었지만...¹³⁷⁾

김서정은 부모들의 권고에 못이겨 군의대학을 나오기는 하였지만

136) 김은옥, 앞의 책, pp. 38-39.

137) 김삼복, 앞의 책, p. 30.

원래 의학에는 취미도 없었거니와 그의 감상적이며 즉흥적인 성격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위로하듯 말하곤 했다. 《물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두 집안에 의사가 한 명 있어야 한단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적인 의사로 진출하게 되자 그도 차츰 고요와 정숙, 냉철한 리성을 요하는 의학적 환경에 적응되어 차분하고 내성적인 녀성으로 변모되어 갔다. 138)

의학박사인 아버지처럼 장차 의사가 될 꿈을 품고 있는 현미였다... 딸에게 붙이는 아버지의 기대를 잘 아는 그였다. 언젠가 집안의 외아들인 오빠가 체육계에 훌쩍 발을 들이밀었을 때 아버지는 서글픈 듯 허허 웃으시며 《이젠 내 뒤를 이을 건 현미 뿐이로구나.》 했었다.139)

《그러잖아도 너야 아버지가 의학박사겠다, 그 대도 이어야겠다, 여러모로 타고난 셈이지. 그런데 뭐 광산에 가서 모든걸 망치겠다구?》 140)

아버진 항해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와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곤 했어. 내가 바다를 정복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장쟁이의 아들인 아버지는 늘 반대했어. <애야, 나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었단다. 그것은 내 손으로 술한 합금철을 만들어 보는 거다. 나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다면 네가 로케트를 타도 일 없지만 너 하나 밖에 없으니 이 아버의 욕심을 채우고 싶다.> ...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시샘을 할 정도로 아버지를 따랐어. 그러구 대장쟁이 손자의 피가 뛰는지 야금에도 맘이 끌리더구나.141)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의 새 세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지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138) 김혜영, “아름다움을 자랑하라,” 「청년문학」 (1991.9), p. 34.

139) 정영중, 앞의 글, p. 30.

140) 위의 글, p. 34.

141) 김은옥, 앞의 책, pp. 168~169.

있어서는 부모의 뜻이 이기적, 개인주의적이거나 직업에 대한 貴賤意識이 있으며, 이에 반해 새 세대의 직업선택 동기 내지 목적은 당의 뜻과 요구에 일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송미의 학급동무들은 모두가 당이 요구하는 xx곳의 집단진출을 탄원해 나섰다... 학급전원이... 열차에 오르던 날 그는 학교로부터 좀 남으라는 뜻밖의 지시를 받았다... 역전의 개찰구 밖을 나서니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어머니가 눈에 띄이였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서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다. 외동딸의 장래를 어머니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¹⁴²⁾

《...재산이나 돈이 크게 필요치 않는 우리 제도에서 물려줄 게 뭐가 있느냐. 직업이나 똑똑한 걸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원섭의 목소리는 진정에 겨웠다. 《큰 아버지... 허지만 저저마다 좋고 편안한 일자리만 찾아간다면 생산은 누가 하고 공장의 주인은 누가 되겠어요.》 《그건 네가 생활을 모르는 소리다. 사람이란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자기 직업만큼 사고하고 행동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그 사람의 인격이야.》 《모르겠어요. 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존엄과 인격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듣기 싫다. 그렇게 잘 알아서... 노동자인 네 인격이 그렇게도 높아 약속된 처녀에게 사랑도 못 받느냐? 덜돼먹은 녀석, 정 투정질을 하고 싶으면 후회하지 말고 네 좋을대로 해라...》¹⁴³⁾

마. 幸福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 혹은 인생에 대한 목표가 달라질 수

142) 동성림, 앞의 글, p. 57.

143) 윤대중, “주인들,” 「조선문학」 (1991.12), p. 47.

있을 것이다.¹⁴⁴⁾ 이는 한 인간의 행복관과 삶의목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相通함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소설에 나타나는 새 세대의 행복관과 삶의목표도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일치한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의 행복관도 삶의목표와 마찬가지로 당의 공식적인 가치지향과 다르지 않다. 새 세대의 행복에 대한 당의 공식적 가치지향을 김정일과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리상과 행복은 해바라기가 그 어데 뿌리내려도 태양을 향하여 아지퍼고 열매맺듯이 그 어데서 무엇을 하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청춘을 빛내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¹⁴⁵⁾

우리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고 가장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¹⁴⁶⁾

북한의 공식적인 가치지향에 따르면,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 행복이란 사회주의제도 속에서 당과 수령의 의지대로 사는 것, 즉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교시를 관철하며 국가와 사회, 집단을 위해 헌신, 희생하며 사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144) 김형립, 앞의 글, p. 311.

145) 고혜숙, 앞의 글, p. 80.

146) 김동규,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9), p. 132에서 재인용.

자기 일신이 아닌 사회와 집단을 위해 언제나 진심으로 심장을 바쳐 헌신할 때 가장 값높은 기쁨이라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일생을 고스란히 충효로 불타는 당의 딸답게 일하고 또 일하면 누구나 자기의 한 생을 기쁨이 많은 시절로 충만시킬 것이었다... 그는 남을 위하여 늙지 않고 사회와 조국을 위하여 오래 산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이 곧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가?¹⁴⁷⁾

다음의 예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이른바 동서고금의 명인들의 말을 빌어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행복은 곧 투쟁이다. 참다운 행복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희생성과 헌신성에 있다.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 있다.¹⁴⁸⁾

다음의 예는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중시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구애를 거절하고 자기의 연구성과 마저도 그에게 넘겨줘 버린 한 새 세대 연구사에 대한 찬사이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가 피운 꽃이 아닐가!¹⁴⁹⁾

다음의 대목에서는 한 제대군인 여자가 조국에 대한 헌신에서 느끼는 행복을 말하고 있다.

147) 김수범, “기쁨많은 시절,” 「조선문학」 (1991.8), p. 26.

148) 김삼복, 앞의 책, pp. 6~7.

149) 구경서, “눈보라,” 「조선문학」 (1993.5), p. 58.

그는 자기 직무를 사랑하였던가, 그랬었다... 조국을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바치는》 공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그리도 애착을 느꼈고 환희롭던 복무였었다.¹⁵⁰⁾

한편, 다음의 대목에서는 한 새 세대 여의사가 눈 먼 영예군인(군복무 중 戰傷이나 公傷을 입어 명예제대한 사람을 일컬음)의 반려자가 되어 주는 것이 여성의 의무이며,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

그 불같은 육체에 눈을 주지 못하고 화려하고 눈부신 가정생활인들 행복할 줄 아느냐? 아름다운 피아노소리인들 네 량심의 규탄을 막아낼상 싶으나? 진정한 행복이 어느 것인가를 똑바로 가려보아라!... 그는 드디어 자기의 할 바를 찾았다. <난 그에게 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의 눈을 대신할 수는 있지 않는가? 눈 먼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줄 녀성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으랴만 이 의무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¹⁵¹⁾

또 다른 한 예에서는 기능공으로 일하는 새 세대가 노동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말하고 있다.

해정은 모든 피곤이 말끔히 가셔지고 온 몸에 새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로동이란 얼마나 신성하고 보람차고 즐거운 것인가, 일생을 이 행복 속에 묻혀 살고 싶었다. 아 나의 로동생활!¹⁵²⁾

이상과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의 새 세대는 행복의 원천이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150) 정영중, 앞의 글, p. 37.

151) 김혜영, 앞의 글, p. 40.

152) 김은옥, 앞의 책, p. 182.

영예군인과 노동에 대한 사랑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소설 속의 새 세대는昨今の 북한 새 세대가 기피하는 농촌생활, 육체노동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행복관에 대한 귀순자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 새 세대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인 풍부함과 선망하던 직업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원하던 직장에서 일할 때, 배불리 먹고 새 고급양복을 입었을 때, 異性と 데이트를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¹⁵³⁾ 또한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선망하던 직업을 갖지 못하고 탄광, 광산, 농촌 등지로 집단배치 되는 것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소설 속의 새 세대는 사회적차원 내지 집단지향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는 결국 당과 수령의 뜻을 충실하게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증언자가 말하는 새 세대는 개인적차원 내지 자아지향의 행복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충족과 개성적인 삶, 인격적인 존중 등을 행복의 요건으로 삼는다고 하겠다. 한편, 몇 편의 소설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이성에 대한 사랑에서 행복을 노래하기도 한다.

...이런 열화와 같은 처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쟁취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서로가 의지되어 서로의 뜻을 꽃피워주는 사랑, 나는 단 하루를 살다 죽는대도 이런 사랑 속

153)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에 행복하고 싶다!¹⁵⁴⁾

《우리같은 단발머리 시절엔 첫 로동에 대한 희열로 행복하지만 나이가 좀 많은 처녀시절엔 청춘과 정열을 바쳐온 처녀시절의 로동의 열매와 사랑에 대한 공상으로 들뜨고 행복할거야...》¹⁵⁵⁾

북한의 새 세대가 생각하는 불행의 원인은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소설 속의 話者는 ‘수도건설돌격대’에 자원해 나갔다가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직장을 ‘대외사업처’로 옮기었지만 그 곳에서 적응을 못하고 悔悟에 차 친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런데 내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 어머니나 친척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야말로 <만족>하구 <행복>한 생활이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나의 이 <피로운 행복>에 대해서 털어놓으려구 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대외사업처에서 난 하나의 인형과두 같은 존재야. 막말루 말해서 자격두 없는 내가 남의 눈치만 살필래기 정신 이상이 생길 지경이다... 도대체 뭐가 복이란 말이나?... 내 생활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꼭 물 속에 반쯤 잠긴 썩은 나무토막의 생활이야... 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수동체인데 그래 과연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란 말이야?!¹⁵⁶⁾

다음의 예는 한 농촌 새 세대의 행복관이다.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면 치욕감도 동시에 잃게 되는 모양이다...
참되고 성실한 사람들은 남에게 얹혀서 누리는 생활은 결코 행복으

154) 정현철, “삶의 향기,” p. 47.

155) 김은옥, 앞의 책, p. 110.

156) 김철준, 앞의 글, p. 41.

로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자기 손으로 창조하는 생활만이 그것이 비록 겉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진짜 행복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¹⁵⁷⁾

上記한 두 편의 소설 대목에서 새 세대는 한 인간이 一身上의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족함을 추구하여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치욕감마저 잃게될 때, 그 사람은 外見上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불행한 것이며, 이는 그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새 세대의 인생관을 자아개념, 인간관, 삶의목표, 직업관, 행복관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前述했듯이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인생관은 개인지향이 아닌 사회지향적 인생관이며, 자아중심이 아닌 집단중심의 인생관이고, 궁극적으로는 당과 수령의 의지 관철로 집약된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체로서, 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갖는 진정한 자아관이 아닌 집단 속에 매몰된 자아만을 의식할 뿐인 소설 속의 새 세대는 인간의 존재의의와 가치, 삶의목표, 직업활동의 의의 내지 보람, 행복의 의미 등을 오로지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서만 추구하려 하며, 이는 결국 당과 수령의 뜻을 충실하게 관철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 당과 수령의 의지 관철은 그들의 최상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이 된다. 그러나 북한소설의 行間과 공식적인 보도자료, 북한 체험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인생관은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인생관과 다

157) 한윤, 앞의 책, p. 323.

르다. 그들의 인생관은 개인지향적이고 자아중심적이다. 소설 속의 한 새 세대가 이를 代辯해 주고 있다.

《아이 속상해라. 어머니 이게 바로 지금 추세라지 않아요... 어머니 지금은 남을 위해 바치고 희생하고 하는 걸 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 저만 못살았지...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저부터 잘 살고 보자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야.》¹⁵⁸⁾

위의 예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남을 위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시대적인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말해 주는 또 다른 예가 있다. 다음의 대목은 한 새 세대의 아버지가 노동을 꺼려하는 아들에게 들려 주는 말이다. 여기에서도 요즈음 북한 새 세대의 사고방식 내지 태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요즘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가 지난 날 간고분투하며 전후 복구 건설을 하던 때 있던 일을 얘기할라치면 '새로운 말은 없구 늘 듣던 그 얘기군요. 지금은 그 때하구 달라요.'라고 말하기 일쑤이다.¹⁵⁹⁾

또한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는 원대한 이상이나 포부, 희망, 계획적인 삶 보다는 물질위주의 삶을 추구하며 돈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요행을 바라기도 한다. 다음의 예에서도 북한 새 세대의 拜金의태도와 요행수에 대한 기대를 엿

158) 리춘구, 앞의 글, p. 54.

159) 리규택, 앞의 글, p. 235.

볼 수 있다.

로인은... 집을 나서려다가 고등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갑자기 저금통장을 찾으려 큰 변이 난 것 같이 떠드는 바람에 의아히 텔레비존 화면에 눈길을 던졌다. 텔레비존에서 추첨제 저금추첨을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결에 손녀애도 언제 할아버지를 따라 가겠다고 했더니싶게 뽀르르 방안으로 달려 들어가 저금통장을 찾아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만나보세요.>... <할아버지, 오빠는 정말 재수없어요. 나두 언니두 그리구 아버지 어머니 것두 모두 한 두 번씩 등수에 들어 돈이 붙어났는데 오빠 것만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해해해...> <그래- 허어, 거 정말 안됐구나...> 로인은 일부러스레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도 마음은 별스럽게 불안해졌다. 이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도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¹⁶⁰⁾

요약하건대,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는 집단 속에 매몰된 자아에 대해 懷疑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그들의 인생관 정립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家庭觀

가정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는 장소적개념 외에도 정서적 심리적 유대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써 문화적 정신적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나, 가족은 가족 간의 지위, 역할관계로만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서 가족과 가정을 정의해 보면, 가족은 ‘혼

160) 전세창, “초불,” 「조선문학」 (1993.3), p. 29.

인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관계로 맺어지며 서로 협력하여 사는(동거) 비교적 영속적인 사회집단'을 의미하며, 가정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부부,父子, 형제, 자매 등의 혈연적 유대관계로 맺어지는 물리적 정서적 생활공동체'라 정의할 수 있다.¹⁶¹⁾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단순히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는 '가족'이란 용어 보다 가족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물리적 정서적 공간과 규범문화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¹⁶²⁾

북한의 가족법에 명시된 바, 북한에서의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며(제3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제15조).¹⁶³⁾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정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하나의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집단으로 된다.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을 혁명화 하여 혁명적 가정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¹⁶⁴⁾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對社會的 의미 내지 의의를 갖는 북한에서의 가정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¹⁶⁵⁾

161)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94.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4), p. 15.

162) 위의 글, p. 16.

163) 북한연구소,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 (서울: 북한연구소, 1991), pp. 119. 124.

16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41.

165) 김일성이 교시한 바, 북한에서의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전적의미를 갖는다. 즉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선차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 된다는 것이다.¹⁶⁶⁾

이상과 같은 가정에 대한 諸規定은 사회발전을 위한 가정의 역할, 특히 온 사회의 혁명화, 주체사상화를 위한 가정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가족간의 신념, 애정의 교환을 통한 정서적 만족, 온정과 사랑에 기반을 둔 정서적유대, 연대의식, 가족구성원의 생리적, 사회적욕구 충족과 공동의 목표지향 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개념규정과¹⁶⁷⁾ 크게 다른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개념화된 북한의 가정에 대한 북한 새 세대의 의식은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분석된다.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가정은 결혼과 육친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인 가족들이 함께 사는 생활단위”¹⁶⁸⁾ 라는 定義에 입각한 것이다.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이다.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339.

166)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9.

167) 조용관, 앞의 글, p. 14 참조.

16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앞의 책, p. 41.

가. 結婚觀

북한 새 세대의 결혼관은 북한 새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의 의의 내지 의미, 배우자선택 결정권, 결혼방식, 결혼조건(배우자의 조건) 등을 통하여 살펴 본다.

북한의 가족법에 의하면,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지며(제8조),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 부터 할 수 있지만,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제9조)”라고 되어 있으며, 이 법규정은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에게서 잘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편소설 「단발머리」에서 한 새 세대는 직장에서 받은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린 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솔직히 언니에게 묻고싶어요. 언니는 자기의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냈어요? 조국과 당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대학생생활을 하였지요. 그리고 졸업하고선 연구과제 하나 성공 못하고 시집을 갔지요... 언니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탐구와 정열을 깡그리 쏟아 부었지만 키워준 그 품을 위해서는 처녀시절에 바친 것이 무엇인가요? 후날 나도 언니처럼 그런 처녀시절을 돌이켜 보게 된다면 나는 불행한 인간으로 자신을 저주하며 한탄할 것이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¹⁶⁹⁾

위 글에서 話者는 당의 배려 속에 대학까지 졸업한 그의 언니

169) 김은옥, 앞의 책, pp. 98~99.

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함이 없이 연구과제를 포기하고 시집가버린 데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그러한 언니를 불행한 인간으로까지 치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의 소설대목에서 한 새 세대는 청춘시절의 위훈과 사회에 대한 헌신이 사랑의 전제이며 결혼의 촉매라고 말하고 있다.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즉 총각시절과 그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그는 총각시절은 응당 그 이후 가정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행복의 온상이 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정생활은 부득불 총각시절과 연결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무엇보다 청춘시절에 어느 정도의 위훈을 세웠는가 하는데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랑도 이에 기초해야만 참다운 생활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런 확고한 기여가 없이는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때문에 시대가 바라는 문제에 대한 특출한 기여,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놀래운 숨은 영웅들과 같은 비상한 헌신, 오직 이것만이 사랑의 전제며 결혼의 촉매일 뿐 아니라 또 행복의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이었다.¹⁷⁰⁾

이상과 같이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에게서는 북한 가족법상의 결혼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전 청춘시절의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이 결혼 보다 우선적인 것이다.

한편,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 결혼의 의의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는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는 25세 처녀의 독백이다.

170) 남대현, 「청춘송가 상」, p. 193.

누구나 때가 되면 다 혼례를 치르는 법이고 나이가 되면 처녀시절도 끝나지 않는가, 비록 탄원자라고 하지만 허물 수 없는 관례를 뒤로 미루고 영원히 처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진옥이 처럼 철없이 아무 일에서나 몰덤병술덤병 할 것이 아니라 어른스럽게 맡겨주는 일이나 착실히 하고 주부다운 체모를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¹⁷¹⁾

위 소설에서는 도시에서 광산으로 탄원해 온 새 세대 처녀가 일 보다는 적령기의 결혼을 중시하는 태도와 수동적인 여성스러움을 엿보이고 있다.¹⁷²⁾

다음의 소설대목은 사랑하는 남녀의 대화장면이다. 여기에서도 새 세대 여자가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의 말을 언제나 숨가쁨 속에 듣고 있던 보옥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전 어쩐지 동무가 부럽군요. 목적이 뚜렷하고 열정적인 생활... 그런 것이 저한테 적었어요.> <그 지향이 중요하지요.> 철우는 고무하듯 말하였다. <지향이 나래를 펴면 날 의욕이 생기고 열정도 의지도 생깁니다. 걱정할 건 조금도 없지요.> <저한테 그런 나래가 없어요. 동무와 사귀어 며칠동안 자신에 대해서 절감한 것이 그것입니다. 혹시나... 남의 나래에 실려서 그의 충실한 방조자나 될 수 있을런지...> 보옥은 이런 말을 뱉어놓고 가슴이 후두룩해났다. 한숨과 함께 뱉어놓은 이 말속에 처녀의 기대와 희망이 깡그리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¹⁷³⁾

다음의 예도 위 소설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철우의 구혼을 받은 보옥이, 과학자의 아내가 되는 긍지와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

171) 장옥순, 앞의 글, p. 42.

172) 소설 속에서 그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나타내고 있다.

173) 양의선, “거대한 날개,” 「조선문학」 (1993.1), p. 38.

이 순간 보옥은 자기가 이 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얼마나 긴장해서 살아야 하는가, 잠시도 눈팔새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수양하며, 탐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이 세상엔 이런 사랑의 긴장한 탐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여자들도 있다. 그런 여자들은 그들 나름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해서 탐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해서 곱절이나 더 행복한 여성이 아니겠는가!... <절 믿어 주세요. 전 영원히 충실한 길동무, 과학자의 안해가 되겠어요. 혁명동지가 되겠어요.>¹⁷⁴⁾

上記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속의 새 세대 여자들은 결혼 문제에 있어 대체적으로 남자에 대해 수동적이며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역할을 중시함을 시사하고 있다.上記한 예에 등장한 새 세대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충실한 방조자, 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결혼의 의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의 새 세대 남자들은 上述한 여자들의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 능동적이며, 배우자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의 방조자가 되어주오. 나의 심장에 열도를 더해주는 나의 과학, 나의 미래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오.¹⁷⁵⁾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생각, 새 연료를 만들어 내는가 못 내는가 하는 것은 물론 현옥이의 앞날까지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한 처녀의 운명을 책임지게

174) 위의 글, p. 42.

175) 위의 글, p. 38.

되었다는 의무감에서...176)

上記한 바와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 남자들에게 있어 결혼이란 사랑이 전제된 방조자의 선택이며, 또한 사랑하는 한 여자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 가족법 제8조에는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결혼의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요즈음의 북한사회에서는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89년 귀순한 전철우씨는 “북한에서는 연애결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나 이런 결혼시에 요구되는 출신성분 때문에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중매로 이루어지는 중매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한다.177) 이에 대해서는 귀순자 김용씨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178)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는 대부분이 연애결혼이며, 배우자선택 決定權도 새 세대 자신들이 행사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장편소설 「새 땅」에서는 한 새 세대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를 못마땅해 하며 다른 여자를 소개하려는 어머니의 뜻을 별스럽지 않게 대하고 있다.

176) 남대현, 앞의 책, p. 17.

177) 전철우, 앞의 책, pp. 82~83.

178) 김용, 「머리를 빼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1993), p. 37.

아들 남세훈이 제대되어 온 날 밤 녀인은 지나간 그 일들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이번에 내가 고른 애는 수연이 열을 주겠다고 해도 안바꾸겠다.> 그러나 남세훈은 그저 귀등으로 스쳐버리며 어이없는 웃음을 웃어보일 뿐이었다. 수연이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차시간마다 정거장 출입으로 나날을 보냈다.
179)

영화문학 「내 고향의 처녀들」에서는 여주인공 시내가 두 눈을 잃은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며,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위해 집을 떠난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아버지 없이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이 세상 고생을 다 겪으신 어머니... 허나 오늘은 어머니를 노엽히며 그 슬하를 영원히 하직합니다.>180)

단편소설 「삶의 향기」에서 한 새 세대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 처녀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거절하고 있다.

<거 뭐... 이제까지 주소와 이름조차 몰랐던 처녀를 이제 만나서 문득 사랑한다는게... 전 소개받는 것이 싫습니다.>181)

다음의 소설 대목에서도 주인공 새 세대는 배우자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뜻이 중요함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의 태도가 어떻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였다. 수용은 현재 자기들의 관계가 달리는 될 수 없

179) 현희균, 앞의 책, p. 49.

180) 리춘구, 앞의 글, p. 69.

181) 정현철, 앞의 글, p. 39.

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¹⁸²⁾

단편소설 「갈매기」에서는 한 세 세대 처녀가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를 알면서도 자신이 마음에 둔 남자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며 마음 아파한다.

에오라지 딸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한량없는 사랑과 기대여서 더구나 뿌리치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각이 닥쳐오자 처녀는 어머니를 노엽혔다. 의심촌이 그리도 신신당부 하였건만 그 총각이 기다리는 해안공원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¹⁸³⁾

위 소설에서와 같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 부모의 뜻과 대립하여 겪게되는 새 세대의 갈등은 다음의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심중 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훑쳐 보았다. 여전히 순화를 탐탁스레 여기지 않는 표정이 속마음의 거울같은 얼굴에 대문자처럼 박혀져 있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키도 어렵지만 순화를 단념할 수도 없었다. 나는 대답을 피했다.¹⁸⁴⁾

그러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가 배우자 선택에 있어 무턱대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부모의 양해 내지 허락을 구한다.

182) 한윤, 앞의 책, p. 36.

183) 손광영, 「갈매기」, p. 69.

184) 안선옥, 「교백」, 「조선문학」 (1991.1), p. 32.

《아버지 제가 미처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걸 용서하세요... 전 자신에 대해 언제나 솔직했어요. 부모님들이 반대 없으시다 면 저는 그 동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어요...》 185)

上記한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더 중요시하며, 때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귀순자의 증언에서도 입증되는 바, 오늘날 사는 북한 새 세대는 배우자선택의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186)

87년에 귀순한 김만철씨도 요즘 북한의 젊은이들은 “결혼대상자를 고를 때 자기들 눈에만 맞으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라도 결혼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187)

북한 새 세대의 결혼관에 있어 끝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북한 새 세대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 즉 결혼조건이다. 먼저 소설 속의 새 세대 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단편소설 「고백」에서 한 새 세대 과학자는 자신이 배우자로 선택한 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화는... 그제 수수한, 어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형의 처녀였다. 그에게 남다른 것이 있다면 산촌의 향기처럼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과 과학에 대한 옳은 이해였다. 바로 이 점이 그를 《나의 순화》로 되게 하여 주었다.188)

185) 전세창, “은별,” 「조선문학」 (1993.12), p. 49.

186)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187) 국토통일원, 「김만철일가 북한실태 증언록」 (서울: 국토통일원, 1987), p.30.

188) 안선옥, 앞의 글, p. 29.

위 글에서 과학자인 남자는 배우자가 될 여자의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과 남자의 일에 대한 옳은 이해 등이 배우자 선택의 결정요소였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의 예는 단편소설 「더 깊은 곳으로」에 등장하는 새 세대 남녀의 대화이다.

《무엇때문에 절 사랑하는가요?》 《첫째, 아름답고, 둘째, 리상이 높고, 셋째는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요. 향화가 앞으로 나에게 새롭고 높은 것을 요구하면 좋겠소. 그러면 난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뛰고 노력하겠소.》¹⁸⁹⁾

위의 대화에서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 높은 이상, 뜨거운 마음 등을 배우자 선택의 결정요소로 꼽고 있으며, 배우자의 방조로 자신의 발전은 물론 배우자의 만족도 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上記의 예에서 나타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실려있다.

처녀에 대해, 특히 자기가 바라는 처녀에 대해서는 지극히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였다... 그것은 자기의 대상으로 될 처녀는 웅당 매력적인 용모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즉 안팎이 하나 같이 고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서는 총각이면 누구나가 흔히 품은 생각이여서 별다를 바 없지만 처녀의 마음, 다시 말해 처녀의 내적인 미에 대해서는 그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주견이 있었다. 그가 말하는 내적인 미란 일반적으로 얕전하다든가 성실하다든가 하는 마음씨 뿐만 아니라 자기사업에 대한 참다운 리해와 지향으로부터 출발되는 훌륭한 반력로서의 자질과 성품이었다. 자기의 포부를 진심으로 리해하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처녀, 바쳐도 열렬히 바칠 수 있는 처녀, 오직 이런 처녀만이 자기의 대상이 될

189) 송영택, “더 깊은 곳으로,” 「조선문학」 (1993.5), p. 42.

수 있었다... 때문에 그는 이 성스러운 포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자기의 지향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처녀는 상대가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에 비단 같은 마음씨를 지녔다 해도 유감스럽지만 자기에게는 인연이 먼 사람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⁹⁰⁾

上記한 세 가지 예에서 북한 소설 속의 새 세대 남자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뜨거운 마음, 암전하고 성실한 마음씨, 외적인 아름다움, 높은 이상, 남자의 일과 포부에 대한 이해와 지향, 헌신 등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남자의 일과 포부, 지향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헌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소설 속의 새 세대 남자들은 上述한 배우자 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조건들을 주장하고 있다.

단편소설 「벗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새 세대 연구사는 미모에 마음이 끌려 만나던 여자가 자신을 만난 후부터 차츰 ‘과학을 포기하고, 배우기를 단념하고, 일생을 남의 등에 업혀워서 살기로 작정한 것’을 보고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구 난 꼭 훌륭한 과학자, 연구사만이 내 사랑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세. 자네의 안해처럼 중학교를 나오고 농사를 짓던 너자라두 난 반대하지 않아. 다만 나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자기 일에 정통하구 자기의힘과 노력으루 사회와 혁명에 이바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바랄 뿐이네.¹⁹¹⁾

위 소설 대목과 관련지어 하나의 예를 더 들면, 단편소설 「삶

190) 남대현, 앞의 책, pp. 26~27.

191) 리광식, “벗에 대한 이야기,” 「빠꼭새가 노래하는 곳」 (서울: 살 터, 1994), p. 89.

의 향기」에 등장하는 한 세 세대 과학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여성들이 시집을 가는 것은 남편의 뒷받침 하나 때문도 아니며 자식을 잘키우는 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회의 세포를 풍부히 하고 튼튼히 다지며 사랑의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자는데 기본이 있는 것이다.¹⁹²⁾

上記한 두 가지 예에서 새 세대가 바라는 배우자는 결혼과 함께 자기 일을 버리고 남편에게 의지하거나 남편의 뒷바라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행복을 기대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튼튼히 다지고, 나아가 사회와혁명에 이바지 할 줄 아는 여자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새 세대 남자가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얼굴은 가름하고, 키는 날씬하고, 눈길은 온화하고, 이마는 부드럽고, 그저 이러루한테 말 한 마디 차림새 하나하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고상했습니다.¹⁹³⁾

좋기는... 미술가의 안해답게 지성수준이 높고 그러면서도 가정살림 돌볼 시간이 비교적 풍부한 직업을 가진 대학졸업생 처녀, 외모도 뛰어나게 잘 생기고... 후리후리한 키에 무용수처럼 날씬한 몸맵시, 목소리도 맑고 부드럽고...¹⁹⁴⁾

신정희로 말하면 일류급 의학대학을 졸업했구 인물 또한 절색

192) 정현철, 앞의 글, p. 47.

193) 권강일, "사랑이야기," 「조선문학」 (1994.4), p. 55.

194) 허창근, "실습보고서," 「조선문학」 (1993.1), p. 62.

이지. 전망도 대단하네... 거기다 가정은 또 어떤가, 뜨르르하지. 아버지는 연료연구소의 유명한 박사, 어머니는 시병원 안과과장, 고급지식인 가정의 외동딸, 귀동딸...¹⁹⁵⁾

上記한 예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 새 세대의 일부가 선호하는 최상의 배우자 조건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지적수준이 높고, 안팎의 일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대학졸업자에다 화려한 가정배경을 가진 처녀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북한 새 세대의 일부는 진정한 사랑만을 결혼 조건으로 꼽기도 한다.

이런 열화와 같은 처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쟁취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물론 여기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타산이 없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 삶의 본성적 요구인 사랑은 그 어떤 론리나 타산 보다 훨씬 강하다...¹⁹⁶⁾

이상과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 남자가 선호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남자의 포부, 일, 지향에 대한 이해와 헌신, 여자 자신의 일에 대한 성실하고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태도, 남자에 대한 의존 탈피, 전통적인 家事와 직업활동의 여유있는 병행을 통한 사회와 혁명에의 헌신, 매력적인 외모와 높은 지적수준, 화려한 가정배경, 진정한 사랑 등 대체적으로 理想的인 조건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귀순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오늘 날 북한 새 세대의

195) 권강일, 앞의 글, p. 55.

196) 정현철, 앞의 글, p. 47.

배우자 선택 결정요소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들이다.¹⁹⁷⁾ 이를 보면 그들은 배우자의 출신성분과 부모의 권력배경, 富의 정도 내지 집안경제력 등 가정환경을 보며, 마음씨, 전통적인 여성스러움, 미모 등을 중시하고 특히 외모를 기본으로 꼽는다고도 한다.¹⁹⁸⁾ 또한 최근의 경제난 악화로 인해 북한 새 세대 사이에는 黨員이 아니더라도 물품구입이 용이하고 생활여력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의 직업은 생필품 판매상점, 백화점, 호텔, 식당 등의 판매원이나 요리사 재단사 등이라고 한다.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 여자의 배우자선택 결정요소는 다양한 편이 아니다. 크게 나누어 남자의 지향세계와 영예군인에 대한 의무감 정도이다.

먼저 남자의 지향세계에 대해 감동한 나머지 그의 방조자가 될 것을 결심하는 한 새 세대 여자의 예를 들어 본다

... 그는 단순히 나를 사랑의 끈으로 결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지향세계는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 ... 여기 농촌에는 아직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홍일동무는 그 많은 일들을 제손으로 해제낄 결심이라지... 나에게서 방조를 바라는 그 사랑을 바라는... 그 어제선지 이것이 그의 개인적 요구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농촌 현실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남을 것을 바라지 않는가! 홍일동무, 남겠어요! 아는껏 방조를 주겠어요. 하지만 동무가 바라는 그 사랑의 요구에는 아직 대답을 줄 수 없군요!¹⁹⁹⁾

197)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북한문제연구소편, 「북한의 현실」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3), pp. 116~117.

198) 국토통일원, 앞의 책, p. 30.

199) 윤승상, 앞의 글, p. 62.

위 글에서 여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바꾸어 놓으려는 남자의 지향세계에 감동해서 뿐만 아니라, 방조자가 되어 주길 원하는 남자의 요구가 곧 농촌현실의 요구인 것 같아서 그의 반려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다. 이는 곧 여자의 배우자 조건이 남자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가정환경이 아니라, 당의 뜻에 일치하는 남자의 지향과 포부에 보다 더 비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소설 속의 새 세대가 배우자 선택의 결정요소로서 영예군인에 대한 의무감을 끄는 것도, 영예군인 개인에 대한 감동 보다는 당의 은덕과 배려에 대한 보답, 그리고 당의 뜻을 좇는다는 데에 더한 비중을 두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단편소설 「아름다움을 자랑하라」에서 새 세대 여의사 서정은 눈이 먼 영예군인과의 만남을 운명의 계시로 느끼며,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의무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 어떤 운명의 계시가 가져다 주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닐까 하는 숙명적인 생각에 잠겨들었다.²⁰⁰⁾

눈 먼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줄 여성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으랴만 이 의무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²⁰¹⁾

《나에겐 철우동무가 불구로 보이지 않아요. 영예군인이예요! 동무가 불구의 몸이 아니라면 내 심장을 이렇게 붙들지 못했을 거예요.》²⁰²⁾

200) 김혜영, 앞의 글, p. 36.

201) 위의 글, p. 40.

202) 위의 글, p. 43.

영화문학 「내 고향의 처녀들」에서 여주인공 시내는 영예군인의 아내됨이 갖는 의미와, 영예군인의 좋은 반려자가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뭇보는 남편과 일생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당의 품속에서 고이 자란 우리시대 청년들의 자각임을 명심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들겠다는 것을 오늘 당조직 앞에 맹세합니다.》²⁰³⁾

그러나 한편 上記한 예와는 달리, 북한 새 세대 여자들이 불구의 몸인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선망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부모들도 영예군인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단편소설 「축복」에서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의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부부의 대화이다.

하루는 서상보가 기관차대의 일을 끝내고 퇴근해 오니 안해가 꾸넘하였다. 《여보, 빨리 골라 잡아야겠어요. 그렇지 않다간 벌의벌데서 다 오겠어요. 오늘은 글썽 불구자까지 소개해 오니...》 《그건 무슨 소리요?》 《글썽, 영예군인 공장에서 사람이 오지 않았겠어요. 내놓고 거절하기 뭇해서 좋은 말로 돌려보내긴 했지만...》²⁰⁴⁾

다음의 예는 사랑하던 남자가 두 눈을 잃고 영예군인이 된 한 여자와 그의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이다. 여기에서 북한 새 세대 여자는 사랑했던 남자인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포기한 자신을 비

203) 리춘구, 앞의 글, p. 77.

204) 백철수, “축복,” 「조선문학」 (1992.10), p. 46.

난하는 친구들에 대해 야속한 마음으로 항의한다.

《난 너희들이 뒤에서 비웃는 줄 다 알아. 량심이 없다느니 배신 자라느니.》 《동무들이 너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만 뒤.》 《?!...》 《그 시대의 요구 앞에 너희들의 태도는 어떻니?》 《우리들의 태도라니?》 《너 솔직히 말해봐.》 《...》 《너라면, 내가 아니라 너라면 넌 어떻게 했겠니! 서슴없이 그런 불구자한테 갔겠니?》²⁰⁵⁾

요약하건대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 여자가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영예군인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 보다도, ‘당과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것인데, 소설의 행간을 읽으면, 대체적으로 북한의 새 세대 여자들은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 여자의 배우자 조건도 새 세대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理想的 내지 非現實的이다. 소설 속의 새 세대 여자들은 남자의 지향, 그것도 당의 뜻에 일치하는 지향을 가진 남자를 최상의 조건을 가진 배우자로 보고 있으며, 또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을 다친”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의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새 세대의 배우자 조건에 대한 귀순자 증언과의 비교에서 잘 드러나며, 북한소설의 몇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소설의 한 대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5) 리춘구, 앞의 글, p. 59.

《어머니, 요즘 도시처녀들이 어떤 남자를 고르는지 알아요?》 《당원이겠지... 아니면 제대군인...》 《호 그건 다 옛날이에요. 지금은 외국을 다니면서 재산을 뽐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부모들이 가 있는 총각 하다못해 외화를 쓸 수 있는 연줄이라도 있으면 선도 보지 않고 간답니다.》²⁰⁶⁾

上記의 내용은 귀순자의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²⁰⁷⁾ 오늘 날 북한의 새 세대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는 黨의배경이 있는 사람, 黨의 권력자이거나 물품공급이 잘 되는 부서의 간부 자제, 해외여행 기회가 비교적 많은 외교부 및 무역부 직원, 잘 생긴 외모에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 도시거주자 등이다. 한편 여기에서 特記할 만한 것은 북한 새 세대 여자의 배우자선택 우선순위는 그 첫 번째로 직업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평양총각을 꼽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처녀가 평양총각과 결혼하면 평양거주가 가능하므로, 평양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평양총각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결과로 결혼 못한 지방총각, 농촌총각, 산간지대 공장의 노동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요컨대,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 여자의 결혼관은 소설 속의 새 세대 여자와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다. 그들은 黨의 뜻을 받들기 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안락위주로 배우자를 선택하며, 도시남

206) 위의 글, p. 54.

207) 북한문제연구소, 앞의 책, pp. 116~118; 김용, 앞의 책, pp. 126~128; 연합통신, 앞의 책, p. 98;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자를 선호하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부모의 뜻 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父母觀

북한 새 세대의 父母觀은 다음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최재석 교수는 父子關係, 즉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孝’를 이해하는 것이 그 첩경임을 전제하고, ‘孝’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효는 德의 근본이고 仁의 근본이기도 한 중대한 인간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⁰⁸⁾

북한에서도 효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미풍양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²⁰⁹⁾ 즉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인민이 발양한 미풍양속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긴 것”이라는 것이다.²¹⁰⁾ 또한 북한 가족법 제28조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208) 최재석,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 「아세아문제연구」, 제7권 제 2-4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p. 20.

209) 도홍렬,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실태,” 「통일정책」, 제4권 제4호 (서울: 평화통일 연구소, 1978), p. 135.

210) 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실 편, 「조선민족풍습」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209.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효도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 또는 그렇게 하는 자식의 도리”를 말한다.²¹¹⁾ 그렇다면 북한의 새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효를 실천하고 있는가?

최재석 교수에 따르면, 父母生前에 있어서의 孝道(부모를 섬기는 일)의 개념은 다음의 다섯가지 항목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모를 존경하는 일, 부모에 시중드는 일, 부모를 부양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²¹²⁾ 이 다섯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부모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중편소설 「세대」에 등장하는 한 새 세대가 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여기에서 그는 부모의 깊은 사랑과 기대에 대한 보답으로서, 또한 아들된 도리로서 부모를 모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짜리골의 부모님들을 내 힘껏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도 이제는 늙으셨으니 제가 도시에 모셔다 편안히 지내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를 스무살이 지나도록 따뜻한 품에 안아키워준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고 아들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²¹³⁾

211)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000.

212) 최재석, 앞의 글, pp. 22~26.

213) 김삼복, 앞의 책, pp. 104~105.

단편소설 「고백」에서도 한 세 세대의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효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어느 한 때 어머니는 이곳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미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는 세월은 어머니의 그 아름답던 모습을 회미하게 남겨놓은 채 흘러가 버렸다. 나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만나마 색이 하얗게 바래져 버린 머리칼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이름 못할련민의 정이 확 북받쳐 올랐다... <어머니가 그간 혼자 힘드셨겠어요.>...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를 곁에서 꼭 붙들구놓아주지 않겠어요. 어머니 내곁에서 떨어지지 못해요.>²¹⁴⁾

다음의 예에서 새 세대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그토록 지성을 기울이는 어머니를 난 늘 자랑하군 하였습니다.²¹⁵⁾

단편소설 「물길공사장에서 쓴 일기」에서 객지에 나와 사는 새 세대 채순은 한 남자의 구애를 받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순간,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며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진다.

...나는 그 어딘가로 자꾸만 마음이 이끌려 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소스라치듯 놀라며 자신을 다잡았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하마트면 사랑의 함정에 빠질뻔한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문

214) 안선옥, 앞의 글, p. 31.

215) 김준혁, “기다리는 고향,” 「조선문학」 (1994.4), p. 66.

득...눈내린 역두에 서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 떠오른다. 어머니에게 잘못을 빌고 싶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잠시나마 딴 생각을 한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일 없이 성실한 딸을 바치고 어머니품으로 돌아 가겠어요!²¹⁶⁾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에서 새 세대 청년 태진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긍지로 인해 매사에 어머니의 뜻을 따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전 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웅당 아들로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후회한 적도 없었구요.》 선선히 대답하는 태진의 얼굴에는 진심이 어려있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언제 한번 어머니 의사를 거역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함께 관리위원장 사업을 보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²¹⁷⁾

다음의 예에서는 한 새 세대 처녀가 아버지와 뜻이 안맞아 집을 나온 친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관계임을 강조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다.

《... 너 똑똑히 들어라. 피는 못속여! 아무리 너의 아버지가 그래 두 널 못 버리듯이 너도 아버지를 버려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를 잘 못 인식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얼마나 지지리 고생한 아버지나... 그런데 우리가 었나가야 울단말이니.》²¹⁸⁾

216) 윤승상, 앞의 글, p. 56.

217) 김용한, 앞의 책, p. 194.

218) 위의 책, p. 283.

장편소설 「씨앗」에서 미혼의 새 세대 청년 수웅은 어머니에게 손자 손녀를 품에 안는 행복을 드리지 못함을 자책하며 마음 아파한다.

순간 수웅은 어머니의 다심한 그 눈에서 예수에 가까운 슬픔의 빛을 발견하였다... 수웅이네 동갑 또래들은 거의다 장가를 들고 아들 딸을 보았다. 어머니의 나이가 올해를 넘기면 자그만치 선하고도 여섯이다. 그쯤되면 자기의 품에 손자나 손녀를 안고픈 본능적인 욕구가 가슴에 사무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수웅은 어머니에게 그러한 행복을 안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현듯 그 가책이 마음 속에 갈마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여적 그런 말 한 마디 비친 적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숙맥이라고 욕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우리집에도 그런 행복의 웃음꽃이 필 날이 올 거예요.)²¹⁹⁾

다음의 예에서는 부모 死後에까지도 효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북한이 새 세대에게도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저한테 그래도 누이가 어머니나 같은데 왜 누이 손에 의지하고 싶지 않겠나요? 하지남 난 고향으로 가야해요. 아버지의 냇이 깃 들고 유골이 묻힌 땅인데 달리할 수도 없잖아요.》²²⁰⁾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부모 공경과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며, 주로 효의 전통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부모의 노후봉양을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된 도리로 당연시하고 있으며, 연로한 부

219) 한운, 앞의 책, p. 95.

220) 김혜영, 앞의 글, p. 39.

모에 대해 연민과 감사의 정을 느끼고 있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긍지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관계를 중시하여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손자손녀를 안겨드리지 못함을 불효로 생각하며, 앞서 직업관과 결혼관에서 나타났듯이, 자신의 직업선택과 배우자선택에 있어 대체적으로 부모의 뜻 내지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기도 하며, 父母死後에까지도 효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 두드러진 예는, 부모의 뜻이 당의 의지 내지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에 새 세대는 부모의 뜻에 저항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에서 농촌의 개간사업에 헌신적인 한 새 세대 처녀는 자신을 도시로 내보내려는 아버지의 뜻에 맞서 다음과 같이 저항한다.

《넌 왜 이 아버지가 시키는대루 하면 안된다는거냐? 몸도 약한 주제에 너 같은건 배겨내지두 못해!》 《전 청년분조원이예요.》하고 옥분은 손끝의 흙을 그냥 부벼떨구며 제 주견을 세웠다. 《청년분조원이 힘들다고 물려서면 되나요? 어렵더라도 집단이 내세운 목표를 실현해서 가래말을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죠 뭐. 전 개인의 몸이 아니예요.》²²¹⁾

또한 上記한 소설에 등장하는 한 새 세대 청년은 부모의 말만

221) 김용한, 앞의 책, p. 72.

을 따르다가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다음과 같이 후회하며 부모의 말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를 깨우쳐 드리는 것도 자식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어머니의 권고대로 했었다. 그러다나니 자신도 모르게 가래 말 동무들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또 그들을 잊고 있다가 여기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로 연구소에 들어갈 길은 열렸지만 사랑을 잃었으며 동무들과 고향땅으로 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학창시절에 천체를 지향했다가 어머니의 권고로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이 그의 의도와 정반대인 것이었다... 회안시내에서 고향에 와 동무들을 만나고 난 지금은 빠져린 후회가 전신을 휩싸버렸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는데 관리위원장 사업을 하는 어머니라 하여 어찌 항상 옳을 수 있겠는가. 물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일깨워드리는 것이 또한 자식의 도리였다.²²²⁾

다음의 소설에서는 당이 요구하는대로 집단진출을 탄원해 나섰던 한 새 세대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새로운 직장을 주선했던 어머니의 처사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 한다.

뒤미처 기다리는 어머니가 주선했던 그 좋다는 새로운 직장이 그의 마음을 안착시키기에는 가슴 속 상처가 너무나 컸다. 모든 것은 그 때부터 하강선을 긋기 시작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왜 그 때 뿌리치고 집을 나서지 못했단가... 오랜 고민은 그를 피약별 아래의 잡초처럼 시들게 하였다.²²³⁾

222) 위의 책, p. 324.

223) 동성림, 앞의 글, p. 57.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는 자아중심적 사고와 자기주장이 강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오늘 날 북한 새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새 세대의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태도를 안타까워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분명한 것은 허전한 감정 뿐이었다. 결국 아들의 문제에 아무런 역할도 놀 수 없는 아버지로 된 것이 아닌가. 아들은 딸없는 집에서 저 하나만을 여자여자 키워선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을 도전적이라만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 예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공업대학을 지망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만 그 녀석은 개성이요, 자립성이요 하면서 제 주장대로 기계대학에 입학했지...물은 길을 켜는 방향으로 흐르고 호박넉죽은 울리는대로 모양이 잡혀진다. 이것을 오랜 교육자의 경험으로 굳게 믿어온 안천주였으나 아들의 경우는 특수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권한도 교육자의 경험도 아들 앞에서는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속절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들 하나 키우기가 수수한 말 실에 켜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이 과연 옳은 것 같다.²²⁴⁾

북한 새 세대의 부모관에 대한 귀순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부모관은 소설 속 새 세대의 부모관과 거의 일치한다.²²⁵⁾ 즉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는 결혼 후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며(여자의 경우는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함), 부모에 대한 감사의 정이 깊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제사, 성묘 등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의 좋지않은 출신성분에 대해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귀순자

224) 정현철, 앞의 글, pp. 39~41.

225)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가 증언하는 북한의 새 세대 역시, 부모 말씀에의 절대복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를 테면, 부모가 타당치 않은 것을 강요할 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옛날 풍습대로 살라고 할 때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夫婦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血緣的으로 맺어진 밀접한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관계란 결혼이라는 의식 및 제도에 의해 非血緣的으로 맺어진 밀접한 인간관계라고 하겠으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 혈연으로 인해 강한 당위성을 지닌 관계라고 한다면, 비혈연적인 부부관계란 一面 제도라는 틀 속에서 당위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부부 간에 상호적응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인위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이 비혈연적이며 인위적인 관계인 부부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분담 문제, 아내의 직업활동 내지 직장생활 문제, 그리고 이른바 女必從夫, 夫唱婦隨의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이 분석된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분담, 아내의 직업활동 내지 직장생활, 여필종부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을 살펴 보기 전에, 세대 구분 없이 북한에서의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설명한다면, 단적으로 말해서 이는 전통사회 속에서의 부부관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를 테면,

북한에서는 아내가 家事를 전담해야 하고, 아내의 직업활동 내지 직장생활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른바 여필중부의 의식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언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귀순자 임정희씨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분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여자에게도 똑같이 일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 부엌일은 고스란히 여자의 몫이다.²²⁶⁾

귀순자 김만철씨도 上記한 것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주부는 집안과 남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 그 여분으로 또 가사일을 돌봐야 하니 정말 고생이 심하다.²²⁷⁾

이상과 같이 남편중심적인 부부관계는 북한의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 예로 단편소설 「삶의 향기」에서 안천주교수는 나이든 세대의 남편중심적인 부부관을 대변해 주고 있다.

... 도대체 여자에게 무슨 큰 뜻이 있겠지구... 물론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열정, 그리고 시간이 문제다. 도무지 녀인들은 생활을 모르거던.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일이며 가정의 화목과 알뜰한 꾸림이 곧 녀성의 희

226) 월간조선 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147.

227) 북한연구소, 「김만철가족 11명 남북실상 비교증언집」 (서울: 북한연구소, 1987), p. 139.

망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닌가.²²⁸⁾

... 안해가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왜 약점으로 된단 말인가?²²⁹⁾

... 남편을 돕는 것을 안해로서의 본분으로,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안해는 본때있게 그림을 그려 보겠다면 꿈을 가슴 속에 아수히 묻어둔 채 그냥 출판물 보급원으로 일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안해들의 생활이 아닐까?²³⁰⁾

《허, 참...》 안천주는 놀랐다. 무슨 문제든 물어보면 나야 뭐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지요 하는 식으로 남편의 의사만을 좇군하던 물에 술타고 술에 몰탄것 같던 안해가 언제부터인가 제 주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²³¹⁾

또한 위 소설에서 안천주 교수의 아들인 새 세대 청년 영호는 남편중심적인 부부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남편의 직위와 명예, 그리고 성과 속에 자기의 인격도 뭉까지도 있는 듯이 생각하면서 사회 앞에 지닌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 여성들,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자기의 희망이며 신념까지 다 용해되고 맡겨버리고 마는 그런 여성들이 아직도 시대의 수치로 남아 있으니...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도 여자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고분고분 하는 여성을 《괜찮은 안해》라고 생각하면서 칭찬까지 하는 일부 사람들의 뿌리 깊은 관념이다. 그런 사람들의 결혼은 결합일 뿐이지, 사랑의 승화이고 열매는 아니다. 호상성이 없는 일방의 내조는 본질적으로 예측이며 불평등이다.²³²⁾

228) 정현철, 앞의 글, p. 42.

229) 위의 글, p. 42

230) 위의 글, p. 43.

231) 위의 글, p. 40.

232) 위의 글, p. 45.

上記한 소설 외에도 단편소설 「직장장의 하루」에는 방직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하는 한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에서 겪는 갈등과,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결혼한 여공들의 어려움이 잘 그려져 있다.²³³⁾

한편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에 대한 귀순자의 증언도 上述한 바와 유사하다.²³⁴⁾ 이를 보면, 부부관계는 평등해서는 안되고 남편이 아내 보다 월등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 대해 순종적, 헌신적이어야 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家事를 전담해야 하며, 아내의 직장생활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근거는 일부 소수의 증언이므로 그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서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북한소설의 분석 중에 적지않게 시사 받은 바가 북한 새 세대의 부부관이 대체적으로 남편중심적 이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 새 세대의 결혼관과 이성관, 남존여비관에서 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단편소설 「삶의 향기」에 등장하는 새 세대 청년 영호는 예외적으로 上述한 내용과는 다른 남녀 평등적인 부부관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예로 소설의 몇 대목을 살펴 본다. 다음의 예에서 새 세대 청년 영호는 그의 아버지가 소개한 ‘남편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줄 수 있을 것같은 처녀’를 만나고 난 후, 그 여자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부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헤어질 무렵 나는 집에서부터 생각한 문제를 지나가는 말처럼 한

233) 강복례, “직장장의 하루,” 「조선문학」(1992.8), pp. 19~27.

234)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마디 슬쩍 물어보았다. <<동문 앞으로 뭘 할 생각입니까?>> <<뭘 하 다니요?>> <<무슨 희망과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아이참, 녀자들이야 뭐 제가 하고싶은들...>> 하고 처녀는 녀성으로 태어난데 대한 그리고 피할 길 없는 그 운명에 순종할데 대한 무력함과 나약성을 그 무슨 억울함처럼 자존심도 없이 부끄럼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드러내 놓았다. 뜻이 없으면 많은 경우 신념화된 제 주장도 없으며 이런 녀성들은 대체로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른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사회의 한 세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²³⁵⁾

녀성들이 시집을 가는 것은 남편의 뒤받침 하나 때문도 아니며 자식을 잘 키우는 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회의 세포를 풍부히 하고 튼튼히 다지며 사랑의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데 기본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이 창조적 삶의 터전으로 되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부부는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야 할 리유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평등은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다.²³⁶⁾

위 글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소설 속의 나이든 세대와는 달리 부부관계를 상호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지닌 협조적인 동지적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견해 내지 태도를 여성관 또는 부부관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날 북한 새 세대는 나이든 세대에 비해 남성중심적 사고 내지 家父長的 의식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²³⁷⁾ 그러나 연구자가 입수, 분석한 북한 소설 가운데 上記한 「삶의 향기」에서의 영호와 같은 부부관을 克明하게 나타내는 새 세대

235) 정현철, 앞의 글, p. 42.

236) 위의 글, p. 47.

237) 이상경, 앞의 글, pp.123~125 참조.

는 거의 없으며, 또한 북한 소설의 계몽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삶의 향기」에서의 새 세대 청년 영호의 女性觀 내지 夫婦觀은 실제적인 북한 새 세대의 여성관 또는 부부관을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공식적 가치지향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새 세대의 가정관을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 3개의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았다. 소설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가정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를 테면,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의 새 세대는 결혼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 내지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삶의 목표, 이상, 지향의 일치 등에 비중을 두어 신중하게 결정하고, 부모의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배우자 선택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행사한다. 또한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孝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주로 전통적인 효행을 나타내고 있다. 부부관에 있어서도 소설 속의 한 새 세대는 부부관계의 평등을 강조하며 부부관계를 협조적인 동지적관계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는 결혼관에 있어 남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思考와 태도를 보이거나 여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고와 태도를 보이며, 이는 특히 결혼에 대한 의미 내지 의의 부여와 배우자의 조건에서 드러나고 있고, 부부관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의 평등 보다는 남편중심적인 부부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 하고는 있으나 부모의 뜻이 당의 의지, 당의 정책과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저항하며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이 부당하면 이를 깨우쳐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새 세대에 관한 諸證言을 종합해 보면,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은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가치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배우자의 조건에 있어서다. 소설 속의 새 세대는 이상적인 조건을 강조하지만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한다.

오늘 날 북한 새 세대의 가정관에는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태도, 전통적인 효행 등 전통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출신성분, 안락함, 편의, 경제력 등을 중시하는 배우자선택의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바뀐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3. 社會關係觀

인간존재는 사회와 더불어서만 생각할 수 있다. 사회를 떠난 인간이란 존재의의가 없으며, 이러한 뜻에서 인간은 社會內存在, 혹은 社會的動物이라 일컬어진다. 한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부터 자신의 뜻과는 無關하게 여러양상의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지며,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식·무의식적으로 여러가지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 테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의 자녀로서, 사회 내지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운명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게되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은 물론, 타인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관계는 인간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제약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관계에 대한 북한 새 세대의 관념은 다음의 3개 하위영역별로 분석된다. 첫째 男尊女卑觀, 長幼有序觀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윤리관, 둘째 交友觀, 셋째 異性觀 등이 그것이다.

가. 傳統的倫理觀

어느 사회이고 남녀의 사회적 지위는 동등하지가 않은데, 대체로 보아서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그것 보다 낮고, 또 여러 면에서 여자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보통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⁸⁾ 이를 보면, 남자는 사회적지위가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는 것이 남존여비의 관념인데, 이는 전통사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역시 전통적으로 한국민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온 이른바 女必從夫, 夫唱婦隨, 男兒選好 등의 관념도 남존여비관과 無關하지 않으며, 이러한 諸觀念으로 인해 남녀관계의 불평등 내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적지위, 남성우월주의 등이 초래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남존여비의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의 한 새 세대가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남존여비,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안타깝게 여기며 비판하는 소설의 한 대목이다.

238) 홍승직, 앞의 책, p. 127.

과연 지금 어느 누가 <... 안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를 진다.>는 나팔래옹 법전과 남편은 안해를 지배해야 한다는 3강5륜의 봉건 유교사상이 오래 전에 벌써 휴지조각이 되어 시대 밖으로 내버려졌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아직도... 아직까지도...²³⁹⁾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자기의 희망이며 신념까지 다 용해되고 말겨버리고 마는 그런 여성들이 아직도 시대의 수치로 남아있으니...²⁴⁰⁾

다음의 예에서 등장하는 새 세대 주부는上記한 예에서 말하는 이른바 시대의 수치로 남아있는 여자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로서는 가정을 이루며 꿈이 컸다. 가정이란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계가 아닌가. 처녀시절에 아무리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해도 어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은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²⁴¹⁾

다음의 소설 대목에서 한 새 세대 남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 내지 자존심을 내세워 남존여비관을 내비치고 있다.

이젠 별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나 일단 고집했던 것을 관철해야 할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 본래의 요구를 강조케 했다. 정 그렇게 요구되면 제가 부엌으로 내려가 마실 수도 있으련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굳이 안해가 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²⁴²⁾

239) 정현철, 앞의 글, p. 47.

240) 위의 글, p. 45.

241) 김용한, 앞의 책, p. 236.

242) 남대현, 「청춘송가 하」, p. 24.

다음의 세 가지 예에서 소설 속의 새 세대 남자들은 여성의 연약함을 동정하면서 은연중에 남성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동문 그가 자길 동정하고 있다고 분해 하지만 동무 자신은 그를 동정이라도 해보았나 말일세. 상대는 연약한 처녀지만 그래도 동무야 사내가 아닌가!²⁴³⁾

《...그 연약한 녀자들이 당의 뜻을 받들고 크게 한몫 하면서 이름을 떨치는게 얼마나 장한가. 그들의 명예에 우리 사나이들의 힘이 좀 바쳐졌다면 좋은 일이지 될 더 바라겠나.》²⁴⁴⁾

《선현 우리 변전소에 꽃인데 아끼구 잘 도와주지 못했거든.》²⁴⁵⁾

다음의 두 가지 예에서는 새 세대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무시의 감정 내지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우리 학급은 여자학급에 우승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연이 끝나자 나는 비발치듯한 동무들의 비난과 원성이 두려워 꿈무늬를 뺐다.²⁴⁶⁾

《수연인 언젠가 자신의 성미가 직선직각인데 대해 지나가는 말로 너인적이 있었지... 아무래도 좀 고쳐야 되겠어. 녀자는 녀자여야지》²⁴⁷⁾

上記한 예들과는 달리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는 새 세대 여자

243) 위의 책, p. 31.

244) 류정옥, 앞의 글, p. 52.

245) 리정수, 앞의 글, p. 45.

246) 리극, “뿌리는 토양 속에 있다,” 『조선문학』 (1991.3), p. 34.

247) 현희균, 앞의 책, p. 328.

자신이 자기비하적인 사고와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차체에서 헝하니 튀어나온 진옥은 나더러 용접기를 가지러 가자고 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처녀가 용접을 하다니?...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²⁴⁸⁾

제대군인 처녀도 여자겠지. 그래 여자에게 무슨 뽕족한 수가 있어 하루세에 저렇듯 복잡한 기계를 척척 뜯고 붙여낸단 말인가?...²⁴⁹⁾

《어쩌겠니, ... 여자란 할 수 없어.》²⁵⁰⁾

《동문 앞으로 뭘 할 생각입니까?》 《뭘 하다니요?》 《무슨 희망과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아이참, 여자들이야 뭐 제가 하고싶은들...》²⁵¹⁾

《여자로서 차마 어려운 말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사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나같은 건 버려도 좋아요. 전 워낙 동무의 짝이 될만한 여자가 못되여요. 뭇구 무식하구...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어요. 보잘 것 없는 여자의 말이라도 이걸 꼭 명심해주세요...》²⁵²⁾

다음의 예에서 새 세대 여자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란 어디까지나 여자와 달리 무게가 있고 침착해야 하지 않는가?²⁵³⁾

248) 장옥순, 앞의 글, p. 40.

249) 위의 글, p. 41.

250) 김은옥, 앞의 책, p. 98.

251) 정현철, 앞의 글, p. 42.

252) 안선옥, 앞의 글, p. 37.

253) 변광숙, “반할만한 청년,” 「청년문학」 (1992.12), p. 37.

이상과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의 새 세대는 남녀 모두가 남존여비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한 경우에는 부창부수, 여필종부의 관념 내지 태도로 남존여비관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새 세대가 남자들의 우월의식과 여자들의 자기비하적 사고 및 태도를 비판하는 대목은 극히 드물다.

남자들은 자기들만이 강하고 자기들만이 의세고 자기들만이 현명 한듯이 생각하는 타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왜 녀성들도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 보다 더 의젓하게 세상앞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²⁵⁴⁾

시집을 가도 자기는 고수해야 해. 이걸 우리 모든 녀성들의 존엄에 관한 문제야.²⁵⁵⁾

한편, 귀순자 전철우씨는 북한 새 세대의 남존여비관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속에서 불쌍한 것은 여대생들이었다. 한국대학과 같이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없는 북한대학에서는 교실청소를 여대생들이 일체 도맡아 해야 했다. 그리고 제대군인 학생들은 유교사상이 꼭 들어차 가지고 어린 여대생들에게 이것 가져오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기 종처럼 부려 먹었으며 말을 안 들으면 그녀들의 머리 카락을 잡고 구타를 하곤 하여...²⁵⁶⁾

또한 1989년 망명한 북한유학생들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다.

254) 전명진, "아름다운 삶," 「청년문학」 (1992.1), p. 32.

255) 한운, 앞의 책, p. 282.

256) 전철우, 앞의 책, pp. 117~118.

북조선은 남존여비사상이 철저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막패고 코피 터지는 것도 보통입니다.²⁵⁷⁾

북조선에서는 여자를 무조건 낮추어 보고 거칠게 다루는데...²⁵⁸⁾

같은 나이라 해도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에게는 ‘동무’ 제대군인에게는 ‘동지’라고 합니다.²⁵⁹⁾

上記한 증언 외에도, 前述한 결혼관 부부관의 분석에서 북한 세 세대의 남녀차별적, 남성중심적 사고와 태도가 증언된 바 있다. 소설 속에서나 현실적으로나 북한의 새 세대는 전통적인 남존여비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한 새 세대의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분석대상의 또 다른 영역은 유교의 五倫行爲 가운데 하나인 장유유서의 관념이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年長者에 대해 敬意를 표시하며 공손하게 대하는가, 아니면 예의를 무시하고 불손하게 대하는가 등을 살펴 봄으로써 북한 새 세대의 전통적 윤리관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의 연장자에 대한 사고 및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들은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행동하며, 연장자로부터 충고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때로는 노인들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며 친근감을 느끼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봄씨앗」에서의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는 노인 앞에

257) 좌담, “북한의 청소년생활,” 「민족지성」 (1989.5), p. 111.

258) 위의 글.

259) 위의 글, p. 112.

예의를 갖추는 새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리만섭은 그들의 이야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자기가 불쑥 나타나면 무안해 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래 제자리에 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눈치빠른 윤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과일 나무 뒤에 서있는 리만섭을 알아보았다. 리만섭은 할 수 없이 그들한테로 다가갔다. 윤희는 몸가짐을 바로 하며 자기가 앉았던 따스한 풀밭을 내어준다.²⁶⁰⁾

다음도 위 소설의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한 새 세대 처녀는 노인을 찾아가 술잔을 올리며, 자신에게 친딸처럼 가르침을 주실 것을 청하고 있다.

윤희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며 입을 연다.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제 때에 꾸짖어 주세요.>²⁶¹⁾

중편소설 「우리의 벗」에서 한 새 세대 기사는 初面の 노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충고를 듣고 감사해한다.

<아닙니다. 아바인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많이 체험한 늙은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힘이 생기지요.>²⁶²⁾

다음은 장편소설 「씨앗」에서의 한 대목이다.

260) 황청일, “봄씨앗,” 「조선문학」 (1994.11~12), p. 45.

261) 위의 글, p. 47.

262) 백보흠, 「우리의 벗」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 15.

늙은이들은 회연이가 나타나자 그를 가까이 끌어다 앉히고는 돌아가는 시국형편이며 여러가지 상식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을 낸다. 그들에게서는 아홉살 때에 세상을 뜬 자기 아버지의 체취와 똑같은 그런 진한 엽초냄새가 물씬 풍기었는데 그것으로 하여 그들 모두는 회연이의 마음 속에 더없이 친근한 사람들로 느껴졌다... 그가 어찌나 귀맛돌게 말을 잘 했던지 로인들은 모두 숨소리를 죽이고 들었다.²⁶³⁾

그러나 한편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연장자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공손하지만은 않다. 연장자의 사고와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直言을 서슴지 않는다.

다음은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여기에서 새 세대 청년들은 친구 아버지의 딸에 대한 거친 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옥분이 아버진 말씀하는 것을 좀 삼가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 딸이라도 청년분조원인데 이년저년 하면 됩니까?》 《그래요. 옥분아버진 아까 우리 분조장동무를 보구두 그렇게 말했어요.》 선옥이가 분개하자 의견있던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었다.²⁶⁴⁾

단편소설 「할아버지와 손자」에서도 한 새 세대는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한 할아버지의 처사를 못마땅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아버지, 할배는 정말 생각을 잘못 하셨어요. 내가 형보다 더 똑똑하다면 똑똑한 자식을 총련일군으로 키워야 하지요!》... 《내가 할배에게 직접 말씀 드리겠어요.》... 승호가 자기의 결심을

263) 한윤, 앞의 책, pp. 251~252.

264) 김용환, 앞의 책, p. 281.

피력하면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잘못 하셨다고 <공격>을 들이대자 할아버지는 꼼짝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²⁶⁵⁾

다음의 예는 22세의 새 세대 처녀가 나이지긋한 남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장면이다.

《그래요. 반장아저씨는 자신부터 생각하는 리기주의자예요.》 나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고 랭랭해졌다. 반장은 무척 놀라는 듯 한 발 다가서며 반문했다. 《아니, 내가말이요?》 《그래요. 반장이라는 직책을 진 자신이 옷사람들의 눈에 날가봐 옳은 것도 제기 못하지요. 그러니 반장아저씨같은 사람들이 관리위원장쯤 되면 어떻게 하겠나요?》²⁶⁶⁾

이상과 같이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장유유서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장유유서관에 대한 증언은 上述한 내용과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귀순자 김만철씨는 북한 새 세대의 예의범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옛날보다 예의범절이 점점 없어진다고 말하죠.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른들에게 깎듯이 인사했으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²⁶⁷⁾

또한 89년도에 망명한 북한유학생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예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²⁶⁸⁾

265) 김룡태, “할아버지와 손자,” 「조선문학」 (1992.9), pp. 56~58.

266) 리수명, “첫생활,” 「조선문학」 (1993.2), p. 76.

267) 국토통일원, 「김만철일가 북한실태 증언록」, p. 30.

268) 좌담, “북한의 청소년생활,” p. 111.

한편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귀순자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와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그들은 “꼭 그렇지는 않고 때에 따라서, 잘 아는 가까운 사이에만”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²⁶⁹⁾ 上記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 새 세대의 장유유서 정신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는 소설 속의 새 세대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다음의 예는 한 젊은이가 술집에서 아버지뻘 되는 나이든 사진사를 대하는 태도이다. 여기에서는 나이든 사진사가 “주위 사람들을 개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떠드는 한 젊은이를 타이르려 하나 이에 대해 젊은이는 불손하게 맞선다.

《젊은 동무, 조용조용 말하오. 어디 동무네들 뿐이요.》 건너편 식탁에 앉은 얼굴에 병색이 도는 중늙은이가 우렁우렁한 성대로 주의를 준다... 《내 입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참견하지 마시오.》 사진사는 맥주꼬뿌를 들던 손을 멈추고 까딱 앉고 있더니 꼬뿌를 천천히 내려 놓았다. 당황, 미웃음, 분노, 아량의 복잡한 감정이 주름살처럼 그의 얼굴에 뒤엉켰다... 《어린 사람이 말버릇이 곱지 못하군. 그러문 어테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네.》 《미안하지만 난 사랑을 받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어린 사람이 아니라 공민권을 가진 어른이니까요.》 사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우는 태연히 담배를 빨았다.²⁷⁰⁾

다음 소설의 대목에서도 한 새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충고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9)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270) 이상경, 앞의 글, pp.118~119에서 재인용.

《...아직도 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외삼촌의 사랑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예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지요. 제가 몹쓸놈입지요. 예...》 몹시 불만스러웠다. 나는 아버지의 말허리를 자르며 도전적으로 내뱉었다. 271)

남존여비관, 장유유서관 등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전통적 윤리관은 上述한 바와 같다. 소설 속의 새 세대나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나 모두가 남존여비, 장유유서관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관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녀간에 별다른 차이도 없다.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서도 우리 민족전래의 의식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上記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새 세대의 장유유서관에서는 우리 민족전래의 장유유서관 정신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고와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와 태도가 때로는 연장자에 대한 불손한 행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나. 交友觀

한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교하고 있으며, 또 그 친교하고 있는 사람의 어느 점을 좋아하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이다.²⁷²⁾ 이 방법을 좀 더 확대하여 북한 새 세대의 교우관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된다. 즉 북한

271) 백보흠, 앞의 책, p. 36.

272) 홍승직, 앞의 책, p. 137.

의 새 세대는 친구 내지 우정에 대해 어떤 의의를 두고 있는가, 친구와의 관계, 친구 사이의 정에 있어 무엇을 소중히 하는가, 어떠한 친구를 좋아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먼저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가 말하는 친구의 의미 내지 의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인간생활에서 불행도 각이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무가 없는 고독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요?(273)

이 세상에 진정한 동무가 없다면 생활의 즐거움이나 보람도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일도 이룩하지 못할 것이었다.(274)

난 동무들을 잃고는 못 살겠어... 재물 없이는 살아도 동무를 잃고는 못 견디겠어.(275)

위의 세 가지 예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친구의 존재를 자신의 행복과 생활의 즐거움, 보람 등의 조건으로 간주하여 친구의 의의와 그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는 북한의 새 세대가 친구와의 관계, 친구 사이의 정, 곧 우정에 있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가 밝혀져 있다.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나? 자기 보다 동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지. 서로 그렇게 되면 그 우정은 변하지 않을거야.》(276)

273) 김용한, 앞의 책, p. 385.

274) 위의 책, p. 331.

275) 리춘구, 앞의 글, p. 74.

276) 김용한, 앞의 책, p. 326.

《어째서 이처럼 고지식하고 진실한 진호가 그런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단 말인가! 돕자! 도와야 한다. 이럴 때 돕는 게 참다운 벗이었다.》²⁷⁷⁾

우정의 생명은 약속과 맹세야.²⁷⁸⁾

上記의 예에서 북한의 새 세대는 친구와의 관계, 친구 사이의 정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가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친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친구 간의 약속과 맹세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단편소설 「물길공사장에서 쓴 일기」에서는 한 새 세대가, “당의 호소”를 외면하고, ‘시대가 주는 임무를 저바리고’ 물길공사장을 떠나려는 친구의 그릇된 판단을 미처 깨우쳐 주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을 하고 있다.

...정말이지 우정을 멀리한 건 그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되었다. 다름아닌 내가 미옥이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같았다. 나는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기를 저어했고 그의 고집을 돌려세울 수 없노라 믿고 지레 물러나지 않았는가. 내가 왜 이처럼 매정해졌을까? 내가 무슨 그의 벗이란 말인가? 용서해라, 미옥아!²⁷⁹⁾

중편소설 「단발머리」에서도 한 새 세대가 친구의 잘못을 무관심한 척 외면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자책하는 장면이 나온다.

277) 남대현, 「청춘송가 상」, p. 28.

278) 김용한, 앞의 책, p. 325.

279) 윤승상, 앞의 글, p. 63.

그러니 끝내... 내가 왜 좀 더 빨리 그를 찾아가지 못했을까? 그
엔 학교 때 우리의 맹세도 우정도 다 집어던지고 말았다. 결국 나와
동무들을 배반한거나 같지 않은가. 우정,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복종 시킨다는 것은 참된 우정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설심이와의 우정이 그런 속된 것으로 되다니...280)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우정이란 “동지들 사이에 서로 사랑
하고 도와주는 살뜰한 정을 의미”하며, “우정이 진실하고 영원한
것으로 되자면 삶에 대한 목적이 같아야”하고, “특히 자신 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
없이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만 참다운 우정이 있
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1) 이를 테면, 당과 수령, 조국과 집
단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우정을 지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정론은 소설 속의 북한 세 세
대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생활은 청년들의 우정이란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음을 깨우쳐 주었으며...282)

《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탐구의 길에서 우
정두 사랑두 꽃피야 할 우리란 말일세.》283)

이상과 같이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세 세대는 친구 내지 우정
에 대해 나름대로의 상당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친구와의 관

280) 김은옥, 앞의 책, p. 81.

281) “명언해설,” 「조선문학」 (1993.4), p. 29.

282) 김용한, 앞의 책, p. 462.

283) 리광식, 앞의 글, p. 89.

계, 우정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친구 사이의 약속과 맹세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上記한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속의 새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친구 내지 우정의 조건은 상호간 뜻과 지향의 일치이며, 여기에서의 뜻과 지향은 곧 당과 수령, 조국과 집단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나 친구사이의 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개인지향적인 삶의 목적이나 개인적 취향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사회지향적인 삶의 목적, 뜻과 지향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속의 새 세대가 비판하는 부정적인 새 세대는 上記의 뜻과 지향에 反하는 행동을 하는 부류이다.

《지금 우리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남에 대해 좋은 소리 하기 보다 헐뜯고 비방중상 하기를 더 즐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혁명과 동지들을 위해서 티끌만치도 희생하기를 싫어 하면서도 남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걸 오히려 깎아내리고 있어요.》²⁸⁴⁾

귀순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새 세대는 자기를 생각해 주는 친구, 양심적인 친구, 친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며, 친구 간의 신의는 강한 편이라고 말한다.²⁸⁵⁾ 이는 소설 속의 새 세대가 말하는 친구 내지 우정의 조건에 비해 개인지향적 내지 자기중심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는 귀순자 전철우씨의 증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84) 리춘구, 앞의 글, p. 73.

285)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북한 대학생들의 친구들에 대한 뜨거운 우정이다. 온 가족이 집안의 기쁜 날에 잡아 먹으려고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그 유일한 토끼를 친구생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대학생은 여기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²⁸⁶⁾

다. 異性觀

북한 새 세대의 이성관은 다음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남·녀 서로 간에 어떠한 이성애에 대해 호감을 갖는가, 북한 새 세대는 사랑 내지 애정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며 어떤 조건에 비중을 두는가 등이 그것이다.

먼저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 여자들이 호감을 갖는 남자의 모습이 묘사된 몇 편의 소설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밤 홍일동무의 모습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등실하니 큰 얼굴, 늘 입고 다니는 색날은 제대군복... 이 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홍일동무는 청년들 속에서 이채롭게 눈에 띄었다. 한것은 소대장이라는 그 직무와 노상 입고다니는 군복 때문만도 아니었다. 큰 키에 몸매가 그쫘하고 어깨가 짝 벌어진 그는 언제나 힘에 충만되어 있는 모습이였다... 언제나 소대의 앞장에 서서 일을 작전하고 내미는 그의 성격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나는 그가 싫지 않은 것이고 사나이다운 그에게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이리라.²⁸⁷⁾

사색의 열정이 어린 서글서글한 눈빛, 번뜻한 이마와 .질은 눈썹... 억세고 지성적이고 호협한 얼굴을 탁상등 불빛이 엇비스듬히 비쳐 주고 있었다. 보옥의 눈을 끈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였다. 그 청년의 책상우에는 두 개 나라의 원서와 사전 참고서적들이 가득히 놓

286) 전철우, 앞의 책, p. 121.

287) 윤승상, 앞의 글, pp. 53~55.

여있었다. 보매 청년은 두 개 나라 원서를 동시에 번역해 나가고 있었다... 웬간히 익세고 명석한 두뇌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감당해낼 수 없는 학습방법을 한갓 대학생에 지나지 않는 청년이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보옥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것은 그의 눈길에 어리는 황홀한 광채였다. 그것은 탐구어로 지향하는 열정과 사색과 지혜의 빛이었다. 그럴 때면 서글서글한 안광에 거대한 나래가 퍼덕이는 것같았다. 그것은 미래를 확신하고 출달음치는 역센 정신적 힘의 퍼덕임이었다.²⁸⁸⁾

그러나 결코 진호가 친절하지만 앓다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거칠고 무자비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런 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사랑을 더욱 뜨거이 느끼게 되는 현옥이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남자들이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인에게라 해도 절대 고분고분 하기만 하면 안되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고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처녀가 간절히 바래도 사내로서의 역센 담보와 든직한 무게가 느껴져야 처녀의 가슴도 더욱 사랑에 불타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남자들에게 없는 바로 이 점이 진호의 매력이며 이것만은 아무나 노력으로써도 감히 획득할 수 없는 진정한 사내에게만 한하는 천성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²⁸⁹⁾

그는 왜서인지 범속하고 일반적인 것을 싫어하는 처녀였다.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 특히 남들은 도저히 엄두도 못낼 그런 비상한 포부를 품고 그 가능성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는 그런 열정과 용기가 있는 대장부가 소원이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역시 모든 것을 다 바쳐 한점의 불꽃으로 보태주고 싶은 것이 그의 념원이었던 것이다. 아니 그것을 처녀로서의 행복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²⁹⁰⁾

上記한 예들에서 북한의 새 세대 여자가 호감을 갖는 새 세대 남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

288) 양의선, 앞의 글, pp. 37~38.

289) 남대현, 앞의 책, pp. 43~44.

290) 위의 책, p. 208.

사되어 있다. 즉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 여자가 호감을 갖는 새 세대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힘이 넘쳐나고, 잘 생긴 얼굴일 뿐만 아니라, 호방하고 의협심 강한 사나이다운 성격에, 명석한 두뇌를 소유한, 학식 내지 지식이 풍부한 지성적이고 탐구심 강한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새 세대 여자는 애인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기주장을 고집할 줄 아는 진정한 사내의 천성을 지닌 남자, 또는 남들은 엄두도 못낼 비상한 포부를 품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열정과 용기를 지닌 남자에 대해 매력을 느끼며 그에 대한 헌신을 원한다.

한편 소설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 남자가 호감을 갖는 새 세대 여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얼굴은 가름하고 키는 날씬하고 눈길은 온화하고 이마는 부드럽고 그저 이러루한데 말 한 마디 차림새 하나하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고상했습니다.²⁹¹⁾

처녀는 용모가 꽤 아름다웠다. 맑은 살결의 환한 얼굴, 정채도는 어글어글한 두 눈, 좀 록록치 않아 보이면서도 귀엽게 꼭 다물린 작은 입, 게다가 령장자리가 또렷한 군복차림은 그의 날씬한 몸매를 감절 돋구어주는 것이었다.²⁹²⁾

저는... 얼른 처녀를 살펴 보았습니다. 처녀는 보통 키에 몹시 부끄러워 하며 고개를 외로 숙인 탓에 자세히 볼 수는 없으나 얼굴 생김새가 단정하고 얌전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까짓거 이런 얌전하고 고운 처녀하고라면 노래 아니라 춤이라도 출 수 있다 하는 배짱으로...²⁹³⁾

291) 권강일, 앞의 글, p. 55.

292) 정영중, 앞의 글, p. 30.

293) 손광영, “강변의 버드나무,” p. 53.

...도시의 향수가 풍기는 이채로운 차림이었다. 살갓이 흰 가름한 얼굴, 반달처럼 곱게 그린 눈썹, 예지가 번뜩이는 까만 눈, 고집스럽게 다물린 작은 입...²⁹⁴⁾

처녀에 대해 특히 자기가 바라는 처녀에 대해서는 지극히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였다... 그것은 자기의 대상으로 될 처녀는 웅당 매력적인 용모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즉 안팎이 하나같이 고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가 말하는 내적인 미란 일반적으로 얌전하다든가 성실하다든가 하는 마음씨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지향으로부터 출발되는 훌륭한 반력로서의 자질과 성품이었다... 설사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용모에 대한 기준을 양보하면 했지 지향에 대한 요구만은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었다.²⁹⁵⁾

上記한 예들에서 나타나듯이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 남자가 호감을 갖는 새 세대 여자는 날씬한 몸매에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가름한 얼굴을 한,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이거나, 맑은 살결의 환한 생기넘치는 귀여운 얼굴을 한, 날씬한 몸매의 군복차림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또한 단정하고 얌전한 인상에 수줍음을 타는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다. 그리고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 남자는 內外的인 아름다움을 갖추되, 특히 내적인 아름다움, 즉 얌전하고 성실한 마음씨와 남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향이 있는 여자를 원한다.

上述한 바를 종합해 보면,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새 세대 여자가 호감을 갖는 새 세대 남자는, 건장한 체격을 한, 잘 생긴 얼굴에, 이른바 사나이다운 豪俠한 성격의 지적이고 탐구심 강한 미래 지향적인 인물, 즉 내외적으로 능동성, 적극성이 엿보이는 신뢰감

294) 로종익, 앞의 글, p. 38.

295) 남대현, 앞의 책, pp. 26~27.

을 느끼게 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포부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열정과 용기를 지닌 남자이다. 또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 남자가 호감을 갖는 새 세대 여자는 외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며 수줍음을 타기도 하지만, 생기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맑고 고운 살결의 미인으로 이지적인 인물이며, 특히 남자의 일에 대한 이해와 지향이 있는 여자라 하겠다.

다음으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남·녀 간의 사랑 내지 애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에 비중을 두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등장하는 새 세대의 사랑관을 소개한다.

《... 사랑이란 확실히 참다운 리해를 통해서만 꽃피고 열매 맺는다는 걸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됐소... 오직 상대에 대한 진정한 리해만이 사랑을 신성시하며 또 그런 리해에 의해 정화된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겠소. 진정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주고받는 애정의 양이 서로 같을 때라야 제대로 꽃필 수 있다고 말ियो.》²⁹⁶⁾

위 글에서 한 새 세대 남자는 진실한 사랑은 진정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는 애정의 양이 서로 같을 때라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한 새 세대 여자는上記의 주장에 대해 反論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젠가 동문 진실한 사랑은 서로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를 위한 감정과 상대를 위한 감정, 이 두 감정 중에서 자기를 위한 감정

296) 남대현, 「청춘송가 하」, pp. 150~151.

보다 상대를 위한 감정이 크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차이가 사랑의 크기라고요. 말하자면 상대를 위한 감정이 크고 진실할 수록 그 사랑은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말이에요.²⁹⁷⁾

위의 글에서 새 세대 여자는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하려면 자기를 위한 감정 보다 상대를 위한 감정이 더 크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랑관은 소설 속의 복한 새 세대 여자들에게 있어 보편화되어 있는 듯 보이며, 이른바 상대를 위한 크고 진실한 감정은 상대를 위한 희생, 헌신 등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랑은 호상리해에 기초하고 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사춘기로부터 시작되는 무시할 수 없는 숙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고 고상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깡그리 바치려는 자아희생성 때문일 것이다.²⁹⁸⁾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야 진실한 것이라는 말도...²⁹⁹⁾

성실성이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서슴없이 바쳐줄 줄 아는 헌신성일 것이다. 사람의 미덕 중에 미덕을 소연은 헌신성이라고 본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야 더욱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³⁰⁰⁾

... 사랑이란 바치는 것이구 또 바치기 때문에 받는 그런거야. 너처럼 받겠다고만 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³⁰¹⁾

297) 위의 책, p. 204.

298) 한운, 앞의 책, p. 193.

299) 구경서, 앞의 글, p. 57.

300) 류정옥, 앞의 글, p. 51.

301) 전명진, 앞의 글, p. 36.

한편 다음의 예에서는 사랑에 있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아니! 이 처녀는 나를 의심하고 있다. 믿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품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았다.³⁰²⁾

《그 동문 저에게 호감은 품었지만 믿음은 지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니지 못한 남자한테서 참된 사랑을 바랐던 것이 억울하다고, 그러한 남자에게 처녀의 순정을 바쳤던 자기가 바보였다고...³⁰³⁾

《...우리들 사이에 호상 이해와 신뢰, 존중성이 중요한거요.》³⁰⁴⁾

다음의 예에서는 상대방의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만약 동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가슴 속에 뛰여 들어야지요. 귀찮아하건 성을 내건 아랑곳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가 괴로와하면 그 괴로움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써 사랑을 해야지요.³⁰⁵⁾

실패, 또 실패... 말 그대로 간고한 전투였다. 이 어려운 날들에 순화는 언제나 말없는 그림자처럼 내곁에 있었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고 내가 괴로와하면 함께 괴로와해주곤 했다. 몇 그람의 시약 때문에, 몇 권의 참고서적을 위해 그가 걸은 밤길도 어지간했다.³⁰⁶⁾

302) 남대현, 「청춘송가 상」, p. 104.

303) 현희균, 앞의 책, p. 266.

304) 류정옥, 앞의 글, p. 52.

305) 남대현, 「청춘송가 하」, p. 112.

306) 안선옥, 앞의 글, p. 29.

다음의 예에서는 사랑이란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이란 궁극에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겠어요. 끝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에서 그 뿌리가 더욱 왕성해지는 게 아니겠어요.³⁰⁷⁾

다음의 예에서도 한 새 세대는 남·녀 간의 애정에 있어 상호존중과 평등이 중요하며, 두 사람의 지향과 이상이 일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남녀간의 애정도 깨끗하고 무한히 아름다와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조건 복종이나 종속이 아니라 호상존중과 평등이 지배해야 하며 두 사람의 지향과 이상이 다같이 활짝 피도록 해야한다.³⁰⁸⁾

다음의 예는 한 새 세대 여자의 사랑관이다 여기에서 새 세대 여자는 진실한 사랑은 창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문 자기 요구에 맞는 대상을 고르는 것을 응당한 일로, 그런 사랑을 찾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그게 사랑일까요? 진실한 사랑이고 행복일까요? 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진호동문 과학은 창조할 줄 알아도 사랑은 창조할 줄 모르거던요... 그래요 사랑도 창조해야 하구말구요... 만약 사랑을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나 열매들이 주렁진 과원에서 제 마음에 드는 꽃을 꺾거나 입에 맞는 열매를 따는 거나 다를 게 뭐예요?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런 꽃과 열매를 따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가꿔야 한다고

307) 남대현, 앞의 책, p. 113.

308) 류정옥, 앞의 글, p. 52.

봐요... 서로의 부족점을 서로가 도와주어 고쳐가는 과정이 곧 진정한 사랑이 아닐가요?》³⁰⁹⁾

상기한 예들에서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가 말하는 바 남녀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이해와 믿음, 기쁨과 괴로움의 共感,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 자아희생성, 헌신, 뜻과 지향의 일치, 상호 존중과 평등 등이며, 사랑은 자기 요구에 맞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한편 소설 속의 사랑과 연애에 대해 김일성이 ‘교시’한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연애를 위한 연애를 그려서는 안됩니다. 연애를 위한 연애는 한갓 자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양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새형의 인간들의 연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³¹⁰⁾

다시 말해서, 이른바 “주체형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정 룰리는 혁명동지들, 간에 맺어진 동지애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청년남녀 간의 사랑을 연애를 위한 연애로 그려서는 안되며 당과 혁명이 준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상정신적으로 공감되고 결합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¹⁾ 이와 같은 북한의 공식적인 가치지향은 소설 속 새 세대의 사랑관, 연애

309) 남대현, 앞의 책, pp. 151~153.

310) 김해월, “우리시대 여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조선문학』 (1991.7), p. 65.

311) 위의 글.

관의 핵을 이루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쌍방을 비할 바 없이 고상한 세계에도 승화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의 리상과 지향이 일치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으며 한갓 거짓에 불과하다... 그와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농촌테제 관철에 다소나마 이바지 하려는 숭고한 지향만을 안고 육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맺어진 것이 아닌가, 한 마디로 말하면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달피재의 래일에 대한 숭고한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닌가?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에서 육종이라는 이 리상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가?³¹²⁾

나는 조국에라는 크고 위대한 감정 속에서 사랑을 알게된 것이, 또 사랑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³¹³⁾

청춘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참된 사랑과 리상을 지녔기 때문이며 탄광에서 보냈던 그 나날들이 지금에 와서 긍지높게 추억되는 것은 당이 부르는 곳- 조국의 릉성과 변영을 위한 거창한 위업 속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숭고한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정당화해 보려던 나에게 그 무슨 참된 생활이 있을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³¹⁴⁾

다음의 예에서도 한 새 세대 처녀가 사랑 보다도 시대적 사명이 우선함을 말하고 있다.

사랑이 아무리 소중한데도 량심과 의리, 시대적 사명과는 바꿀 수 없다. 결렬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해도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지향하려는 신념과 타협할 수는 없다.³¹⁵⁾

312) 한윤, 앞의 책, pp. 177~178.

313) 전명진, 앞의 글, p. 38.

314) 손광영, 앞의 글, p. 59.

315) 류정옥, 앞의 글, pp. 53~54.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남녀 간의 사랑 내지 애정에 있어 상호이해와 신뢰, 진실한 마음, 희생, 헌신, 상호존중, 이상과 지향의 일치 등을 중요시 하며, 사랑을 숭고한 창조사업이라고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과 혁명이 준 임무수행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사상정신적으로 공감, 결합되는 데에 진정한 사랑 및 애정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새 세대가 지녀야 할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적인 사랑관, 애정관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소설에서는 새 세대 남녀가 자유로이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띄며, 그들의 사랑과 연애는 곧 결혼으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결혼이 별개일 수 없으며, 어느 한 사람이 사랑과 결혼을, 연애와 결혼을 별개의 문제로 하여 처신하게 되면 크게 비난받게 된다. 그러나 북한문헌에 실린 한 글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북한의 새 세대들 사이에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의 한 시나리오 작가의 말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영화에 다 담지못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사랑과 결혼을 동일한 것으로가 아니라 서로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사랑은 사랑대로, 결혼은 결혼대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현상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참다운 사랑을 모르는 부르주아적 인생관의 산물이며 이런 사람은 일생토록 참된 사랑의 진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³¹⁶⁾

316) 장유선,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 「조선영화」 (1993.9), p.47.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아직도 연애를 수치 내지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³¹⁷⁾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부화사건화 되어 중벌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연애는 공개적이기 보다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결혼 전, 결혼 외의 임신 사례도 적지않다고 한다.³¹⁸⁾

북한 새 세대의 이성관은 지난 89년의 평양축전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스러운 이성교제와 그에 따른 연애결혼의 증가추세이다.³¹⁹⁾ 북한당국의 직접 내지 간접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 사이에 자유연애의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가 하면, 婚前, 婚外 임신 사례도 적지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날 북한 새 세대의 사랑관, 애정관은, 사상적결합에 의의를 두고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형성된 소설 속 새 세대의 사랑관, 애정관과는 달리, 개인적, 자아중심적 차원에서 형성된 사랑관, 애정관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북한 새 세대의 사회관계관을 전통적 윤리관, 교우관, 이성관 등 3개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았다. 남존여비관, 장유유서관 등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전통적 윤리관은 소설 속의 새 세대와 현실 속의 새 세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소설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북한의 새 세대는 남성중심적 내지 남성우월적 사고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새 세대 여자들 중에는 자기비하적

317) 국토통일원, 「김만철일가 북한실태 증언록」, p. 256; 좌담, “북한의 청소년생활,” pp. 112~113.

318) 위의 책, pp. 159~160., p. 275.

319) 「내외통신」 종합판(43) pp. 557~558.

사고와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또한 장유유서관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전통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자에 대한 사고와 태도에 있어 인격 대 인격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테면 북한의 새 세대는 연장자의 부당한 행위와 처사에 대해 서슴없이 직언을 하며, 때로는 이러한 태도가 연장자에 대한 불손한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우관에 있어서는 소설 속의 북한 새 세대와 현실 속의 새 세대가 서로 다르다. 양측 모두 친구와 우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소설 속의 새 세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집단을 위한 헌신이라는 ‘뜻과 지향’의 일치를 친구 내지 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현실 속의 새 세대는 올바른 양심과 친구를 위한 헌신 등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이성관에서도 소설 속의 새 세대와 오늘을 사는 새 세대는 서로 다르다. 소설 속의 새 세대는 남녀 서로 자유로이 사랑하고 연애하며, 연애는 곧 결혼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들은 사랑과 연애의 의의를 서로의 사상적 결합에 두고 있으며, 사랑을 숭고한 창조사업이라고 말하는 등 이른바 주체형의 혁명가적인 사랑관, 연애관을 피력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새 세대는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를 수치 내지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개적인 연애 보다는 비밀스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연애와 결혼을 별개문제로 생각하여 부화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이성관은 교우관과 마찬가지로 소설 속의 새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자아중심적인 것이라 하겠다.

第 IV 章 北韓 새 세대 價値觀의 實際와 變化展望

1. 北韓 새 세대 價値觀의 實際

지금까지 북한소설의 분석과 북한체험자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살펴 보았다. 서론에서 밝힌 북한 새 세대 가치관 분석의 관점에 입각하여 上述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북한 새 세대와 구세대(여기에서는 이른바, 혁명의 2세대와 3세대를 일컬음)의 갈등과 모순이다. 대체적으로 보아, 소설 속에서 兩世代는 서로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깨우쳐 주고 깨우침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묘사되는 예도 적지 않으며, 이는 주로 정신적, 사상적으로 헤이해진 새 세대에 대한 구세대의 안타까움과 걱정,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롭고 진취적인, 개성적인 사고와 태도를 못마땅해 여기며 이해해 주지 않는 구세대에 대한 새 세대의 불만으로 나타난다.³²⁰⁾ 이와 같은 세대 간 갈등은 북한 체험자들의 증언에서도 입증되었다. 즉 북한의 나이 든 세대는 새 세대의 당돌함과 진취적인 사고, 자유주의적³²¹⁾ 성

320) 북한에서의 세대간 갈등이 잘 묘사된 작품은 김삼복의 소설 <세대>이다.

321)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우며 사회 정치 생활에서 조직생활과 규률을 싫어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낡은 사상과 태도”이다.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앞의 책, p. 486. 한편, 소설 속에서 자유주의자는 “모든 일에 남먼저 뛰어들고 극성을 부리는” 사람으로 묘사

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새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과거지향적 사고와 구태의연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설 속에 그려진 새 세대 간의 갈등 및 모순이다. 새 세대 간의 갈등 및 모순은, 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인물과 부정적인물 간의 갈등관계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인물이란, 이른바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으로 그려져,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대중적 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 낭만과 락관주의”등의³²²⁾ 품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설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된 새 세대는, 인생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들의 인생관은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테면, 이들은 자신의 성격 및 의지, 자신의 능력 및 자신의 일, 자신의 존재 가치 및 의의, 자신의 대인관계 및 사회환경 등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고, 그 중에서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성격, 고상한 품모를 지닌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삶의목표는 집단 및 사회지향적인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 내지 지향은 오로지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사회와 집단, 조

되기도 하는데 (김은옥, 앞의 책, p. 105.), 북한에서 자유주의자란 일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깔렁대며 놀거나, 작업시간에 낮잠을 잔 자 등을 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북한문제연구소, 앞의 책, p. 128.

322) 류만, “90년대 인간성격 창조 문제에대한 소감,” 「조선문학」 (1991.1), p. 39.

국과 인민에 헌신, 희생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없으며, 특정직업에 대해 好惡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직업활동을 통해 당과 수령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며, 특히 농촌 탄광 등지에서의 노동을 자원한다.

이들의 행복관 역시 삶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사회지향적인 것이다. 이들은 행복의 원천이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복을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새 세대의 인생관은, 당과 수령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것이 올바르고 보람된 인생이며,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하고, 국가와 사회, 집단에 희생, 헌신하는 삶의 과정이 곧 자신들의 인생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새 세대의 결혼의 의의는,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통한 가정의 공고화와 사회에의 이바지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전 청춘시절의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이 결혼 보다 우선한다. 즉, 결혼전 청춘시절의 위훈과 사회에 대한 헌신이 사랑의 전제이며, 결혼의 촉매이고, 행복의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남녀의 결합에 있어 정신적일치 내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서로의 삶의 목표 내지 지향의 일치를 중시하는데, 여기에서의 목표 내지 지향이란 궁극적으로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함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부모에 대한 관계, 즉 孝를 중요시하며, 전통적인

효행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의 뜻과 처사가 당의 의지 내지 정책과 어긋나면, 부모의 뜻과 처사에 저항하며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릇된 뜻과 처사를 是正해 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부부관은, 소수의 작품에서, 부부관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편의 일에 협조적인 아내상을 강조하는 등 전통적인 부부관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소설 속의 긍정적인 새 세대는 남존여비, 장유유서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해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세대와 별 다를 바 없이 남성중심주의 내지 남성우월적인 사고와 태도를 나타내며, 여자의 경우, 자기비하적인 남존여비관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소설 속 새 세대의 결혼관, 부부관, 이성관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장유유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념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장유유서관은 전통적인 장유유서의 정신이라기 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고와 태도를 보인다. 즉 부모관에 있어서와 같이, 이들은 연장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是正해 주며, 자신들에 대한 연장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저항하고, 인격적인 平等關係를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친구 내지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친구와의 관계 내지 우정에 있어 약속과 맹세, 서로 도와줌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친구 내지 우정의 조건은 상호간 뜻과 지향의 일치이며, 여기에서의 뜻과 지향은 곧 당과 수령, 조국과 집단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

이들은 이성관에 있어서도 사상우선의 사회지향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며, 그 핵은 역시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이다. 이들은 남녀간의 사랑 내지 애정에 있어 상호이해와 신뢰, 진실한 마음, 상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상호존중과 평등, 이상과 지향의 일치 등을 중요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과 수령의 뜻 관철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정에서의 사상정신적 공감, 결합에 진정한 사랑 및 애정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유로이 사랑하고 연애하며, 이들에게 있어서 異性과의 사랑 내지 연애는 곧 결혼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북한 새 세대의 긍정적인 전형은, 진취적으로 일을 성취해 나가는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모범상으로 그려져 있으며, 男女 모두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새 세대의 전형은 이상적인 주체형의 사회구성원 양성이라는 북한당국의 사회교육적 차원에서의 계몽을 의도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소설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 새 세대의 가치관이다.

첫째, 이들의 인생관은 소극적이고 비진취적이며 이기적이다. 이를 떼면, 이들은 당과 수령의 은덕과 배려를 망각한 채,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과 무사안일적인 삶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며, 물질에 집착한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사회환경에 대해 만족해 하지 않으며, 이는 특히 농촌이나 탄광 등지의 새 세대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의 삶의 목표 내지 삶의방식은 개인지향적이고 이기적이며, 명예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들은 도시생활을 동경하며

농촌생활을 기피한다.

또한 이들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있으며,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을 선호하고, 직업활동을 통한 집단과 인민에 대한 헌신 보다는 자신의 富와 출세를 도모한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활동에 있어 주인의식이 부족하며, 이른바 혁신자적인 정신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아중심의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충족과 一身의 편안함을 행복의 要件으로 삼는다.

둘째, 소설 속에 부정적으로 묘사된 새 세대의 배우자 선택 결정요소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들이다. 긍정적인 새 세대의 배우자 조건이, 서로의 뜻과 지향 등 이상적인 것인데 반해, 이들은 배우자의 사회적지위 내지 직업, 학식의 정도, 사는 곳, 경제력 등을 중요시한다. 이를 테면, 이들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사회적지위, 정신노동의 직업, 대학졸업의 학력, 도시거주, 경제력 등을 꼽고 있으며, 특히 外貨를 만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여자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의 부모관과 부부관은 소설 속의 긍정적인 새 세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인 새 세대와 비교하여 이들의 부모관과 부부관을 논할 만한 근거를 소설 속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설 속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농촌을 떠나는 부정적인 새 세대를 통해 不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한 단편소설에서 남녀평등과 부부관계의 평등을 지향하며, '개성적이고 자립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한 새 세대 남자가, 女必從夫, 夫唱婦隨의 부부관과, 특히 여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결혼관, 부

부관을 비판하고 있을 뿐, 부정적인 새 세대의 말과 태도로는 그들의 부부관이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소설 속의 부정적인 새 세대의 전통적 윤리관도 긍정적인 새 세대의 가치관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장유유서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긍정적인 새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나이든 세대의 충고를 불쾌하게 느끼며, 나이든 세대에게 不遜한 태도로 인격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친구와의 약속 내지 맹세를 어기며, 친구를 헐뜯고 비방중상 하는가 하면, 혁명과 동지를 위한 희생을 싫어하는 등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태도를 보이며 우정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약속 내지 맹세란, 주로 당과 수령의 뜻 관철, 조국과 집단을 위한 헌신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성관도 긍정적인 새 세대의 이성관과 다르다. 이들은 이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대적요구나 시대적사명을 저버리며, 이성에 대한 '사상정신적'인 共感 보다는상대의 직업, 경제력, 거주지, 신체적조건 등, 異性이 지니고 있는 外的條件들을 동경한다. 또한 이들은 사랑과 결혼, 연애와 결혼을 별개의 문제로 하여 處身한다.

이상과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새 세대의 전형은 '개인 영웅주의자', '자유주의자' 등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들의 가치관은 긍정적으로 묘사된 새 세대의 가치관과는 달리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소설분석의 결과를 立證 내지 反證하기 위해 활용한, 북한체험자들의 諸證言과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과 관련된 南北韓의 공식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새 세대의 인생관은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이기 보다는 自我中心의 개인지향적이다. 이를 테면, 오늘을 사는 북한의 새 세대는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 헌신이라는 원대한 이상 내지 지향, 포부와 명예 같은 것 보다도, 돈과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노동을, 농촌 보다는 도시에서의 직업활동을 선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분위의 직업관 보다는, 생계유지와 一身의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분위의 직업관이 지배적이다.

또한 그들은 자아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충족과 개성적인 삶, 인격적인 존중 등을 행복의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새 세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조건 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비중을 둔다. 이를 테면, 북한의 새 세대 남자는 배우자의 출신성분과 부모의 권력배경, 富의 정도 내지 경제력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며, 마음씨, 전통적인 여성스러움, 미모 등을 중시하고, 특히 外貌를 기본으로 꼽는다고도 한다. 또한 최근의 경제난 악화로 인해 북한 새 세대 사이에는 黨員이 아니더라도 물품구입이 용이하고 생활여력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새 세대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의 직업은 생필품 판매상점, 백화점, 호텔, 식당 등의 판매원이나, 요리사 재단사 등이다. 한편, 북한의 새 세대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는 黨의배경이 있는 사람, 黨의 권력자이거나 물품공급이 잘 되는 부서의 간부자제, 해외여행 기회가 비교적 많은 외교부

및 무역부 직원, 잘 생긴 외모에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 도시거주자 등이다. 북한 새 세대 여자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우선순위는 그 첫 번째가, 직업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평양총각이다. 요컨대, 북한의 새 세대는 경제력과 편의, 안락함 위주로 배우자를 선택하며, 특히 경제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 새 세대의 부모관은 소설 속 새 세대의 부모관과 거의 일치한다. 그들 역시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며, 부모에 대한 감사의 정도 깊을 뿐만 아니라, 父母死後의 효, 즉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 성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부모말씀에의 절대순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자기의견 내지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부부관에 있어서도 그들은 소설 속의 새 세대와 유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를 테면, 그들은 부부관계는 평등해서는 안되고 남편이 아내 보다 월등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 대해 순종적, 헌신적이어야 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家事를 전담해야 하며, 아내의 직장생활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오늘을 사는 북한 새 세대의 전통적 윤리관도 소설 속 새 세대의 가치관과 거의 일치한다. 그들 역시 남녀차별적 내지 남성 중심적 사고와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장유유서관은 소설 속의 새 세대와 다르다. 나이든 세대의 증언과 새 세대 자신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 장유유서의 관념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즉 북한 새 세대에게 있어서는, 우리 민족전래의 전통적인 장유유서 정신 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고와 태도

가 보다 더 강하게 內在되어 있다고도 보는 것이다.

북한 새 세대의 교우관도 소설 속 새 세대의 교우관과 다르다. 이를 테면 소설 속의 새 세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집단을 위한 헌신이라는 ‘숭고한 뜻과 지향의 일치’를 친구 내지 우정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현실 속의 북한 새 세대는 양심적인 친구, 친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친구 등, 소박하고 자아중심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새 세대의 이성관은 지난 89년의 평양축전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스러운 이성교제와 그에 따른 연애결혼의 증가추세이다. 북한당국의 직접 내지 간접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 사이에 자유연애의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가 하면, 婚前, 婚外 임신사례도 적지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연애가 수치 내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부화사건화 되어 중벌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연애는 공개적이기 보다는 비밀리에 행해진다. 또한 그들의 사랑관, 애정관은, 사상적 결합에 의의를 두고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형성된 소설 속 새 세대의 사랑관 애정관과는 달리 私的인 조건 내지 배경을 중시하는 개인적, 자아중심적 차원에서 형성된 사랑관, 애정관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새 세대와 부정적인 새 세대의 가치관과 북한체험자의 諸證言 및 북한의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은 이상과 같이 요약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특징적인 면을 정리하면 다음의

일곱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 새 세대의 인생관은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이기 보다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당의 공식적 가치지향인, 당과 수령의 의지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 헌신 등의 원대한 이상 내지 지향 보다는, 돈과 물질적인 가치, 一身의 출세 및 안락함, 생계유지 등을 중요시하며, 정신노동의 직업을 선호하고, 물질적인 충족과 개성적인 삶, 인격적인 존중 등을 행복의 要件이라고 말한다.

둘째, 북한의 새 세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출신성분,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외모, 거주지 등, 현실적인 조건에 크게 비중을 두며, 최근의 경제난 악화 이후로는, 특히 배우자의 경제적인 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양에 거주하는 남자가 최상의 배우자로 꼽히고 있다.

셋째, 북한의 새 세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효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나, 부모에 대해 비교적 자기의견 내지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이를 테면, 북한의 새 세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부모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결정권만큼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부모의 뜻이나 處事가 자신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저항하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북한의 새 세대는 남녀차별적 내지 남성중심적 사고와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 새 세대의 결혼관, 이성관, 남존여비관, 부부관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새 세대는 전통적인 장유유서관 보다는, 인격 대

인격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고와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와 태도는 때때로 연장자에 대한 불손한 행태로 보여지기도 한다.

여섯째, 북한의 새 세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신의와 헌신을 중요시 여긴다.

일곱째, 북한의 새 세대는 자유연애를 선호하며, 새 세대의 일부는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들 사이에서 婚前, 婚外 임신사례도 적지않다.

2. 北韓 새 세대 價値觀의 變化展望

前章에서 살펴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 있어, 최근에 들어서 나타난 변화양상으로 추정되는 것은, 돈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인생관과, 경제적인 조건에 크게 비중을 둔 결혼관, 그리고 자유연애를 선호하며 사랑과 결혼을 別個化하는 사고방식 등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북한당국이 우려하는 이른바,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며, 북한당국은 이를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부르쥬아 자유화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³²³⁾

이상과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大分 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새 세대의 사회화과정

323) 「로동청년」, 1995. 3.9.

과 북한의 사회구조 및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이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으로 작용해 온 기본적인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의 인간개조를 공식목적으로 내세우고, 극도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의도적 집단적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일생에 걸친 북한 새 세대의 사회화과정과, 철저한 감시 및 통제체계로 특징지어지는 북한의 사회구조,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문화, 통제문화로 단정지을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 등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형성요인에 있어 둘째요인은 심각한 경제난이며, 셋째요인은 북한의 체제존립을 위한 체제개방과 그에 따른 외래사조와 외래문물의 침투, 그리고 蘇聯 및 동구권의 붕괴라는 對外環境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想定할 때,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작용한 相互聯關性 있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大分 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새 세대의 사회화과정과 북한의 사회구조 및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이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으로 작용해 온 기본적인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의 인간개조를 공식목적으로 내세우고, 극도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의도적 집단적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일생에 걸친 북한 새 세대의 사회화과정과, 철저한 감시 및 통제체계로 특징지어지는 북한

의 사회구조,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문화, 통제문화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 등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형성요인에 있어 둘째요인은 심각한 경제난이며, 셋째요인은 북한의 체제존립을 위한 체제개방과 그에 따른 외래사조와 외래문물의 침투, 그리고 蘇聯 및 동구권의 붕괴라는 對外環境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想定할 때,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작용한 相互聯關性 있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형성요인에 근거하여 上述한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 및 변화방향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想定하고, 이에 작용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앞두고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고립에 처해 있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體制存立을 위한 體制開放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對西方關係 개선 및 부분적인 체제개방을 모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89년의 이른바 '세계청년학생축전'과 95년의 '평화를 위한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등의 행사를 통해 對外이미지 개선과 對外개방의지 부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西方關係改善 및 체제개방의 과정에서 서구적인 思潮와 文物이 북한에 침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成長時期的으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북한 새 세대들의 가치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명

若觀火한 사실이라 하겠으며, 최근 북한 새 세대의 사상적해이와 무사안일풍조, 개인주의적 생활태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잦은 비판과 경고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평양축전에서 생기있고 자유분방한 서구생활방식과 문화, 물질적인 풍요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새 세대는 가치관의 혼란 내지 사상적 동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西歐人 및 해외교포를 포함한 한국인의 訪北과, 東歐유학생들을 통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 등으로 인해, 북한의 새 세대는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까지 느꼈으리라 추정되며, 惡化一路의 북한 경제난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80년대를 통해 지속되어 온 북한 경제의 침체로 인한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물질적인 결핍과 生活苦는 북한 새 세대로 하여금 사상 보다는 돈과 물질적인 가치, 一身의 출세 및 안락함, 생계유지 등을 중요시하는 自我中心的인 개인지향적 가치관을 지니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西歐思潮 및 文物의 침투로 인해 보다 더 확산,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는 上記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겠으며, 이렇게 볼 때, 북한 경제난의 해소가 長期化되고, 북한의 체제개방 및 對西歐關係 개선에 따른 西歐思潮 및 文物의 유입이 거세진다면, 上述한 바와 같은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최근 북한의 새 세대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권력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통치방식에 의한 북한체제의 운영을 용이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가 가속화 된다면, 이는 김정일체제의 존립에 있어 주요 불안요소로서 작용할 개연성도 높다고 하겠다. 최근 북한당국이 새 세대에 대한 사상통제 및 주체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크게 의식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은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양상을 띄면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³²⁴⁾ 또한 북한당국의 완벽을 기한 사상통제와 조직적 통제는 북한의 새 세대들 사이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확산 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새 세대들 사이에 脫理念的 내지 反社會主義的인 가치지향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및 사상적동요의 징후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음이 周知의 사실이다. 이는 곧 새 세대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상통제와 조직적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하겠으며, 북한당국이 우려하는 바, 새 세대의 사상일탈적, 체제일탈적 행위의 漸增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새 세대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無限反復的인 정치사상 교육 및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과 엄격한 조직생활의 경직성은 오히려 북한 새 세대의 불만을 누적

324) 박성희 외, 앞의 책, p. 48.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북한당국의 공식적 가치지향을 형성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북한 새 세대의 사회화과정과 북한의 사회구조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를 보면, 대내외적인 극도의 폐쇄환경 속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의도적이고 집단적이며 확일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새 세대의 사회화과정은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새 세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염증과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감시 및 통제체계로 특징지워지는 북한 사회의 구조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문화, 통제문화로 특징지워지는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해서도 북한의 새 세대가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난 타결을 위한 제한적 개방이 확대,심화되는 경우, 최근 북한의 새 세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도 점차 확대, 심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정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절대적 공식가치지향인 주체사상의 無力化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第 V 章 結 論

본 연구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을 究明해 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방향을 추론, 전망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방법은 주로 1990년대에 발표된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이었으며, 분석결과의 입증 내지 반증을 위해- 일차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귀순자의 증언 및 訪北者, 북한체류 경험자 등의 증언을 활용하였고, 본 論題와 관련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내용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분석대상 영역은 인생관, 가정관, 사회관계관 등 3개 범주로 개념화 하였으며, 3개 범주마다 각각 다음과 같은 하위영역을 포함시키었다. 첫째 인생관에는 자아개념, 인간관, 삶의목표, 직업관, 행복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가정관에는 결혼관, 부모관, 부부관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사회관계관에는 남존여비관, 장유유서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관과 교우관, 이성관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 새 세대 가치관 분석의 관점으로는 북한 소설 속에 그려진 북한 새세대와 舊世代 간의 갈등 내지 모순, 새 세대 간의 갈등 내지 모순, 그리고 북한사회 현실에 대한 새 세대의 불만 등을 읽고 분석하여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을 究明하고, 蓋然性 높다고 생각되는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입증 내지 반증을 위해 북한 새 세대 가치관에 대한 북한체험자들의 諸證言과, 南北韓의 공식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된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공식적 가치지향과는 달리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상이나 정치우선의 가치관이 아닌 돈과 물질, 안락함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귀순자들의 공통된 증언 외에도, 최근 북한당국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 세대들 사이에 이른바 자유화의 경향과 사상일탈 및 체제일탈적 행위가 점증하고 있음은 이상과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시사하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한편,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나, 북한 새 세대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하여 형성요인을 지적한다면, 북한의 체제존립을 위한 체제개방과 그에 따른 서구사조 및 서구문물의 침투, 대외환경의 변화,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등을 들 수 있다. 즉,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모색된, 對西歐關係 개선 및 부분적인 체제개방의 과정에서 북한사회에 유입된 서구사조 및 서구문물의 영향과 蘇聯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와 자유화 추세로 말미암아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에 변화가 초래 되었으며,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80년대를 통해 지속되어 온 북한경제의 침체로 인한 물질적인 결핍과 生活苦가 북한 신세

대로 하여금 사상과 정치 보다는 돈과 물질적인 가치, 一身의 출세 및 안락함, 생계유지 등을 중요시하는 자아중심적인 개인지향적 가치관을 지니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서구사조 및 문물의 침투로 인해 보다 더 확산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한 경제난이 長期化되고, 북한의 체제개방 및 對西歐關係 개선에 따른 西歐思潮 및 文物의 유입이 거세진다면,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上述한 내용과 같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일부의 새 세대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새 세대의 자유화 경향과 사상적 해이, 혁명성 약화 등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와 잦은 경고는,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새 세대의 극소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示唆하고 있으며, 귀순자 및 북한 체험자의 증언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의 철저한 사상적 통제와 조직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새 세대의 사상일탈적 내지 체제일탈적 행위가 점증하고 있음은,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가치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³²⁵⁾ 가치 내지 가치관은 공동의식 형성에서 不可缺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아가

325) 정범모, 앞의 책, pp. 17~19.

는 데에 있어서 불가결한 規律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의 생존유지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의 가치관 또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북한의 새 세대는 북한의 미래를 담당할 주역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은 다른 하위집단의 가치관 보다 더 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의 철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의 가치관은 분명하게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지속적인 추세로 확산 심화 된다면, 북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새 세대의 가치관은 사회변화의 動因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연구

조 한 범*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이데올로기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 III 장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역사관

제 IV 장 북한의 주체사상과 역사관

제 V 장 북한의 역사관과 지배체제의 정당화

제 VI 장 북한 역사관의 평가

제 VII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사회학 박사

빈 면

제 I 장 서 론

역사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이나 그 사실에 관한 기술이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사실은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들이 모두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관찰자의 특정한 관심과 가치가 개입된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절대적인 의미의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고, 이와 반대로 상대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의 존재구속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는 가치중립적인 태도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인 태도와 다양성의 인정은 역사이해의 객관성 확보에 절대적인 문제이다. 주어진 수많은 과거의 사실들이 관찰자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선택되고, 선택의 이면에는 관찰자의 의도적, 혹은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 관심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는 철저한 가치중립적인 태도가 요구되어야 한다. 즉, 연구대상의 선택에는 어쩔 수 없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가치관련)되지만, 연구과정에서는 연구자에 의해서 주어진 사실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태도(가치중립)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¹⁾ 그리고 이러한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니는 연

1) L.A. Coser,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신용하,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서울: 일지사, 1986), pp. 321-328.

구자들이 한 방향으로 강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 결과물들 속에서 신뢰할 만한 객관성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객관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특히 사회의 다양성이 억압되고 역사인식의 자율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연구가 영향받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즉,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역사해석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역사에 대한 해석은 객관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현실적인 체제의 요구에 기여해야만 했다. 즉, “역사를 아는 것은 혁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투쟁의 역사를 연구하여 근로자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²⁾ 북한에서 역사는 사회주의혁명에 기여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주민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해석이 이루어 졌고, 결과적으로 남한과 이질적인 역사관이 북한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 국가에 있어서 역사란 공동으로 겪어온 삶의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들만의 특수한 경험을 겪게 되고, 공통의 민족성이 형성된다. 역사관은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고 입장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과 평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동질성과 정체감을 주고 궁극적으로 행위의 중요한

2)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p. 561.

준거로 기능한다. 역사는 주어진 구성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받아들여진 사실은 내면화되어 의식 속에서 굳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통일이후 남북한간의 역사관 차이는 극복되기가 쉽지 않은 난제이며, 단기간에 해소되기도 어렵다. 그것은 북한의 역사관이 김일성가계의 우상화와 같은 과도한 왜곡뿐만 아니라 남한과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이것은 다시 북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정체감을 부여하는 기제로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행위주체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역사관이 체제유지를 위한 역사적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을 사회의 중심원리이자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일당독재형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이며, 그 정점에 수령을 위치시키고 있다. 북한사회에 있어서 주체사상은 정치영역에서의 최고, 최상의 이념이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도덕적인 규범으로 기능한다. 북한의 지배세력은 권력을 배타적으로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집단적 의식화 과정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주입하고, 부성애주의적인 ‘아버지 수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개인숭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강제했다는 특성을 지닌다.³⁾ 따라서

3)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사상적 빈곤”, 「북한이 보는 우리역사」 (서

북한에서 역사의 문제는 북한적 이데올로기 현상인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배된 주체사관으로 귀착되고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이에 준거하여 해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동기화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소유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체제로 인해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인해 낼 수 있는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외적인 자극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주의의 체제상 사상적이고 도덕적인 자극은 중요한 기제로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공산당에 의한 사상적 통제와 동원화의 기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하여 지배세력이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절대적으로 행사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의 북한적 변종이 바로 주체사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에 대한 해석과 대중적인 교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자신들의 체제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혁명이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해석은 학문적

역사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구성의 중요한 원리로서 해석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을 교양하고 체제에 통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역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과 사회과학자들의 임무는 사회주의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요되었다.⁴⁾

북한의 경우 역사해석의 전개는 역사연구의 내재적인 논리에 따라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적 변화와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해방직후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기 시작했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투쟁의 원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중심원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동향은 1950-6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자주적 정책노선과 함께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주체사관이 북한역사관의 기본입장으로 채택되었다.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유일지배와 세습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역사해석도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졌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은 남한과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가계의 이상화같은 역사적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대구분과 같은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남한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단군릉의 발굴과 건설 같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조차도 구체적인 검증과

4)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33.

평가절차없이 체제정당화와 공고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은 항상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한과 심각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한 사회의 구조는 단시일에 만들어지지도 않거니와 정치체제가 변했다고 해서 구조적인 속성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구조적인 특성들은 비교적 오랜시간동안 생존하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사회의 허구성과 역사적인 왜곡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들에게 주입되어 형성된 역사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모래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구성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통치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 사상사업에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구성원들에게 교양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체제의 요구에 따라 편향되고 조작된 역사관을 강제적으로 내면화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왜곡된 상은 “당연시의 세계 (taken for granted world)”⁵⁾를 구성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주어진 현실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이 사회의 모순을 인식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며, 구조적인 차원

5) 사회학에서 당연시의 세계는 행위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주어진 현실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현실의 구조적인 속성이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진 현실은 행위의 준거로 기능한다.

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즉, 북한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을 체제에 통합하고 동원하는 기제로서 적극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고, 역사에 대한 해석은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남북한간의 역사관의 차이는 사회통합을 더디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문화의 창출을 위해서 북한역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 역사관의 형성과 전개가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과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김일성주의의 정당화로 귀착되는 과정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역사인식 및 북한 역사관이 북한의 이데올로기 구성 속에서 행하는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역사관을 분석하고, 통일 한국과 관련하여 이를 전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로서 이데올로기론이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단순한 허위의식에 불과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의 중요원리로서, 행위 주체를 생산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이데올로기개념이 다루어질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역사관의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 이데올로기를 사회경제체제의 특성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역사관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북한역사관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북한사회의 중심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개된 북한 역사관의 변화와 특성 그리고 주체사관이 검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4장의 1절에서는 북한사회의 중심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2절에서는 북한역사관의 변화가, 3절에서는 북한의 역사관인 주체사관이 검토될 것이다.

V장에서는 북한의 역사관과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논리인 수령론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역사관의 지배체제정당화 기능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VI장은 한역사관의 평가로서 북한 역사인식의 특성,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한 남한과의 역사인식의 차이점 등이 논의될 것이다.

제 II 장 이데올로기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체제에 통합하고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상부구조로서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양태로 구성원들에게 교육되고 주입되어 일정한 행위의 준거로 기능했다. 행위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위가 결정되는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특히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행위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외적인 기제들이 필요하고 사상적, 도덕적 자극과 이를 통한 동원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한 사회구성의 원리로 작동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질 행위자들을 주조해내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사회수준에서 행위의 규범과 도덕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구성원들에게 주입, 전달되고 결과적으로 일정한 세계관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자극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제들을 필요로 했다. 북한의 경우 형성초기에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외에 자본과 기술수준이 매우 낮았고, 생산력도 열악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북한은 열악한 경제사정상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투입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업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었다. 사회주의 공업화에 있어서 대중들의 ‘혁명적 자발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각 개인의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념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극하는 동원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으로 바로 인민대중을 상정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 이데올로기구성의 핵심인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사회주의사회에서 이데올로기가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사회운영원리로 작용했으며, 사회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이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허구성과 왜곡을 인지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상당기간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역사는 체제의 정통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체제의 요구에 일치하여 전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이 형성되었으며,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데올로기구성의 중요요소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이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세력들에게 허위의식으로서, 경제의 단순한 반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요구하는 행위주체를 만들어 내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지배세력들은 사회주의형 인간의 창조와 체제건설과정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을 절감했고 이는 이데올로기의 적극적인 이용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관념에 대한 과학을 의미한다. 드 트라시(Destatt de Tracy)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정되었던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처음에는 “관념의 학문 또는 과학”이라는 견지에서 출발하여, 이념을 과학적으로 형성, 적용함으로써 특히 공적 교육을 보급시킴으로써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극복하고 재건할” 수 있게 하려는 강력한 열망을 표명하고 있었다.⁶⁾

초기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마키아벨리 (Machiavellis)와 베이컨(Francis Bacon)에서 엘베티우스(Claude Helvetius), 드 트라시를 거쳐 콩트(Auguste Comte)와 포이에르바흐(Ludwig Feuerbach)에 이르기까지 우상, 편견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하에 분석된 현상은 거의 언제나 심리학적 또는 인지상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정신적 왜곡과 사회관계의 역사적 발전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상상되지 않았다. 이데올로기적 왜곡은 정열, 미신, 개인적 이해관계, 종교적 편견 또는 인간의 자기소의 등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역사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모순과는 연관되지 않았다.⁷⁾

이데올로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마르크스에 이르러 가능하게 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사회현실의 모순된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데올

6) John Plamenatz, *Ideology*, 진덕규역,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87), p. 18.

7) Jorge Larrain, *The Concept of Ideology*, 한상진 심영희 역, 「현대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 1984), p. 48.

로기는 생산관계의 모순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지배계급의 허위의식이었다. 따라서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의식 속에서 해결되려고 시도함으로써 모순을 부정하고 은폐하며,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의 허위의식으로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비판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개념은 마르크스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는데,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개념에서 긍정적인 이데올로기개념⁸⁾으로의 변화는 러시아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레닌에 의해서 채택된다. 산업화의 수준이 낮았고 노동자계급이 성장하지 못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할 세력의 존재는 매우 미미했다. 따라서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의 추진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정치 사상적인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러시아 혁명이라는 현실적 국면에 처하여 레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인 계급투쟁의 의미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계급투쟁의 강조는 이데올로기개념의 확대와 접목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계급투쟁

8) '긍정적 이데올로기'와 '부정적 이데올로기'개념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이데올로기를 계급적 세계관으로 인식하는 입장은 이데올로기가 모든 계급에 공통된다는 입장으로 이데올로기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으로서 자본주의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혁명의 도래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와는 다른 것이었다. 레닌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란 용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있어서 처럼 부정적인 의미 즉 허위의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레닌에게 이데올로기는 계급의식을 지칭했다. 즉 그것은 노동계급이 과학적 방법으로 그들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교의였다.⁹⁾ 레닌은 이데올로기를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모든 계급에게 해당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계급은 상이한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지니게 됨으로서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레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은폐와 대체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끌어갈 이데올로기였다. 레닌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계급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¹⁰⁾

루카치는 이데올로기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모두에게 사용하며, 계급투쟁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계급의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루카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레닌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데올로기의 파악에 있어서 루카치는 기본적으로 레닌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나 프롤레타리아 의식에 있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루카치는 프롤레

9) L. Schapiro, *Ideology and politics*, 이재석 역, 「이데올로기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5), p. 115.

10) V. I. Lenin, *What is to be done, in Collected Works*, 김민호 역,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백두, 1988), pp. 38-39.

타리아가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가는 존재로 보았다.¹¹⁾

이데올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은 그람시였다. 그람시는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의 10월혁명에 그치고, 당시 러시아보다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이 실패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추구했다. 그람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자본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즉, 자본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의 허위의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파악했다. 그람시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대중을 조직하고 계급적 위치와 계급투쟁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람시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경제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하부구조의 부수현상이 아니며 하부구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¹²⁾ 그람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허공에 뜬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모든 사회에

11) George Ritzer,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최재현,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형설 출판사, 1986), pp. 214-215.

12) 그람시의 이데올로기론은 경제적 환원주의의 인식론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 경제적 환원주의 비판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Roger Simon, *Gramsci's Political Thought*, 김주환 역, 「그람시의 정치사상」 (서울: 청사, 1985), p. 55.

서 불가결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 속에서 기능한다고 인식된다.¹³⁾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이데올로기가 구성원들의 행위를 자극하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적극적인 기제였으며, 따라서 사회제도와 구조 속에서 다양한 양태로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개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행위의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행위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경제적인 행위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라는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는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기제들을 필요로 했고 사상적, 도덕적 자극과 이를 통한 동원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사회운영의 원리로 기능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질 행위자들을 주조해내는 적극적인 수단이었고, 행위의 규범과 도덕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구성원들에게 주입,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일정한 세계관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상당기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13) Chantal Mouffe, *Gramsci and Marxist Theory*, 권유철 역,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서울: 한울, 1984), p. 105.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포스트 사회주의 과정에 있는 러시아의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장기간의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행기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소련사회의 몰락과 함께 사라질 미래성 같은 것쯤으로 여겨졌고, 이것의 부활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와 대립적인 체제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중에 있는 러시아사회에서 아직도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적인 구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체제는 ‘의식의 허구성’이라는 전통적인 낙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체제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일정한 ‘행위의 준거’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즉, 이데올로기는 사회에 존재하는 세력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계급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지만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정도 세계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보다 넓게 해석된 의미의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과 영향을 일시에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 쉽사리 다른 기제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쉽사리 극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인 것이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적극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극복과정은 이데올로기가 일정정도 행위자들을 생산하고 현상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유인해 내는 기제들이 필요했던 것은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형성의 초기에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 생산력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었고,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투입을 통한 공업화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중들을 사회건설에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개별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동기화를 기대할 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와 다른 형태의 자극 즉,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자발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시장에 기초한 개별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자극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으로 바로 인민대중을 강조하고 북한사회의 자주성을 부각시키는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이데올로기는 핵심적인 사회운영원리였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구조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역사관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하부구조를 담당했고,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한 기능과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제 III 장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역사관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사상교육이 사회의 주요한 원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와 구조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동기화와 이에 기초한 시장의 원리가 경제행위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시장은 왜곡되어 있었고,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동기화의 요소들이 소멸함과 아울러,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계획과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체제였다.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소멸의 결과 사회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유재산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형식적으로 이들은 모두 '공동 소유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현장의 직접생산자들인 노동자들은 그 자체가 고용주인 국가의 피고용인화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기초 위에 통제를 위한 국가관료층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형성의 조건들과 결정인자들은 소유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경제에 스며든 행정관계였으며, 정책과 법률적 관계 역시 중요했다. 사회구성원들은 소유관계에 기

초한 계급관계가 아니라 생산체계 각 부분의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기능적인 전문화에 의해서 위치지워졌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본에 얽매인 임노동관계에 영향받지 않았으며, 행정-명령경제체제내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와 다르게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소유관계는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관심을 사회주의 기업발전으로 접목시켜야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기업활동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동기화는 사회주의구조안에서는 항상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다.¹⁴⁾

경쟁을 통한 경제행위는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제행위는 자본주의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제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되었다. 첫째, 경제행위의 기본적인 동인이 사유재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유재산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각자가 공유화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등장하게 되고, 따라서 협동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의 각 구성원은 객관적으로 기업활동에 친화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인 독립채산제¹⁵⁾는 사회주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제행

14) АН СССР, *Предпримчивость при социализме: Обзор польских журналов* (사회주의에서의 기업성) (Москва: АН СССР, 1988), p. 4.

15) 사회주의의 독립채산제는 국가와 기업, 일차적인 경제단위들 사이, 기업내의 생산하부구조들간의, 그리고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인 관계의 체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유인요소가 되는 동시에 기업과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를 자극한다는 점이다.¹⁶⁾ 이 두가지 점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는 공유화된재산의 주인이 전 사회구성원이고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보다 적은 범위에서는 개별기업수준에서의 생산활동의 결과에 책임지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성원들이 경제행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었다.¹⁷⁾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의 소유형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체제는 개인을 집단 속에 매몰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노동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노동과 노동의 결과를 매개하는 직접적인 기제가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사회주의형 경제주체들은 사회전체의 수준 혹은 보다 적은 작업단위의 수준에서도 자신이 행한 노동의 결과와 전체의 결과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사회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는 것이었고,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미미한 것에 불과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경제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그것의 주된 지향점이 개인이 아니라, 전체사회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G. Kyznetsov et al., *Political economy* (Moscow: Progress, 1987), pp. 210-211.

16) В.С. Автоном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функция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капитализма* (경제체제에서 기업가의 기능: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실제문제)(Москва: АН СССР, 1990), pp. 40-42.

17) 이에 대해서 소련의 정치경제학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회적 생산의 발전을 위한 공통된 관심에 기반한 모든 인민들의 이해관계의 출현은 사회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G. Kyznetsov et al., op. cit., p. 170.

이는 각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희석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자인 국가는 피고용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을 유인하기 다양한 수단과 자극들을 개발해야만 했다. 물질적 자극과 비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에서 사용되어온 두 가지 주요한 자극형태였다. 물질적 자극은 임금수준간의 격차, 목표달성과 초과달성 그리고 생산효율성향상 등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의 도덕성과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건설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즉, 개인보다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도록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다.¹⁸⁾

사회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자극은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보상과 이를 통한 소비수준의 확대라는 의미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수입간의 차이는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비동질성에 기인한다. 노동의 조건과 난이도의 차이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의미 및 효율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된다.¹⁹⁾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양적, 기술적 완성도의 차이는 임금차별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서 금속제련과정은 다루기 어려운 고가의 설비에 대한 고도의 숙련과 책임성을 요구하지만, 반대로 단순노동은 별다른

18)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물질적 자극과 비 물질적 자극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서울: 연구사, 1995)의 2장 “정치·도덕적 자극, 전투적 노력동원운동의 정치와 경제”를 참조할 것.

19) Н.М. Рымашевская и др., *Народ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국민복지)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p. 25.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이들 직종에 주어지는 사회적인 위신과 보상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개인이 작업할당량을 초과하거나 기타 생산효율을 증대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물질적인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을 유인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노동에 상응하는 상이한 분배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분화에 대한 사회적 제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수입분화의 기본적인 범위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서 분화는 제한된다. 분화의 하한선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특징지워지고, 상한선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상적인 발전단계와 이에 따른 소비수준의 제한이라는 점에 의해서 설정된다.²⁰⁾ 그리고 사회분화의 심화는 사회주의적 평등의 원리와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질적 자극의 사용은 제한된 의미를 가졌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물질적 자극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잉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정정도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이외에 자본과 기술 부족했고 공업화가 미약했던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소비수준향상을 통한 물질적 자극이라는 노동유인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비물질적 자극을 통해서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동

20) Т.И. Заславская и др,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или уравниловка? Социальный ориентиры обновления: обществом человек* (분화인가 평등인가? 개혁의 사회적 목표) (Москва: Полит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90), p. 303.

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상적, 도덕적 자극과 동원화였다.

공업화의 수준이 낮았고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정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북한의 경우 노동의 집약적인 동원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건설을 이룩해야 했던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소비수준향상을 기초로 하는 물질적 자극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본주의국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건설은 국민들의 소비를 제한하고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또한 달성되는 어느 정도의 성과들도 긴급한 경제건설분야에 투자되어야 했으므로 국민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물질적인 자극보다는 비물질적 자극이 우선시되었다. 그것은 노동에 대한 자극을 정치적 요소와 도덕적인 당위성을 통해서 가하는 것이었다.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유인기제를 상실한 사회주의국가들은 다양한 강제기제들을 필요로 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개인적 목적을 희생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입시켜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구조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내면화시키는 기제들을 개발해야만 했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기반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형성기에서부터 비 물질적 자극(정치사업, 정치 도덕적 자극)을

통한 동원화를 우선시 했다. 이는 공업화수준이 낮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비물질적 자극들, 즉 도덕적 자극들은 사회주의 형성기의 의욕적인 시기를 지나면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소비수준의 확대라는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주의체제의 일상화에 따라서 도덕적 자극은 주민들이 더 이상 자발적으로 내면화시키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제건설에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던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노동을 동원시키는 정치 도덕적인 자극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사회 특히 저발전의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에서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사상사업 계속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회경제체제상의 원인이었다.²¹⁾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사회경제체제에 기반한 일반적인 특성이었다면 역사는 이데올로기와 통치의 실천적인 요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어느 사회에서든지 역사는 전통의 저장고로서 권력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당의 통치권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혁명이후의 역사와 이전의 인물들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당의 접근경로는 이와 같은 과제의 수행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소련의 무력에 의해서 강제되었던 동구의 국가들에서 보다 공산당이 스스로 실질적인 권력을 획득한 사회들(예를 들어 소련, 중국, 유고슬라비아, 중국)에 있어서 훨씬 수월했다. 특히 루마니

21) 박형중, 앞의 책, pp. 140~145.

아의 경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그것은 루마니아 공산당은 1944년 이전까지는 정치적으로 미미한 존재로서 비 루마니아인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적대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기능은 대중들을 교육하고 자극하는 교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루마니아의 경우 1976년의 정치교육 사회주의 문화회의에서 역사를 “애국적 교육과 진보된 사고의 강력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역사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루마니아의 민족주의가 루마니아의 과거의 이상화에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역사는 공식적인 정책과 계획들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적인 공산주의사회로의 행진에 있어서 공산당은 유일한 지도세력이었다. 따라서 개인들의 오류와 계산착오에도 불구하고 당이 “선택된 사람들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어야만 했다. 당이 오류가 없고 절대확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했으며, 이는 2차대전 이후 루마니아의 역사학자들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였다. 특히 루마니아 공산당의 집권후 35년간 실시된 정책과 계획으로 인해 야기된 의미있는 변화들은 역사학자들에게 커다란 제약이었다. 이와 같은 점은 루마니아 공산당이 설명력있는 공식적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을 가지게 되는 주요요인 이었다.

역사의 또 다른 기능은 공산주의체제에 특수한 것으로서, 역사가 당지도자들사이의 정책논쟁과 정치적인 경쟁을 위한 장치였다

는 점이다. 공개적인 논쟁은 당의 단결이라는 이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는 종종 역사에 관한 토론이라는 모습을 띠고 벌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에 관한 토론은 역사가 이데올로기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와 미래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타협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민족과 소수민족, 영토 등을 포함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광범위하게 이용했다.²²⁾

사회주의국가에서 역사는 체제를 위한 일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문학과 예술 등의 영역은 문화영역을 중앙집중시키고, 통제를 위한 상징적,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제한하려는 공산당의 시도가 행해지는 부문이었다. 이와 유사한 시도가 역사부문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공산당에게 있어서 새로운 헤게모니의 창출을 위해 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이 집합의식(consciousness of the 'masses')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을 표출하는 단순한 수단들이었던데 비해서 역사는 통치의 기초 그 자체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역사이론-변증법적 혹은 사적 유물론-에 의해서 정당화시켰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있어서 역사는 과학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게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전망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것이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표현하고 공산당내에서 제

22) Robert R. King, *A history of the Romanian communist part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1), pp. 1~3.

도화되는 역사법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정당화 체제의 초석이었고, 이는 의회민주주의체제에서 대중참여와 동의의 이념을 대체하는 것이었다.²³⁾

소련에서도 거의 언제나 역사연구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의 경우 역사는 교육 및 정치선전을 위한 가치의에 소련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정당화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그것은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이 역사적 합법칙성에서 혁명의 정당성을 추구했으므로 역사학자들에게 자유로운 연구를 허용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의 도래 그 자체가 역사해석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후의 역사는 거의 모두가 ‘신성불가침’의 역사였고 역사적 진리에 대한 해석권은 공산당의 배타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이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어용화되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았지만 객관적인 연구는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역사에 대한 가장 심한 제한은 역사학의 사회주의적 계급성보다는 레닌이나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와 권력투쟁과정이었고 이는 사실의 상당한 왜곡을 수반했다. 혁명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권력투쟁과정에서 제거되었던 구 볼셰비키들은 반역자라는 낙인과 함께 역사에서 추방되었으며 진실이 미시적 차원에서까지 왜곡되고 날조되는 정치적 압력 속에서 역사는 놓여 있었다.²⁴⁾

23) Katherine Verdery, *National ideology under socialism*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p. 215~216.

24) 이인호, “페레스뜨로이카시대의 지식인정책: 역사학의 변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13권 2호 (서울:중소연구소, 1989. 여름), pp. 10~11.

사회주의국가에서 문학, 철학과 달리 역사학은 사회주의사회를 위한 ‘진실’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역사학을 과학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역사가들은 단순한 역사적 해석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실된 지식’을 향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사회주의의 역사가자들에게 과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진실’이었으며,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굴해내야만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사회주의사회의 이데올로기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공산당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역사는 객관적인 사료로서가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검증하고 체제의 정당화와 연관되어서만 비로소 ‘진실’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사회의 역사가들에게 역사는 사적유물론의 전개과정과 계급투쟁의 서술이어야 했으며, 기존 공산당체제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과거를 통해서 증명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전체 이데올로기체제 속에서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다.

북한에서도 역사가 지배의 정당성확보의 수단이라는 사회주의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북한사회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역사는 항상적으로 이용되는 실천적인 기제였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북한에서 역사가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25) Katherine Verdery, *op. cit.*, p. 244.

의미했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연구는 당의 정책과 정치역학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통성확보라는 지배체제의 요구를 수행해야 했다.²⁶⁾

북한의 역사는 현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이자 과학”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역사연구는 항상 지배체제의 변화과정과 정책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되어 대중동원이라는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연구는 처음부터 연구방향과 결과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자율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역사의 영역은 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 특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었다.

26) 김영수, “북한 역사관에 나타난 유물론: 정통성확립을 위한 역사국유화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24호』 (서울: 서강대 출판부, 1992), pp. 156~157.

제 IV 장 북한의 주체사상과 역사관

1. 북한사회의 중심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성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체사상에 준거하여 모든 것이 해석되고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정치사상이며 사회와 문화의 형식이자 일상생활의 지침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이며 국가기구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양성이 배제되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의식의 획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⁷⁾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근본원리인 것이다.²⁸⁾ 따라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식한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력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새로운 더 높은 단계으로 발전 완성되었습니다.²⁹⁾

27) 전경옥, “북한의 주체사상과 정치사회화”, 김옥렬 편, 「북한의 이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p 206~297.

28) 「김일성저작선집 7권」, p. 260.

2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117.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유일한 사상적 기준으로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현실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철학적 원리이자 사회력사적 운동을 인식하는 역사관으로서 그리고 세계개조를 위한 활동적인 원칙까지를 포괄하는 체계로서 전일적인 구성”³⁰⁾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한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도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주체사상의 형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국제적 요인(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원체제에서 다중심적 체제로의 전환,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한 대북 통제력의 약화, 중소분쟁의 심화)과 국내적 요인(김일성체제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권력투쟁, 대중동원을 통한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체사상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한다.³¹⁾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주체사상이 자율성을 지니며 발전했다는 사상결정론 혹은 관념론적 해석이고 그 반대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주체사상의 형성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경제환원론적 해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극단화는 주체사상의 형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주체사상을 사회경제적 조건과 계급관계 등의 사회구성과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당 지도부의 이데올로기구성 노력간의 상호과정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국제적 요인을 추가하는 모델

30)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

31) 최완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 172.

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주체사상을 설명한다.

첫째, 북한은 형성초기에 자본과 기술, 생산력의 수준이 낮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가능했던 자원이 인적요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절실한 요구였다. 따라서 주민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동원하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조건은 주체사상이 민중자발성을 강조하는 동원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기본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체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북한지도부의 이데올로기적 정향, 구성 등이 주체사상형성에 기여한 역할 등이 주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즉,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혁명세력에 비해서 뚜렷한 경력을 가지지 못했던 김일성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획득과정으로 이데올로기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의 사망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체제 등의 상황변화 속에서 개인승배를 지속하고 탈 스탈린주의를 거부했던 북한으로서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국제적 요인에 대한 적응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주체사상의 형성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북한 지도부의 이데올로기구성의 시도, 그리고 당시의 국제적 요인간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는 보다 분석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³²⁾

32)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서울: 풀빛, 1991), pp. 332~334.

사회주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점은 이념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동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에 소련이나 중국처럼 자체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했던 국가들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이식되었던 국가들에 있어서도 엘리트들에 의해서 제시된 이념은 대중동원에 효과적이었으며, 체제건설에 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 이념이 기존의 농민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선동적인 명제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엘리트가 제시하는 이념체계는 이상적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사회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실천강령들을 담은 실천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³⁾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의 동원적 성격의 이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주의체제형성 초기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다. 북한처럼 장기간의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민족자본의 축적과 생산력의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물질자원도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현실적으로 인적 자원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자발성을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건이었다. 주체사상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주체적인 요소로 인민대중과 민족주의

33)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5.

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규범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³⁴⁾

북한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이외에 사회주의체제라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체사상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적인 동기화에 의해서 노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 사적소유가 금지되고 거의 모든 것이 국유화되어 있었으며, 경제의 기본적 기제가 계획체제였기 때문에 노동은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기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극이 필요했다. 사회주의사회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상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는 노동을 유인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사상사업은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과제였으며,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의 주체사상도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정치사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34) 최완규, 앞의 책, pp. 172~173.

당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은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두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 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사업방법입니다.³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역사에 대한 해석과 교양은 실천적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광범하게 수행했다. 특히 자신들의 체제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혁명이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체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북한지도부가 이데올로기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혁명과정에서 북한의 혁명세력의 독자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혁명투쟁과정에서 뚜렷한 정통성을 확보한 다른 사회주의지도자들과 달리 북한의 지도부는 처음부터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소련과 중국의 영향과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내의 다양한 세력 등은 권력투쟁과정에서 김일성세력이 극복해야할 난제였다. 따라서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이데올로기구성을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을 강조했고 자신의 항일 빨치산 투쟁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 그리고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한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피식민지

35) 김일성, “조선 로동당 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결보고”, 「김일성 선집」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3), pp. 545~546.

경험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주의 감정을 일으켰고, 이를 자신의 항일투쟁과정과 연결시켰다.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을 접목시킴으로서 민족주의의 중심으로 자신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의 정통성과 반대세력제거명분의 확보를 의미했다.³⁶⁾

이 과정에서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의 연구나 학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북한사회구성의 중요한 원리로서 해석되었다. 그것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사에 대한 강조에 중심축을 두고 역사관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보하려 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관은 사회구성원들을 교양하고 체제에 통합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과 사회과학자들에게 사회주의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공식적인 임무였다.³⁷⁾

북한사회의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적 변화와 조건은 역사연구의 내재적인 논리를 제약하는 거부할 수 없는 제한요인이었다. 해방직후 북한에서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투쟁의 원리와 노동계급성의 원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중심원리로 등장했다. 이와 같은 초기의 방향성은 1950-6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자주적 정책노선과 함께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주체사관으로 변화한다.

36) 최완규, 앞의 책, pp. 174~175.

37) 김일성, 앞의 책, p. 33.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유일지배와 세습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역사연구도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졌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은 남한과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김일성가계의 우상화 같은 역사적 왜곡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대구분과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남한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으며, 체제의 요구가 역사관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역사관의 형성에 있어서 일차적인 요구였고, 이는 역사적인 사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된 역사관을 북한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한과 심각한 역사관의 괴리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2. 유물사관의 북한적 수용과 변용

역사를 파악하는 견해나 입장, 역사관에는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사적유물론은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규정받기 때문에 사회의 물질적 기초가 역사발전의 근원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관념론적 역사관은 사회의 운동에 있어서 의식이나 정신이 일차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역사발전에 있어서도 의식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입장

이다. 사회주의의체제가 채택한 역사관이었던 사적 유물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역사발전이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의 역사적인 결과로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는 점이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핵심적인 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관은 유물사관과 일정정도 편차를 보인다. 계급투쟁과 같은 사적 유물론의 중요명제를 수용하면서도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수정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기초로 사회발전에 있어서 사상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 사상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사상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은 특수한 견해를 상정한 것은 북한사회경제체제와 사회주의건설과정, 그리고 정치제체상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하고도 공식적인 역사관은 유물사관이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역사의 전개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과, 공산주의 혁명의 당위성과 공산주의사회의 도래가 필연적인 역사법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역사의 연구나 역사관의 형성에 있어서 자율성이나 객관성은 보장되지 못했으며, 혁명의 지속과 체제의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과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주의사회구조의 특성과 북한사회의 특수성때문에 북한의 지배세력은 북한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정치, 사상사업을 강조해야 했으며, 역사는 정치, 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영역이었다. 그것은 혁명전통의 복원을 통한 주체적인 혁명의 강조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넘어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북한에서 역사는 대중교양이라는 북한사회의 중요원리의 하나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과학적 해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³⁸⁾

북한에서 역사의 자율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체제의 유지 및 정통성확보라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역할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과 더불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구성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이고, 이는 역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심각한 제한요소로 작용했으며, 시기마다 변화된 내용들을 반영해야 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인식은 사적유물론의 입장에서 역사해석을 시도했던 초기와 주체사상의 등장과 발전과정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후반기로 대별되어 진다.

북한의 형성 초기에 소련은 사회주의건설의 선진국이자 모범이었다. 따라서 역사에 관해서도 북한은 많은 것들을 소련에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직 주체사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북한에서 중요한 역사의 중심원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적 유물론이었다. 1960년 「력사과학」에 실린 김석형의 언급은 이와 같은 초창기 북한역사학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8) 강만길 외, 「한국사 23」(서울: 한길사, 1994), p. 290.

해방후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교육체계에서 조국역사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역사,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에 입각한 조국역사에 대한 교과서의 편찬사업이 역사가들 앞에 주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업은 청소한 우리 학계에 제기된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보통부분의 교과서들은 이미 전쟁전 시기에 완비되었고 전공과용 교과서를 포함한 대학용 교과서 교재들도 점차 완성되었다. 이 과업은 조국 역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에 입각하여서만 그리고 그 성과들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었다.³⁹⁾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역사학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소련역사학의 성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시기였다. 소련역사학의 연구 및 연구동향 그리고 역사잡지들이 북한에서 주요연구 대상이었다.

해방후 역사학도들은 “쏘련을 향해 배우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의 학습과 함께 쏘련학계가 달성한 성과들을 열심히 학습하였다. 특히 「쏘련공산당 력사(간략독본)」와 「레닌주의 제문제」 등은 우리 역사학도들에게는 큰 방조로 되었다. 쏘련 공산당 기관지 「불세위크」(현재의 「꿈무니스트」)와 역사학계의 월간 잡지의 하나인 「력사 제문제」 등 쏘련의 과학이론잡지들과 교과서들, 단행본들이 청소한 우리 학계의 이론수준을 제고함에 논 역할은 거대하다.⁴⁰⁾

초창기 북한역사연구의 중심으로서 비교적 충실하게 사적 유물론을 도입하고, 이의 관점에서 역사서술을 주장했던 입장과, 역사연구방법론의 소련의존도는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변화하게

39) 김석형, “8.15 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pp. 272~273.

40) 위의 책, p. 273.

된다. 스탈린의 사망이후 스탈린주의에 대한 격하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스탈린주의적 모델을 지향했던 북한의 집권체제에 있어서 정통성에 관한 사상적 근거가 상실됨을 의미했다. 또한 개인숭배체제가 비판받으면서 김일성개인 지배체제의 구축에 소련공산당의 입장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정치투쟁도 역사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 요인중의 하나였다. 6.25와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국내파, 연안파, 남로당, 그리고 소련파등이 반 김일성 전선을 형성하자, 김일성이 소련파와 연안파를 '반당종파분자'라고 제거하게 되고, 독재권력확보의 사상적 명분으로 '주체'를 내세우게 된다.⁴¹⁾ 이러한 과정은 역사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8월 종파사건으로 최창익, 이청원 등 사적 유물론에 비교적 충실했던 연구자들이 이 사건으로 숙청되었기 때문이다.

최창익과 그 줄개인 리청원 등과 같은 자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왜곡하였고 새로 자라나는 우리학계에 종파사상을 선전하기에 급급하였다. 이 자들이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그 두목들과 함께 적발 폭로될 때까지 우리학계에 끼친 죄과는 엄중하다.”⁴²⁾

이 사건은 북한의 역사인식에서 주체사관이 등장하는 하나의 계기였다. 1958년 북한내부의 정치위기가 정리됨과 아울러 1950년대 초반부터 견지되어온 역사학계의 기조는 주체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초기의 유물사관의 수용과 강조기 이후 1950년대 중반이후 부터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60년대 후반

41)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연구」 (서울: 나남, 1993), p. 258.

42) 김석형, 앞의 책, p. 275.

기까지는 주체사관의 태동과 함께 역사해석에서 민족요소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창익, 박창옥, 리청원 등이 숙청된 ‘반중파투쟁’은 사상투쟁을 동반했고, 이는 교조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그 이론적 기반이 된 것이 ‘주체’였다. 교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있었다. 따라서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가 “조선을 연구하라”는 구호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 한국사연구에서 주체가 강조되면서 외래문화의 영향을 축소하고 우리문화의 발전을 내부의 발전논리에 입각하여 자주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했다. 이 시기에 ‘주체’가 강조되면서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 등과 같은 좌편향적인 입장이 비판받았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로 민족문화유산과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던 것이다.⁴³⁾ 이 시기에 아직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주체의 입장만이 당성을 나타내고, 오직 당성의 입장에서만 역사주의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주체중심의 역사연구를 주장하였다.⁴⁴⁾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된 것은 1970년 제 5차 당대회였으며 1974년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과업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역사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체사관인 ‘사회력사원리’에 따라서 한국사인식을 재고하게

43) 김영수, 앞의 책, pp. 167~168.

44) 강만길 외, 앞의 책, p. 302.

된다.⁴⁵⁾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등을 비판했던 196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역사관은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강화과정과 결부되어 변화하게 된다. 역사연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체사상이 공개적인 기준으로 주장된 1972년의 ‘조선사회과학자대회’는 역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연구가 주체사상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회의 양형섭의 발표문은 북한에서 역사학의 임무가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체적 역사연구,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제혁명적 연구, 김일성이론연구, 당과 인민의 경험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학분야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 입장에서 더욱 심화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 죄행을 역사적으로 낱낱이 폭로 단죄함으로써 인민들을 반제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데 힘을 쏟으며 당 및 국가건설이론분야에서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당 및 국가건설이론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 연구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⁴⁶⁾

이 발표문의 소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북한에서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며 널리 해석하는 것”⁴⁷⁾, 즉,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45) 이교덕, 「조선전사 해체」(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2.

46) 양형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 선정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서울: 백두, 1988), p. 264.

47) 위의 책, p. 261.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도 주체사상의 원리에 입각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연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계승 혹은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었고, 주체사관도 유물사관과 상당한 이질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3. 북한의 역사관: 주체사관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체사관, 즉 ‘사회력사원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이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 대중의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에 의거하는 역사관인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이고 이것이 바로 주체사관이라는 것이다.⁴⁸⁾ 따라서 주체사상과 북한의 역사관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현대조선력사’의 서문은 자신들의 지침이 주체사상과 이에 기반한 ‘사회력사원리’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사상, 특히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48) 김정일, 앞의 책, p. 75.

사회력사원리를 역사적 사실들의 평가를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았다.⁴⁹⁾

즉,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구성의 핵심인 주체사상의 내용을 역사해석의 범주에 적용시키는 것이 북한역사관인 것이다.

주체사상과 사회력사관은 별개의 사상이 아니며 주체사상 자체가 새로운 사회력사관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주체사관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함께 주체사상의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을 이룬다.⁵⁰⁾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이전의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관’(유물사관)과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역사관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역사관이란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으로서 주체사상이전의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관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관계에서 보는 물질중심의 사회력사관인데 반해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역사원리, 즉 주체사관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사회역사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이들의 역할에 의하여 사회역사가 발전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과 입장이 주체사상의 사회역사관이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를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는 새로운 견해와 관점,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근본특징이 “사

49)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1983년 판)」 (서울: 일송정, 1988), p.13.

50) 리상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87.

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적 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¹⁾

‘사회력사원리’는 노동계급이전의 역사가관들은 관념론적이었고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회역사 해석에 있어서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유물 변증법적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가관이라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가관은 최초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원리를 확립하고 사회역사과정을 물질적 부의 발전과정으로, 사회경제구성체의 교체과정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유물사가관이 사회역사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점을 밝혀 큰 역사적 공적을 남겼다고 한다. 유물사가관에 대한 평가에서 역사창조과정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인류역사를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하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가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²⁾

51) 위의 책, p. 86.

5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7.

북한의 사회역사원리는 가장 중요한 역사발전의 기제로 인민대중을 상정한다. 유물사관의 원리들은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 법칙을 밝혀 주었으며,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역사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역사원리는 새로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역사관이고 이것이 바로 주체사관이라는 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⁵³⁾

따라서 ‘사회력사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를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사회력사원리’는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첫째로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표현은 역사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자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운동도 물질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 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 생성 발전한다는 것이다.

5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71.

“사회력사원리”에 따르면 이 사회적 운동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다. 반면에 착취적 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은 근로 인민대중이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역사의 전진을 멈춰 세우고 되돌려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노동계급의 영도에 의해서 가능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혁명과 사회주의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하여 수령의 역할을 정당화하고 있다.⁵⁴⁾

둘째로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주장은 인류사회의 역사를 사람들이 사회적 예측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열된 이후에는 인민대중의 역사는 착취계급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역사이고 이를 통해서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고 사회가 발전하여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노예폭동과 중세농민반란 등은 모두 인민대중의 자주성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고 자본주의제도의 철폐와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철폐이고 이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성확보의 노력도 국제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⁵⁾

54) 위의 책, pp. 75~78.

55) 위의 책, pp. 78~83.

세 번째 언급은 “사회력사적 운동은 창조적 운동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를 인민대중에 의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투쟁을 동반하며, 이는 곧 낡은 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여 나가는 계급투쟁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류최고의 이상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산주의운동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⁵⁶⁾

마지막으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이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의식성의 발현이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사람들의 역할이란 결국 그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즉 사상의식이 혁명과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급적 성격과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 운동은 높은 의식성을 요구하며, 공산주의사회도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창조행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정치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혁명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56) 위의 책, pp. 83~85.

57) 위의 책, pp. 86~89.

그러나 북한의 역사관은 그 자신들이 창조적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다.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서 파생된 2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요소들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의식의 세계 역시 변화하게 된다. 그 반대인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적 유물론의 명제가 주체사관에 와서는 전도되고 만다. 사회발전에서 인간의 의식, 사상,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북한의 주체사관은 관념론적 입장의 이상이 아니다. 역사발전이 사상, 정신적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역사발전이 어떤 특정한 뛰어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귀착되고 만다. 탁월한 개인이란 바로 '수령'이고, 수령에 의해서 창시된 주체사상은 역사발전을 해명한다는 것이다.⁵⁸⁾ 다시 말해서 북한의 사회력사관은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와 김일성지배체제의 정당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관의 기원인 사적 유물론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관념론의 요소들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58) 하수도, 「김일성 사상 비판-유물론과 주체사상-」(서울: 백두, 1988), pp. 120~121.

제 V 장 북한의 역사관과 지배체제의 정당화

북한의 역사관은 북한의 지배체제 특히 수령의 유일영도체제의 정당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일성의 활동과 관련되는 현대사부분은 북한의 역사관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주체사관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북한의 현대사인식이다.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수령’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현대사의 시대구분을 수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926년으로 하고 있다. 수령의 존재가 현대사의 시대구분의 기점으로 삼을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개시로부터 막을 올린 우리 인민의 현대역사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된 혁명적 전환의 역사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싸운 보람찬 투쟁의 역사, 이 땅위에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장엄한 창조의 역사이다.....최근에 우리는 조선 현대사의 시점문제도 새롭게 해석하였다. 1926년 ‘타도 제국주의동맹’(E·C)의 결성을 우리 나라 현대역사의 시발점으로 규정하였다.....‘E·C’의 결성은 새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으며 ‘E·C’가 결성됨으로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성의 원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E·C’의 결성이 조선 현대 역사의 시점으로 되는 기본근거이다.⁵⁹⁾

북한이 인식하는 현대사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이 영도해온 혁명투쟁의 역사이고, 주체사상의 구현과정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관인 주체사관을 떠나서는

59) 전영률, 앞의 책, pp. 305~306.

현대사의 흐름을 똑바로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⁰⁾ 주체사관의 기본원리는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설정하고,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사회력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하여 인간과 사상을 역사해석의 기본원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사상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수령론’의 정당화가 역사인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상·의식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북한의 역사관은 수령지배체제의 정당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도’라는 개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이들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며, 대중과 지도를 결합하는 것은 혁명운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한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에만 “사회력사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다그쳐 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혀준다고 주장한다.⁶¹⁾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하여야 합니다. 인민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

60) 김한길, 앞의 책, p. 13.

61)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앞의 책, p. 24.

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정도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정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옹기 운영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⁶²⁾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역사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사상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수령론’을 역사인식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역사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의식이 중요하지만 수령의 지도와 결합하지 않으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 대중들을 이끌고 선도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탁월한 수령 김일성’이라는 주장이 역사 속의 다른 대중적인 지도자들과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점을 ‘로동계급의 등장이후’라는 명제를 도입하여 해결한다.

62) 김정일, 앞의 책, p. 77.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취계급사회에 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착취계급사회에서도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인민대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사대호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역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민대중은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선진적인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됨으로서 비로소 역사무대에 널리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역사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었습니다.⁶³⁾

역사의 주체가 인민이지만 이들이 실제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출현이후이고 이 역시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과 조직으로 결속될 때에만 혁명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에서 주체와 지도의 문제는 노동계급출현 이후의 현존하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으로 귀착되고 만다.

지도의 문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여 ‘수령의 지도’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정치적 생명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생명은 위대한 수령만을 모신 인민만이 지닐 수 있다고 하여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임을 강조한다. 수령이 사상과 투쟁의 무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을 이끌어

6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320.

준다는 것이다.⁶⁴⁾ 북한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그리고 대중의 통일체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만 자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당과 수령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수령을 ‘생명체의 뇌수’라고 하여 실질적인 중심으로 놓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관한 다음의 언급은 이와 같은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 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⁶⁵⁾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인 수령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그 실현 방법을 명백히 하는 혁명사상을 창출할 것, 당·혁명조직을 건설하고, 인민대중을 단결시킬 것,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 건설사업을 지도할 것, 그리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단결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은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당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리고 수령이 대중을 지도하고 통일의 상징이 된다고 하여 권력과 권위를 배타적

64)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히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1976. 2. 14.

65) 김정일, 앞의 책, pp. 320~321.

으로 점유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⁶⁶⁾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수령은 생명체의 활동과 기능을 제어하는 두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역사해석에서 수령의 활동했던 현대사 부분은 수령의 역사적인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전사」의 18권 가운데 7권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사’에 할당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역사에서 김일성의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준다. 또한 「전사」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등장하는 회수도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해준다. 현대이전을 서술한 15권의 경우 김일성의 교시가 평균 20회 나타나지만 ‘항일무장투쟁사’의 경우는 그 인용회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3권부터 33권까지는 평균 122회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북한의 현대사가 곧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⁶⁷⁾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한 수령·당·대중관은 김일성에 대한 수령칭호와 개인숭배 그리고 유일사상화에 대한 정당화이며 이를 생명체 개념으로 논리화한 북한에 특유한 지배구조의 합리화시도였다.⁶⁸⁾ 그리고 북한의 역사관은 이와 같은 수령체제의 정당화를

66) 스즈키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pp. 220~221.

67) 이교덕, 앞의 책, p. 171.

68) 김성철, 앞의 책, p. 56.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역사가 수행하는 주요기능과 우선적 목적이 무엇인지는 「현대 조선력사」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 영광에 찬 현대역사에 대한 연구에 힘을 집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역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성과작들을 세상에 내놓았다.⁶⁹⁾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폭력에 기반한 강제만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의 동의와 성원들의 내면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성원에 대한 사회화와 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일상화에 중요한 기제가 된다. 북한 역사관의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은 교육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화기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내면화를 강요한다. 북한의 획일적인 역사관은 주민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고 역사연구의 성과들은 대중교양과 사상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역사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근로자들의 애국주의 교양과 계급교양에 적극 복무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높이고 조선 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⁷⁰⁾

69)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역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p. 306.

70) 위의 책, p. 308.

지배체제 정당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역사관은 역사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실제적인 역사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이데올로기 주입기제로 사용된다. 북한의 고등중학교의 수업시간표는 북한의 역사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역사수업이 총 280시간이지만 이외에 ‘김일성력사’ 195시간, ‘김정일혁명력사’ 110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더구나 이와 별도로 ‘김일성혁명활동’ 150시간, 김정일혁명활동 112시간을 수업에 포함시키고 있다.⁷¹⁾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인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며, 지배체제 정당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 역사연구는 매우 심각한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북한의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 등에도 북한역사관의 편향사례가 나타난다. 북한의 역사교과서에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자료의 제시없이 사실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점, 김일성의 주체사관 및 김일성의 교시나 훈시 등을 역사서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의 역사교과서가 의도적으로 특정시기를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고등중학교 ‘조선력사’에서 근대사를 다루는 4학년교과서의 3/4정도가 1866년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1866년은 김일

71) 통일원, 「북한교과서분석」 (1992), p. 77.

성의 증조인 김응구가 사만호를 격퇴했다고 주장하는 사만호사건이 일어난 시기이다.⁷²⁾

북한에서 역사가 주체사관에 의하여 해석되었기 때문에 역사해석의 방식이 다른 남한과의 심각한 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피지배계급의 반봉건 투쟁과 노동계급의 우선성, 그리고 외세에 대한 투쟁의 강조에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은 시대구분에서 남한과 명확한 차이를 나타낸다. 역사의 전개를 원시시대, 노예제사회, 봉건제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유물론의 입장에서 역사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에 기반한 사회주의사회의 도래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또한 현대사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현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역사인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서 현 북한 지배체제의 정당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72) 남북문제연구소,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 (1994), pp. 96~98.

<남북한의시대구분>73)

조선전사(33권)					한국사(22권)				
비율	권수	왕조	시대	시대구분	시대구분	시대	권수	비율	
15권 (45%)	1	선사시대	원시시대	고대	고대	선사시대	1	20권 (19%)	
	1	부족국가시대	노예소유자사회			부족·삼국시대	2		
	2	삼국시대	봉건사회성립	중세	중세	고려시대	전기		3
	1	통일신라	봉건사회발전				후기		2
	5	고려·조선	봉건적 예속강화		근세	조선시대	전기		4
	2	조선후기 조선말기	자본주의적 관계발생 봉건제도의 위기				후기		3
	3	1860 ∫ 1925	근대사회				근대		근대
	18권 (55%)	7	1926	항일무장투쟁사	현대	현대	1910 ∫ 1945		2
2		1945	민주건설사						
3		1950	조국해방전쟁사						
6		1953 ∫ 1980	사회주의건설사						

73) 신형식, 『남북한 역사관의 비교』(서울: 솔, 1994), p. 27.

근현대사는 북한체제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분이다. 근현대사에 대한 북한 역사관의 중심원리는 근현대사의 전개과정과 자신들의 정통성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로 남한체제의 형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정권의 형성과 남한정권의 형성에 관계된 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상반되게 나타난다. 3.1운동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정권의 형성요인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실례로 당시 8살이었던 김일성이 3.1운동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한정권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관계된 부분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도 부인하고 있다. 그 실례로 북한은 임시정부에 대해서 남한과 달리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⁷⁴⁾

북한의 역사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수령론의 정당화라는 목적에 이용됨으로서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여했다. 북한에서 혁명의 주체는 당, 대중, 그리고 대중의 통일체이다. 그러나 이 통일체는 수령의 일인 지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하여 수령체제의 정당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당·대중관은 김일성에 대한 수령칭호와 개인숭배 그리고 유일사상화에 대한 정당화에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생명체론은 이를 생명체

74) 위의 책, p. 37.

개념으로 전화시킨 북한지배구조의 합리화 시도였다. 북한의 역사관은 수령체제의 정당화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북한 역사관의 주요기능과 우선적 목적은 김일성지배체제의 정당화를 역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히 김일성의 활동과 관계된 현대사부분은 이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편향된 방식으로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역사가 동원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역사관은 자율적인 역사인식과 객관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교시라는 주어진 체제의 요구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이를 기초로 형성된 역사관은 전체이데올로기구조의 중요부분을 구성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현 지배구조, 즉 김일성체제의 정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 VI 장 북한 역사관의 평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역사관은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역사는 북한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꾸준히 동원된 체제정당화 기제였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는 적극적으로 체제의 안정에 기여했다. 북한에서 역사가들은 당과 수령의 교시와 방침에 따라 결과의 방향성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역사관은 전체이데올로기구조의 중요부분을 구성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거의 언제나 역사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는 교육 및 정치선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주의 정치체제 자체의 정당화기능을 수행했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이 역사적 합법칙성에서 기원한다는 사회주의의 원리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역사란 계급투쟁의 과정이며 봉건제와 자본주의의 출현 그리고, 자본주의모순의 심화의 필연적인 결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한다고 강조한다. 즉,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체제의 출현은 역사적인 필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역사에서 혁명의 정당성을 추구했으므로 자유로운 역사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역사는 언제나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을 발굴하고 강조해야했다. 공산사회의 도래 그 자체가 역사해석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후의 역사는 거의 모두가 '신성불가침'의 역사였고 역사적 진리에 대한 해석권은 공산당의 배타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이었다. 공식적인 역사관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하는 유물론으로 귀착되었고 이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법론이었다.

부르주아적인 계급적 관점의 극복과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관점은 이 실제의 본질적·내적 연관으로 뚫고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불철저함, 비일관성, 결함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노동자계급의 관점, 노동자계급의 이익,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입장은 추구되고 있거나 이미 달성된 통찰의 적합성을 위해 핵심적인 인식과정에 대한 결정적인 시발점이다.⁷⁵⁾

따라서 북한도 역사인식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에서 나타나는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역사관의 기초가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력사서술전반에 걸쳐 철저한 주체적 립장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건, 인물평가에서 로동계급적 선을 세우며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북고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⁷⁶⁾

북한은 북고주의를 시대적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떠나 과거를 찬미하는 우경적인 편향이라고 지적한다. 북고주의는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영웅을 동일시하고, 적대적 계급사회가 지니는 불건전한 문화와 사상을 재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역사의

75) W. Eichhorn et al., *Marxistisch-Leninistisch Philophie*, 이상훈 외 역, 「역사적 유물론」(서울: 동녘, 1990), p. 340.

7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7), pp. 1~2.

단계성을 무시하고 노동계급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입장은 좌경적 민족적 허무주의라고 비판한다. 과거의 것이라도 ‘진보적, 인민적인 것’이 있으며 이것들은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나 북한역사관의 특징은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주체적 입장에서 파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을 거친 이후 북한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주체성, 즉 주체사관으로 변하게 된다. 주체사관의 등장이 역사연구의 객관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주체사관 즉, 사회력사원리가 결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수령론의 정당화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수령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대사부분 등은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왜곡과 조작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수령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소한 사실이라도 크게 부각되거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그 예로 북한의 「현대조선력사」의 1/4을 차지하는 항일무장투쟁부분은 김일성의 개인사라고 할만큼 김일성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차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대로 객관성 있는 역사적인 기준에 비추어 중요한 다른 많은 사실들이 사상되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의 역사관은 역사서술의 방향성에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 기본방향이 인민들의 투쟁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경우 생산양식내의 모순이라는 기본명제를 바탕으로

77) 강만길 외, 앞의 책, p. 314.

반봉건투쟁과 반의세투쟁, 그리고 근대이후의 경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역사전개의 기본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배계급인 왕과 귀족계급을 착취계급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반대로 피지배계급인 노예, 농민 등의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역사서술이 주체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관이 역사서술의 기준임은 물론 역사서술의 근거로서 김일성의 교시가 빈번하게 인용된다. 그 예로 북한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인 「조선력사」(3·4)에만 김일성의 교시가 68회나 인용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현대사부분이 가장 부각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이상화와 김일성의 이상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는 한민족의 본토기원설 및 고구려사 위주의 고대사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의 단군통발굴 및 복원도 면밀한 과학적 근거없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역사인식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무시되며 대신 김일성의 무장투쟁이 가장 중요한 현대사의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넷째, 북한의 역사인식체계에서는 사실적 해설보다 의미부여가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와 당의 싸움'은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으로, '개화와 척사의 대립'은 '구미열강 및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를 반대한 조선 인민의 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전 사회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에 관련된 것이었고, 인민들의 투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투쟁의 목표에 부적절할 내용은 왜곡되거나 조작되고 그 의미가 의도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역사인식 체계는 사실표현에 있어서 선동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남용하고 있다. ‘봉건지주놈’ ‘왕놈’ 등의 표현은 북한의 역사서들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같은 명칭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일차적인 가치판단이 이미 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그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들이므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일률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⁷⁸⁾

이와 같은 북한의 역사인식은 역사전반에 걸쳐서 남한과 상이한 해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북한의 역사인식과 남한의 역사해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다.

78) 신형식, 앞의 책, pp. 38~43.

<남북한 역사해석비교>79)

	북한	남한
벌금 8조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악독한 형벌을 들씌우며 제놈들의 재산과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법.(『조선력사』 3, 30쪽)	이 법의 내용으로 보아 고조선 사회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국사』(중학교)상, 13쪽)
안시성의 승리	이 전투에서 침략자의 우두머리인 당나라 높은 고구려 군상의 화살에 맞아 왼눈이 빠졌다 (『조선력사』 상, 58쪽)	고구려는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안시성 싸움에서 당군을 크게 무찔렀다.(『국사』 상, 34쪽)
불교	불교는 미신적이며 허위적인 교리로서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봉건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복무하였다. (『조선통사』 상, 125쪽)	불교는 종래의 원시종교나 시조신을 대신하여 고대국가통치의 일원적인 사상적 지주가 되었으며, 왕실의 불교장려는 불교를 호국신앙의 성격을 띠게 했다. (『한국사통론』, 107쪽)
유교	유교는 봉건지배계급의 특권을 절대화한 대의명분의 정치적 견해와 봉건도덕질서의 합리화한 삼강오륜의 반동적 윤리관으로 구성된 반동적인 봉건사상 체계이다. (『조선통사』 상, 125쪽)	유교는 우리 국민의 윤리관이거나 덕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사회와 국가유지의 운영원리인 동시에 인간의 도리를 표시한 실천규범으로서 충효사상을 일깨워주었다. (『한국전통사회의 역사의식』, 137쪽)

북한에서 역사관 형성의 기초가 되는 역사연구의 방향성은 획일화되어 있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관인 주체사관과 이에 따르는 노선을 벗어난 역사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북한의 역사학계는 자신들의 역사연구의 업적을 자평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역사원리에 따라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역사관인 주체사관의 방법론만이 과학적인 것이 되고 이에 기초하여 왜곡된 사관을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위대한 주체의 사회력사관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역사가 정연하게 체계화됨으로써 오래 동안 해독적 작용을 하던 사대주의와 허무주의로 가득찬 낡은 역사관이 허물어지고 조선인민의 자랑찬 역사에 대한 왜곡과 날조를 짓부시게 되었다. 또한 안팎의 반동사가들에 의하여 위조되고 형클어졌던 조국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바로잡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투쟁과 창조의 역사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⁸⁰⁾

그러나 북한의 역사관에 대한 남한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북한의 역사관, 역사학에 대한 남한의 평가는 대략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북한의 역사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초기입장인 유물사관은 물론 이후의 주체사관이 김일성의 이상화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는 북한의 역사관을 초기의 유물사관과 이후의 주체사관부분으로 구별하여 초창기의 업적을 평가하는 관점이다. 즉, 1960

80) 전영률, 앞의 책, p. 308.

년까지의 연구가 단기간에 한국의 역사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던 점은 평가해야하며, 이는 이후의 주체사상에 의해서 역사연구가 제한되고 편향되었다는 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는 북한역사관의 이해는 북한사회에 관한 이해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북한 역사관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⁸¹⁾

그러나 북한의 역사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북한에서 역사인식의 다양성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한되었고, 자율성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실천적인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인식이 어려웠으며, 반대로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인한 사회주의건설과정과 사회주의체제일반과 북한의 특수성이 결합한 체제의 요구가 역사관의 형성에 깊이 개입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은 체제의 정당화와 안정화라는 요구에 끊임없이 종속되었던 것이다.

81) 강만길 외, 앞의 책, pp. 316~318.

제 VII 장 결 론

역사는 사회의 공통된 기억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주어진 정당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공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따라서 지배세력들은 체제의 정당성과 관계가 깊은 사실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현재의 체제형성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최근 현대사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현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많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은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사실의 이해에 있어서 가능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적인 사안들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꾸준히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관형성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역사로부터 도출되는 정당성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역사관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체제라는 고유한 틀 속에서 형성되었다. 사회의 다양성이 용인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의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회주의사회의 역사관 형성은 자율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역사해석의 문제에 개입했다. 북한의 경우도 역사관의 형성은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 지배체제의 정당화라는 체제의 요구에 의해서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역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기여해야 했으며, 북한주민들은 의도된 역사관의 내면화를 강요받았던 것이다.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성의 중심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가치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역사관도 주체사상에 준거한 주체사관이 공식적이고 유일한 사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북한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사업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제정당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역사관의 형성과 이에 대한 대중적인 교양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체제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역사 속에서 혁명전통을 부각시키고 이를 자신들의 혁명과 결부시켰다. 따라서 북한에서 역사관의 형성은 객관적인 역사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형성과 존속의 중요한 원리로 이용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을 교양하고 체제에 통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 즉,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구성원들을 동원하고 사회에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북한의 역사관은 김일성사후의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 체제의 정당성이 김일성체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체제라는 세습체제의 특성은 기존의 역사관의 급격한 변화를 현실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사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강조되는 것은 현 지배체제와 김일성과의 연관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로부터 주어지는 정통성확보를 추구하는 시도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관은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역사관은 남한과의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인식에 기본원리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도 상당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자 '기억'이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과거를 인식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편향된 역사관과 이를 통하여 해석된 역사적 사실들은 간접경험으로 의식 속에서 당연시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역사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극복되기 쉽지는 않은 난제이며, 통일이후에도 민족통합에도 저해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역사관의 차이의 해소는 제도적, 정치적 통합 못지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통일과정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정치적 해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역사학계의 교류에 의해서 역사관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체제의 정통성과 유지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는 북한역사관의 형성과 남북한간의 역사관에 있어서의 이질성의 형성요인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일 것이다. 남북한간의 역사관 차이의 해소방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남북한 체제의 형성과 거리가 멀고, 이데올로기적 오염이 비교적 덜한 부분의 역사해석에서부터 공통점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공동의 연구가 필요한 고대사 등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인식의 공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역사관의 동질화에 기여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보다 심한 부분 예를 들면 현대사 등은 매우 민감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의 견해차가 가장 심한 부분이 현대사이고 이는 남북한체제의 형성의 정통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현대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체제의 형성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 즉 북한체제의 요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된 부분이 현대사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인식차가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역사해석의 오류가 보다 확실하게 규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역사관의 동질화의 노력은 체제의 영향이 비교적 덜한 부분에서부터 역사인식의 공통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역사는 그 특성상 정치와 밀접히 관련을 맺게 된다. 역사적 해석 자체가 현재의 정치 및 사회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역의 관계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즉 역사관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역사관의 평가에 있어서 체제와 시대를 떠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사회 내의 역사관의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역사관 특히 북한의 역사관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그 자체가 역사를 매우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역사인식이 매우 어려웠으며,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인한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사회주의체제일반과 북한의 특수성 그리고 북한지배층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대한 관심이 결합한 체제의 요구가 역사관의 형성에 깊이 개입했다는 점을 고

려해야만 한다. 그 결과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보다 지배체제의 정당화를 강요하는 역사관의 형성이었던 것이다.

빈 면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박 형 중*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관료제적 연줄형성의 제도적 배경

제 III 장 관료제적 연줄의 성격과 기능

제 IV 장 관료제적 연줄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

제 V 장 결 론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사업부, 정치학 박사

빈 면

제 I 장 서 론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구체적인 인간적 접촉과 경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들 나라에서 인간관계, 연줄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과 교역과 투자를 시작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경우에 중국 측의 당과 행정부의 고위층과의 인적관계형성이 사업상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는 그쪽의 사경제 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라 당과 행정 경제기관의 실력자 또는 유력한 기관이나 실력자를 배후로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듯이 보이는) (정치)경제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와 관련하여 인간관계 또는 후견-피후견 관계의 중요성은 경제의 내부운영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련의 공장관리운영에 관한 문헌을 보면 거의 빠짐없이 'Blat' 또는 'Tolkach'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Blat'는 지배인이 공장운영에서 직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풀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거래와 상호 호혜관계에 기초한 여러 경로의 인적관계와 후견-피후견 관계를 동원하는 것, 그리고 'Tolkach'는 기업이 그러한 문제 해결을 전담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일종의 공장 직속의 전문 로비스트를 지칭하고 있다.¹⁾ 중국의 문헌을 보는 경우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1) Joseph S. Berliner,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p.182~230.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이른바 ‘關係文化’²⁾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가 계획체계의 공식관청과 조치들 이외에도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비공식적 관계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사회-경제 문제들이 처리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사회주의 관료제에 특유한 인적 연출관계와 그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보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연출, 후견-피후견 그룹은 공산주의적 국가 지도부의 최상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상층그룹과 중-하급 그룹 사이, 일정 지역 단위의 관료들 사이, 그리고 중-하급의 실무급 관료들 사이, 또한 당-국가 관료들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료제적 인적 연출 및 후견-피후견 관계가 관찰된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료제적 연출과 후견-피후견 그룹은 모든 단위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최고지도부를 둘러싼 권력 정치적 차원의 인적 연출 그리고 후견-피후견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³⁾ 그러나 북한 관료체제의 중-하위 단계 및 기업소 운

2)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Yanjie Bian, "Guanxi and the Allocation of Urban Job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140 (December 1994), pp.971~999; Thomas B. Gold, "After Comradeship: Personal Relations in China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a Quarterly* No.104 (December 1985), pp.657~675.

3) 대표적으로 전현준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그런데 이 연구는 단순히 ‘현상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하고

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제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본 연구는 중-하급 관료 및 기업소 운영단위에서의 비공식 관계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고지도부 차원에 대한 분석은 소수 인물들 간의 권력정치적 차원의 관계 분석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한층 많은 '보통사람들'을 포함하며 그들의 사회-정치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또한 그들의 인간적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하위 단계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 권력을 둘러싼 권력정치적 관계보다는 생산과 생활을 중심으로 한 인적인 연줄 그리고 후견-피후견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역 차원 그리고 중하급 실무 차원, 기업소 운영의 차원 등에서의 경제관리 및 생활관계 등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관료체제의 구조와 기능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관료체제의 구조와 기능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중-하급 단위의 관료제적 연줄 그리고 후견-피후견 관계에 관하여 서술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그러한 관료제적 체제의 1) 구

있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지도부 형성 과정에서 후견-피후견 그룹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그룹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과 관련하여 상이한 학문적 입장들이 존재한다. 다음의 문헌을 참고. 먼저 일반적으로 the symposium entitled 'Clientelism' i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12, no.2~3 (1979), pp.159~211;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 중에서도, *The China Journal* (July 1995, Issue 34)의 "The Nature of Chinese Politics"라는 논문기획에 포함되어 있는 학자들의 입장들; 소련과 관련해서는 T.H.Rigby and Bohdan Harasymiw, *Leadership Selection and Patron-Client Relations in the USSR and Yugoslavi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참조.

조와 2) 운영에서 유발되는 관료제적 연줄 및 후견-피후견 그룹의 1) 형성원인과 2)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관료제적 구조와 운영 과정에서 중하급 당-정 관료들이 1) 상급기관과, 2) 상호간에, 그리고 3) 일반주민과, 무슨 일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는가, 그러한 가운데서 인적 연줄과 후견-피후견 그룹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를 밝힌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북한 중-하급 관료, 그리고 주민들의 인격형성이 영향받고 있다는 것 등을 서술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 관료체제에서의 갈등의 성격과 처리방식의 특성도 밝혀낼 수 있다. 즉, 북한의 공식 문건은 1) 중앙과 중-하부단위의 이익은 완전일치하고, 2) 중앙은 하부단위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조종하고 있으며, 3) 하부단위들이 중앙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령론’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질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공식적 주장이 이데올로기적 허위라는 것이며, 그 논증을 위해서 김일성 자신의 연설들을 분석한다. 즉 북한에서 권력중앙과 하부단위 간에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중앙과 하부간에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갈등은 공개적인 대결로 드러나지 않는다. 중앙은 중앙대로, 중-하부는 나름대로 이러한 갈등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역시 드러나지 않지만 반응하고 있다. 북한에는 자율적 이익단체와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갈등을 갈등 그 자체로

노골화시켜 공개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갈등은 은밀한 성격을 갖는다.⁴⁾ 관료제적 연줄의 축적과 동원, 후견-피후견 그룹의 형성은 그러한 갈등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중-하부가 권력중앙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은밀한 수단이다.⁵⁾

이러한 연구에는 자료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경험적 사례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⁶⁾ 그러나 자료상의 어려움의 한계 안에서라도 밝혀 내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김일성

4) Rigby는 '은폐된 정치'(crypto politics)라는 개념을 써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T.H. Rigby, "Politics in Mono-organizational Society", in A. Janos, *Authoritarian Politics in Communist Europe*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76), pp.36~37.

5) John P. Willerton, *Patronage and Politics in the USS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5~41의 서술도 참조.

6) 서방 학자들의 사회주의 국가 실패에 대한 연구는 망명자들과의 인터뷰, 또는 소련의 경우에는 신문의 독자 편지의 내용 분석에 의존했던 경우가 많았다. 독자 편지는 체제의 기본 틀을 인정하면서 체제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시정 사항, 불평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편지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해 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러한 분석의 사례들로서 앞의 Berliner, Walder의 책 그리고 다음을 참조: Hansgeorg Conert, *Die Ökonomie des unmöglichen Sozialismus: Krise und Reform der sowjetischen Wirtschaft unter Gorbatschow* (Münster: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1990);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New York: M.E.Sharpe, 1986); 북한의 망명자에 대한 집중 인터뷰는 많이 존재하나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구체적 실패에 대한 집중 인터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신문에는 소련 신문에 실리는 것과 같은 성격의 독자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북한 망명자들과의 인터뷰는 허가되지 않았다.

저작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주제를 분석한다. 김일성 저작집이 이러한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체제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김일성의 연설 내용이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선동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일성 연설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북한 주민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열정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권의 성과는 과장되어 있고, 실패는 감추어지고 있다.⁷⁾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은 이러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기능 중의 하나는 북한의 간부와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기능이다.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은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일련의 결함들이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기능은 비판 기능이다. 김일성의 연설은 북한 경제 체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한 지적들, 당-정의 상-중-하급 간부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시정 요구와 그에 대한 세세한 지침들로 충만해 있다.⁸⁾

7) 실패가 감추어지는 방식은 주로 두 가지 이다. 그 첫째는 실패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실패의 실제적 원인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이유로서 언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의 정책은 항상 옳으나 그럼에도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로 부터의 유산’(봉건적 잔재), ‘제국주의자의 파괴행위’, ‘하급자의 태만’ 등 때문이다. 당정책 자체에 대한 의문은 금지되어 있다.

8) 김일성 저작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경제 관계 서적들, 사전 등의 이데올로기적 서술 방향과 대비된다. 후자는 북한의 경제관리운영체계의 기능상의 여러 문제들이나 당-정 경제관료의 행태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대신에 북한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 취해진 정책의 정당성과 무오류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으

북한 전체 관료체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분야 관련 관료체이다. 따라서 경제분야 관료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 관료체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⁹⁾ 본 연구는 김일성의 경제관리운영문제에 관한 연설들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한다. 그를 통해 북한 관료체제의 구조, 운영목표, 그리고 실제 운영상황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에서 중-하급 단위에서 나타나는 연줄과 인간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밝힌다. 김일성의 연설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서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파편적 지침들로 이루어진 김일성문헌의 내용을 넘어서는 경제관리 운영의 전체적 틀과 문제들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와 그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서방의 문헌들을 참고로 한다.¹⁰⁾

로 충만해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권,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서울: 이성과 현실, 1988).

- 9) 자본주의적 남한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직과 경제관리가 분화되어 있다. 정부도 경제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것은 주로 간접적 방법에 의거한다. 직접적 생산은 정부의 행정조직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경제 주체가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북한에서는 행정과 경제관리가 융합되어 있으며, 국가의 행정조직이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북한의 정부기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적 생산과 그 부수업무를 관리하는 경제관료체이다. 한 예로서, 제9차 정무원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리 1명, 부총리 10명 (그중 5명이 경제관련 분야 부장 및 위원장 겸임), 부장 및 위원장 41명, 그 41중 11명이 비경제분야, 나머지 30명이 경제관련 분야이다. 북한의 내각 그리고 정무원의 기구변동 및 인물에 대해서 김공열, 「북한관료체론」 (서울:대영문화사, 1993), pp.163~171, 여기서는 p.171 자료에 의거 계산. 이밖에도 당기구와 지방 행정기구도 경제관리에 참가하고 있다(이 논문의 제2장 및 3장 참조).
- 10) 이미 앞서의 각주에 등장한 문헌들 이외에도 많은 문헌이 있지만 특히 다

제2장은 연줄관계 축적과 활용을 체제기능상 중요한 요소로서 만들고 있는 체제의 기본구조와 그 운영 목표에 대하여 서술한다. 서술의 주제는 1. 당-국가의 다중적 위계체계, 2. 고속성장전략과 경제의 불균형이다.

제3장은 앞서의 제도와 그 운영목표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관료제적 연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서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 관료체제에서의 연줄의 기본성격, 2. 다중적 통제체제와 연줄관계의 축적과 동원, 3. 경제운영의 혼란과 연줄의 축적과 동원 등이다.

음을 참조: Wlodzimierz Brus and Kazimierz Laski, *Von Marx zum Markt* (Marburg: Metropolis, 1990); Jiri Kosta, *Wirtschaftssysteme des realen Sozialismus: Probleme und Alternativen* (Köln: Bund-Verlag, 1984); Alec Nove,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0); J. Wilczynski, *Das sozialistische Wirtschaftssystem* (Köln: Kiepenheuer & Witsch, 197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2); Paul Gregory and Robert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4); 경제 및 공장관리운영에서 당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Berliner, op.cit.; Walder, op.cit.; Peter Rutland, *The Politics of Economic Stagnation in the Soviet Union: The role of local party organs in economic manag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3); Jerry F. Hough, *The Soviet Prefects: The Local Party Organs in Industrial Decision-making*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William J. Conygham, *Industrial Management in the Soviet Union: The Role of CPSU in Industrial Decision-making, 1917~1970*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73); Harry Harding, *Organizing China: The Problem of Bureaucracy, 1949~1976*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1);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제4장은 북한에 형성되어 있는 연줄망과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양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서술을 시도하고 또한 유형화한다. 서술의 주제는 연줄망과 인간관계의 기본양태로서 수직 계선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후견-피후견 그룹을 서술하고 이것이 각급 단위에서 형성되는 유형으로서, 공장내의 후견-피후견 그룹, 행정경제 계선에 따른 후견-피후견 그룹, 지역단위의 후견-피후견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국가 관료와 주민 사이에서 형성되는 후견-피후견 그룹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II 장 관료제적 연줄형성의 제도적 배경

북한에서 관료제적 연줄관계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후견-피후견 그룹 형성 등은 다음의 두 가지에 의하여 규정받고 있다. 즉 1) 북한 관료체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운영 과정에서의 불명료성과 혼란, 그리고 2) 관료체제 운영목표 중의 하나인 경제의 고속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체제 내의 혼란과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는 시장관계와 자율적 정치 등을 배제하고서 국가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거의 모든 조직과 행위를 국가적 유일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조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전국가적 관료체제가 건설되어 있다.

11)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는 1) 복잡다지한 관료세포의 일원적 통합, 2) 각 단위의 실적 감독 등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적 통제장치를 통해 하부단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관료체제의 중앙은 모든 관료체제의 세포들의 활동을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도록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견상의 엄격한 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부 개별 단위는 여러 가지 불일치, 임무, 권한 등의 모호성 등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그 혼란과 불확실성은 1) 북한의 경우에서 처럼 관료체제의 계선조직이 유사한 임무와 기능을 갖는 수직적 복수계선으로 존재하여 하부단위가 다중적 통제를 받아야

11) T.H.Rigby, *The Changing Soviet System: Mono-organisational Socialism from its Origins to Gorbachev's Restructuring* (Vermont: Edward Elgar, 1990), pp.62~82.

하는 경우, 그리고 2) 전국가적 관료체제의 운영목표가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인 경우에 그 혼란과 불확실성은 증폭하게 된다. 이것이 여기 제2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이와 연결하여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게 된다. 즉 하부단위에서 발생하는 관료제적 연줄관계, 후견-피후견 그룹 형성 등의 현상은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현상이 관료제의 공식 위계와 기능과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현상에서는 공식관계와 사적-인간적 관계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 그 현상이 관련자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등을 서술한다. 또한 그 현상은 상부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상부의 과중한 요구에 대한 자기 방어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1. 당-국가의 다중적 위계체계

북한체제는 시장관계와 자율적 정치과정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중앙의 목표와 지침의 완수시키기 위한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조율하고 운영하는 전국가적 관료주의적 체제이다. 북한 체제가 관료주의적 체제라는 점에서 그 구조와 운영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성격은 모든 관료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¹²⁾ 그러나 서방의 관료적 조직들이 부분적 관료체제라면 북한체제는 전국가적 관료체제이다. 다시 말

12) T.H.Rigby, "Politics in Mono-organizational Society", pp.34~37.

해 서방의 관료조직은 시장이라는 외부환경, 또는 자율적 정치공간(정당, 여론, 시민단체 등) 속에 떠있는 섬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부분적 관료조직은 외부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해야만 한다. 북한의 전국가적 관료조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서방의 부분 관료조직 간의 연계는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첫째로, 한 단위에서 관료조직 내에서는 관료체 간의 관계는 행정적 관계를 통해서, 둘째로, 그 내부가 관료적으로 조직된 경제기업 사이, 또는 기업과 국가 행정관료체 사이의 경우에는 시장관계를 매개로, 셋째로, 관료적 내부구조를 갖는 정당과 국가행정관료체는 정치관계를 매개로 하여 그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가적 관료체제에서 모든 부분 관료체제의 기능환경은 관료제적 관계일 뿐이다. 즉 모든 하위 관료체간의 관계는 행정적 관계를 통해서만 연계되고 있다.

북한의 전국가적 관료체제의 구성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관료체는 가장 중요한 두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것은 당관료체와 국가관료체이다. 당과 국가의 관료체제는 동일한 구조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관료체제는 수직적 위계체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각각의 위계체제의 수위이다. 국가관료제의 최말단에는 기업, 지방행정단위 등이 존재하며, 당관료제의 말단은 당세포이다. 정점과 말단 사이에 상-하 관계에 기초한 다층적 위계가 존재한다. 그 위계상의 위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상부로 갈수록 권력은 커지고 하부로 갈수록 작아진다. 일정단위는 자신의 위쪽에 존재하는 모든 상부단위에 의존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아래에 위치하는 모든 하부단위에 대하여 명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부의 상부에 대한 의존은 직접적이며, 일방적이다.¹³⁾

이처럼 당과 국가는 독자성을 갖는 각각의 위계 질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위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 메커니즘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당의 국가에 대한 지도적 역할’에 입각한 당의 조직-사상적 통합기능이다. 당조직은 체제의 모든 구성단위체의 존재이유, 임무와 지향, 그리고 구체적 활동 내용을 전체 조직의 유일적 목적론적 지향목표-북한의 경우 수령의 사상과 정책-에 종속시키는 통합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당의 통합 역할에 의해서, 국가내의 상이한 직능 관료체는 전국가적 유일관료체로 통합된다.¹⁴⁾

13) 이러한 일원적 이중 수직체계에서 각급 단위의 자율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결단은 당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다. 또한 국가소유와 계획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기구는 배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정치적 선거경쟁, 자치원칙 또한 시장적 계산과 경쟁 등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체제내부의 각 단위체간의 행위 조율과 통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관료적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든 권위와 통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상급단위와 하급단위, 그리고 각급 단위간의 행위조율과 통제는 기본적으로 명령-복종을 통한 행정적 조율과 통제(관료적 조정)와 상-하 간, 상이한 관료체간의 협상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수직적 위계, 명령-복종, 협상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관료적 조정 관계에서 상-하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해당 수직계통을 통해서 일어난다. 상이한 관료체제의 동급 또는 상이한 수준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중앙의 간섭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다.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 특히 관료적 조정에 관해서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91~109 참조.

14) Reinhard Bendix, 「産業における労働と権限」(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85) pp.493~503.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체계는 그 체제를 통합시키는

전국가적 관료체제에서 각 단위의 실적감독은 관료제의 압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관료체제에서는 각 단위의 실적을 감찰하고 독려하는 기능은 시장기구나 자율적 정치여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방국가체제의 경우에 경제 단위에 대한 실적감찰은 시장기구에 의해서, 정치 및 행정단위체에 대한 실적감찰은 정치적 자율여론과 선거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기능은 전담행정조직의 건설을 통해서만 수행 가능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시장도 선거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관료기구의 실적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대한 국가관료제의 여러 세포들을 목적지향성을 갖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역할과 또한 각 단위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행정조직을 필요로 한다. 우선 이 체제에는 시장관계, 또는 정치적 경쟁 등을 허용하지 않는 관료적 조직들의 체계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관료체제의 운영 방향과 목표는 당의 그때 그때의 정책에 의해서 사전에 주어져 있으며, 각급 관료단위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각급관료단위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관료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각급 단위가 당정책 집행에 집중하지 않고 즉 중앙이 관찰하고자 하는 일반이익을 무시하고 개별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관료체제의 목적지향적 체제통합은 붕괴하게 된다. 서방적 체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행정조직은 필요하지 않다. 서방 국가에서 여러 분야의 개별 단위는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주어진 국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개별단위의 행위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서방체제의 국가는 행정관료조직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국가는 각기 특수한 행위주체와 기능방식을 갖는 상이한 하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장관계와 여러 자율적 경제주체들, 정치정당과 개인, 그리고 선거경쟁, 그리고 국가행정조직체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요소의 국가적 통합은 관료적 행정기관의 통합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기제의 모순적 과정을 통해서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주로 사후적으로 일어난다.

실적감찰을 받고 있는 조직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조직이다. 우선 당조직은 각 관료체 단위가 자신의 기능상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중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의 이익(‘수령의 사상과 정책’, ‘당적, 국가적 견지’)의 절대성의 원칙 하에서 하부 각급단위의 특수이익(‘지방본위주의’, ‘기관본위주의’)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당은 국가의 각급 단위가 해당단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국가과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은 국가기구의 행정을 대행해서는 안되나 국가기구에게 당이 제시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조직은 또한 그 집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담 행정조직의 대표기구는 당기구이나 그 외에도 그러한 조직이 복수로 설치되어 있다. 정책집행이라는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구에 대하여 당이라는 단수의 감찰자 만이 존재하는 경우, 감찰-독려하는 자와 감찰-독려받는 자가 공동연합하여 중앙에 저항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복수의 감찰-독려 기구를 설치하여 감찰-독려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찰-독려하는자를 감찰-독려해야 한다.¹⁵⁾

당의 위계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구의 위계와 별개로 존재하면서도, 국가기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급 관료단위의 당기구와 해당 당원은 그 관료단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관료단위의 실적에

15) Werner Hofmann, *Die Arbeitsverfassung der Sowjet Union* (Berlin: Duncker & Humboldt, 1956), p.298.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각급 단위에서 당원과 당기구는 원칙적으로 해당단위의 특수이익 표출에 대하여 감찰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임무이나, 역으로 당원과 당기구가 해당 단위의 특수이익을 그 외부에 대하여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권력중양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적 당기구 그리고 국가관료기구와도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고,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별개의 조직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조직과 조치의 임무는 하부의 각급 관료단위에 파견 또는 적용되어 그 단위의 당기구와 국가조직을 감찰·독려하는 것이다.

우선 정규국가관료조직 자체가 이중분화되어 있다. 한쪽은 실무에 전담하며 다른 쪽은 감독과 통제를 전담하는 형식으로 이중적 국가관료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대표적으로 한편에서 북한에서 경제 실무조직인 ‘부’계통 조직, 다른 편에서 주로 감찰전담 조직인 ‘지구경제위원회’ 계통조직으로의 이중분화. 제3장 2절 참조). 그밖에 도 여타 감찰 전문 국가기관이, 당을 포함하여 여타 국가기관에 대한 감찰과 독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정치보위부, 삼대혁명 소조가 그러한 감찰·독려조직이다.¹⁶⁾ 이러한 조직들은 해당 관료조직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일반이익을 관찰하고 준수하도록 감찰·독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해당 단위가 자신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이익을 준수하고 관

16) 3대혁명소조, 국가정치보위부의 연원과 역할 등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신경완, “김정일체제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인민항거”, 「월간중앙」 1991년 7월호, pp.441~442;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0), p.262.

철하는 것을 감독하고 독려함으로써, 해당 단위를 중앙이 제시한 전체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국가적 관료체계의 공식원칙과 겉모습은 대단히 엄격한 위계체계이다.¹⁷⁾ 그러나 엄격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실제운영은 대단히 유연하고 또한 무질서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권력중앙은 국가적 당면과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급 국가관료단위가 집행해야 할 구체적 하부과업을 명령한다. 그런데 하부과업은 하급단위의 상당한 자율성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중앙이 모든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수 없고 모든 단위에 세세한 집행방식을 알려줄 수도 없다. 또한 물론 상급 단위는 하부단위의 정책집행과정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급 단위가 직면한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해결방책을 일일이 지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장의 정책 집행자는 그 집행과정에서 위로부터의 모순적 명령들, 그리고 끊임없는 예기치 않는 상황들에 직면한다.¹⁸⁾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은 하부단위에 대한 다중적 통제의

17) 예를 들어, 북한의 '우리당의 사업체계'는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상부가 하부를 철저히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당의 조직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당원과 당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각급 기관에서 당의 정책과 노선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고자 한다.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pp.236~241.

18) 거대한 관료적 체제에 고유한 여러 역기능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사회전체가 관료체제에 포괄되고, 시장의 통제와 자율적 정치과정의 통제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 문제가 훨씬 심각해진다. 그러한 문제들을 간략히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규칙과 규제의 과도한 범람, 2) 조직구조의 경직성, 3) 과잉중앙집권화에 따른 결정과정의 지체, 4) 활동조율의 어려움 때문에 노력과 시간의 낭비, 5) 수행과제의 성격이 해당조직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 때문에 변질됨, 6) 조직외부에 대하여 관

경우 증폭된다. 다중적 통제 때문에 임무와 권한의 모호성, 모순적 명령 등이 발생한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권력중양의 의도 집행을 그 운영목표로 하는 전국가적 관료체는 그 실제 기능과정의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애로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전국가적 관료체의 실제 운영과정은 상당한 정도로 즉응적 응급조치의 연쇄로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응급조치들은 국가기관의 단위에 의해서 주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이 국가기관의 권한과 능력을 넘어서거나 또는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당기구가 개입하고 있다.¹⁹⁾

2. 고속성장전략과 경제 운영의 혼란

관료세포에 대한 실적 감독 및 독려, 그리고 관료체들간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 상급 및 특별기구와 당기구가 하부단위의 행위에 대하여 항상적으로 간섭해야 하는 필요성은 경제성장 전략 때문에 한층 커진다. 높은 성장 목표는 경제에 여러 종류의 거시-미시적 불균형, 상부의 하부에 대한 증산압력, 하부단위의

료들의 방어적 자세 등이 그것이다. Maria Hirszowicz, *The Bureaucratic Leviathan: A Study in the Sociology of Commun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0), pp.135~136.

19) 중앙의 당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의 중요 정부 부처간의 이익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당은 당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을 토대로 중앙권력의 명령을 지역과 기관의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해석해 내면서 사업의 중심을 잡아주고, 유연하며 때로는 초법적 조치를 취하여 애로와 문제를 조정해 내고 해결하도록 시도한다.

자기방어 등을 야기한다. 경제불균형을 시정하고 하부를 장악통제 하기 위하여 행정경제 기관 간에 그리고 당의 행정기관에 대한 상호간섭이 초래되고 있다.²⁰⁾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속도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과 인민의 혁명적 열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경제의 부문간 균형에 대한 속도 우선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²¹⁾ 김일성은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라 하는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계획성과 균형성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했다.²²⁾

20)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고속성장 전략과 경제의 불균형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불균형의 여러 양태 등에 대한 일반 이론적 서술로서 다음을 참조: Filtzer, op.cit.; Kornai, op.cit.; 상부의 하부에 대한 압력, 하부단위의 자기방어 등에 관해서는 앞의 책 이외에도: Berliner, op.cit.; Herbert S. Levine, "Pressure and Planning in the Soviet Economy", in Henry Rosovsky ed., *Industrialization in two system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pp.266~286; 이러한 과정에서 당의 간섭 역할에 대해서는 Hough, op.cit. 참조.

21)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 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년 3월 1일, 「주체의 경제관리체제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때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365~389.

22)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가능성에 엄격히 서있을 때에는 결코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비상이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명제, ‘균형에 대한 속도우선의 원칙’은 그 실제적 적용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빠른 성장 속도를 달성하려는 정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정한계 이상의 동원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부존자원과 성장 목표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러한 불균형의 구체적 양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첫째 불균형은 상-하 위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상부의 요구와 하부 생산단위의 생산능력 사이의 모순이다.(수직적 갈등과 모순) 그 둘째 불균형은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부문간의 불균형이다.(수평적 갈등과 모순)

여기서 수직적 갈등과 모순이라 하는 것은 북한의 고속성장전략이 발생시키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말한다. 북한의 당-국가는 고속성장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하부기관에 증산압력을 가하고 있다. 상부는 하부에 최소한의 자원을 배정하고서 높은 생산목표의 달성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하부는 가능한 한 낮은 생산목표와 가능한 한 많은 자재배정을 요구한다. 김일성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국가계획기관 일군들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요구와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국가계획기관 일군들은 될수록 보장은 적게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다 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발취)”, 앞의 책, p.9.

해주면서 많은 것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생산자들은 될수록 많은 것을 보장받으면서 생산을 적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²³⁾ 결국 이 모순은 “계획화에서 국가계획기관 일군들의 관료주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와의 모순”²⁴⁾이었다.²⁵⁾

- 23)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3일,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앞의 책, p.258. 김일성은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계획을 세우는데서 생산자들은 계획수치를 될수록 낮추려고 하며 동원할 수 있는 예비를 동원하지 않고 응당 더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생산자들이 세운 계획은 대체로 소극적이며 일부 성들에서는 계획수치를 적게 해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올려보내며, 반대로 국가계획기관들은 계획을 세우는데서 늘 높은 요구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12월 19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앞의 책, p.682.
- 24)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앞의 책, p.258.
- 25) 김일성은 덧붙여서 “국가계획기관 일군들은 전반적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알고 전반적 경제발전의 전망을 알지만 객관적 현실과 구체적 생산예비를 잘 모르며 다른 한편 생산자들은 구체적 현실과 기업소의 생산예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형편과 전반적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을 잘 모르는 것”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의도와 균중의 현장 정보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균중적으로 토의하여 세울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계획을 균중적으로 토의하여 세우라는 것은 웃기판이 계획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아래서 세워올려온 계획을 그대로 묶어놓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세운 계획이라 하여 다 옳고 객관성을 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즉, “아래일군들이 지식이 적고 시야가 좁아서 있는 예비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생산자들에게는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서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보다 자기자신과 자기 기관, 자기 지방의 작은 리익을 앞에 내세우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앞의 책, p.682.

두 번째의 것은 수평적 갈등과 모순이다.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균형을 보장시키는 것은 계획화 사업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계획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부문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부문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북한경제에서 여러 부문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고 그 때문에 더 높은 성장 속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김일성은 불평했다. 김일성은 1) 축적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²⁶⁾, 2)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²⁷⁾, 3) 공업 내부의 여러 불균형들²⁸⁾

-
- 26) 이와 관련하여 중공업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중공업투자의 올바른 방향은 이미 마련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새로운 건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리하여 많은 건설대상의 조업 기일이 연장되고 있을 뿐아니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투자될 수도 있을 자금이 필요한 자금이 잘못 이용되고 있었다.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 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앞의 책, p.257.
- 27)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었다. 그 이유는 농업생산과 직접관련되는 공업부문들의 발전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비료, 트랙토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농약 등이 농촌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앞의 책.
- 28)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의 불균형: 채취공업의 발전이 더디어 가공공업에 충분한 원자재를 댈 수 없었다. 석탄, 광석, 목재와 같은 원자재가 딸리어 많은 가공공장들이 채 능력을 다 내지 못하며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했다. 2. 전력공업부문과 다른 공업부문들의 불균형, 그리고 전력공업에서도 수력과 화력과 불균형: 전력공업이 다른 공업에 앞서서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나라의 전력사정이 계속 긴장하며, 전력생산이 수력에만 치우쳐 전력생산에서 계절적 파동성이 존재했다. 3. 가공공업 내부의 불균형: 압연강재 생산에서 굵은 강선과 가는 강선, 두꺼운 강판과 얇은 강판 사이의 불균형, 기계공장들에서의 자재 부족, 기계공장들에서 기중사이에 불균형, 설비들 사이에 불균형 등. 4. 경공업부문에서의 불균형: 면방직공업과 모방직공업, 여름옷감생산과 겨울옷감생산 사이의 불

등을 지적했다. 김일성의 경제의 거시, 미시부문에 대한 자질구레한 정책지침은 이러한 불균형과 관련하고 있다.²⁹⁾

김일성은 이러한 불균형들을 관료적 조정과 감시를 위한 다중적 체제의 설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수직적 불균형 때문에 상-하 간의 갈등은 일상화되고 있다. 하부는 상부의 압력을 피하고 최소한 서류상의 계획달성을 위하여 수직적 계선에 따라 그리고 해당 단위에서는 수평적 협력차원에서 나타나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호혜에 기초한 인적 연줄과 후견-피후견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행정경제기관의 각 단위는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서도 상호호혜와 인적 연줄 그리고 그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각 생산-경제단위는 특히 자재 확보, 그리고 생산우선순위 조정 등을 위해서 때로는 공식적으로 때

균형, 제지공업의 낙후성. 5. 기본건설부문에서의 불균형: 생산건설과 비생산건설사이의 불균형, 건설 대상과 설비, 자재사이에 불균형. 6. 노동력 구성의 불균형: 도시노동력과 농촌노동력, 노동자와 기술자, 생산자와 학생사이에도 불균형. 앞의 책.

- 29) 김일성은 이러한 수직-수평적 불균형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적 우월성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 현상들, 또는 경제 실무자들에게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주로 하급자의 당정책에 대한 불충실성, 하급자의 태만과 무지, 그리고 관료주의, 본위주의 등에서 그러한 원인을 찾으면서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성립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이후에 까지 동일한 문제를 거듭하여 지적하고 동일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 지적하고 있는 경제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침들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명령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면, 그러한 불균형들이 오히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주 8)의 문헌 참조, 특히 Berliner의 서술 참조.

로는 각자 능력껏 비공식적으로 애로타개를 위해서 나서게 된다. 이 경우에 경제운영에서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가 초래되고, 상급 행정경제기관과 당기구들이 이러한 무질서를 조정하면서, '중심고리'를 완수하기 위해 경제관리에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제 III 장 관료제적 연줄의 성격과 기능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연줄관계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후견-피후견 그룹 등이 형성되는 제도적 배경이 되는 관료체제의 구조와 운영상의 목표를 서술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서술한 관료체의 구조와 운영목표 때문에 초래되고 있는 연줄관계의 성격과 기능을 서술한다. 우선은 이론적 차원에서 관료제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비공식적 인간관계, 연줄관계 등이 어떠한 기본 성격을 가지는가를 서술한 다음 추상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 경우 북한체제에서의 다중적 통제와 경제운영상의 혼란이 그 속에서의 행위주체들이 연줄관계를 축적하고 동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 연줄망을 구체적 양태들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1. 관료적 체제에서의 연줄의 기본성격

공식적 제도와 행위규칙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인간적 연줄, 후견-피후견 관계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의 외견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들이 작용해야 하는 공식제도와 규범, 그리고 그 현상의 만연의 정도 등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주제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적 체제와 사회주의적 체제에서의 차이만을 언급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에는 관료제적

제도와 규범이외에도, 시장법칙, 그리고 선거 등의 하부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시장과 선거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관료제 체제에 통합되어서 존재한다. 모든 행위가 관료체제에 포괄되고 관료적 행정 결정에 의해서 조율되게 되는 경우에 그 구체적 결단권자에 대한 인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연줄의 축적과 동원, 그리고 후견-피후견의 관계가 만연하게 된다. 시장의 가격에 기초한 거래관계나, 선거를 통한 관직임명은 연줄의 축적과 동원, 후견-피후견의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어렵게 한다.³⁰⁾

이러한 기본적 특성이외에도 앞서서 서술되었듯이 관료체제는 전체 관료세포들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통합하고 또한 실적 감독과 독려를 위한 다중적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하부단위가 관계해야 하는 상급계선은 다중적으로 장치된다. 하부단위는 이 상급 계선들에 의해서 중복 통제와 엇갈리는 지침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책임과 권한의 한계들이 불분명해진다. 책임과 권한의 설정, 그리고 계선간의 불일치에 대한 조율은 항상 관료들간의 즉응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관료제적 규범이 그러한 협상의 결과를 미리서 결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양보와 타협, 협박과 강제 등의 비공식적 거래관계가 성립한다.

하부단위가 직면하는 또다른 상황은 그 주변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애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관료적 체제에서 이러한 애로는 행정적

30) Willerton, *Patronage and Politics in the USSR*, p.12.

결단과정을 통과해야만 풀릴 수 있다. 하부단위는 관료적 그리고 개인적 정보통로를 통하여 자신의 애로가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를 타진해야 한다. 하부단위는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중복 계선의 여러 상급 기관들 또는 다른 계선에 속하는 동급 기관 등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에도 누가 무슨 문제에 어떻게 책임지고 나서주어야 하는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움직이는 데는 단순한 관료적 규범이외의 인간적 요소와 은혜와 보답의 관계가 개입하게 된다.

관료적 계선에 의해서 통제되는 체제의 상급단위의 업무수행도 하부단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모든 것이 명령과 집행의 원칙에서 통제되나 관할 하급단위에 대한 중복적 통제 때문에 해당 상급단위의 명령권은 상대화되고 있을 뿐아니라, 하급 단위가 상급단위의 명령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상급단위는 자신의 하급단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권한뿐만 아니라, 명령집행상의 애로들을 풀어주는 지도와 보장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급단위는 하부단위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차상급단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하관계에서 상급단위가 하급단위의 집행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하부단위의 관직에 상급기관에 복종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의 인간적 연결을 통하여 상급단위는 하급단위의 협력과 복종을 확보한다. 하급단위는 가능한 한 상급단위의 명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상급단위는 하급단위가 그 집행 상에서 부딪치는 애로들에 대하여 지도와 보장의 책임을 가능한 한 철저히 집행한다.³¹⁾

31) 관료적 체제의 '인치(personal rulership)화' 문제에 관해서 다음을 참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하 간에 그리고 해당 부서의 업무와 상관하는 여타 계통의 기관들 사이에 인적 연계가 탄생한다. 이러한 연계는 관료적 상-하관계와 업무집행을 위한 협력에 기초하면서 성립하고 있으나 그에 덧붙여 인물적 층성-복종의 관계, 후견-피후견의 관계, 친구 관계 등의 개인적-사적 요소가 개입하여 있다. 이러한 연계가 성립함에 있어서 연계의 상대측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통하여 우연히도 미리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일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관료체제의 업무상 협력관계에서 축적된 연줄관계일 경우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북한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구체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2. 다중적 통제 체제와 관련한 연줄의 축적과 동원

이상에서 서술된 바대로 북한의 경제관리운영체제는 다중적 체제로 되어있다. 그 중 기본적인 것은 당기구와 국가의 행정경제기구의 이중체제이다. 형식상 국가행정경제기구에 속하는 부(1948-1972년 간에는 성)³²⁾, 관리국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Lloyd I. Rudolpf and Susanne Hoerber Rudolph, "Authority and Power in Bureaucratic and Patrimonial Administration: A Revisionist Interpretation of Weber on Bureaucracy", *World Politics*, Vol.XXXI, No.2 (January 1979), pp.195-227; Robin Theobald, "Patrimonialism", *World Politics*, Vol.XXXIV, No.4 (July 1982), pp.548~559.

32) 1948년 북한 헌법의 정부편제는 1972년의 헌법 개정에 의하여 바뀌게 된다. 1992년에도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정부편제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변화 내용을 여기에 필요한 만큼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948년 편제는 '수상'을

자재보장, 기술지도, 로동행정 및 후방공급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었다. 당기구는 공장, 기업소들에 맡겨진 생산과제들을 공장당위원회가 잘 실행하도록 책임적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국가의 행정경제기구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부-관리국-공장, 기업소의 위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료위계이다. 그런데 행정경제기관은 또 하나의 독자적 갈래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계획위원회-(도, 시, 군의)지구계획위원회-(공장, 기업소의)국가계획부의 위계가 따로 존재한다. 당조직의 경우 역시 지역별, 부문별로 이중조직되어 있다. 즉 각 경제부문별 행정위계에 따르는 당조직, 그리고 지역별 당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먼저 각 부문별 행정위계에 따르는 당조직을 보면, 부(1948-1972년간에는 성)당위원회-(관리국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가 있다. 지역별 당조직으로는, 도당위원회-군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밖에도, 재정은행부문에 의한 통제(이른바 ‘원에의한 통제’)³³⁾, 당중앙위원회에서 공장, 기업소, 각급 행정관청에 직접파견되는 3대혁명소조, 그리고 각급 사법감찰기관이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총수반으로하는 ‘내각’이 중앙정부 편제였다. ‘내각’은 ‘상’과 ‘위원장’이 그 수반인 ‘성’과 ‘위원회’들로 이루어 졌다. 1972년 편제에서는 ‘주석’직이 신설되고, ‘중앙인민위원회’ 아래 ‘정무원’이 설치되었다. ‘정무원’의 수반은 ‘총리’이고 ‘정무원’안에는 ‘부’와 ‘부장’, ‘위원회’와 ‘위원장’이 존재했다. 이에 관하여,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서울: 대영문화사, 1994), pp.224~241, p.431, p.474 참조.

- 33)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데 대하여” 재정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담화 1968년 10월 31일,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앞의 책, pp.344~364;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전국재정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31일, 앞의 책, pp.453~468.

따라서 최하급 단위인 공장, 기업소는 행정계통의 2개의 계선, 당계통의 2개의 계선, 그리고 재정은행부문에 의한 통제, 3대혁명소조, 사법감찰 기관 등의 최소한 7계통의 계선에 의하여 통제 받고 있다. 이처럼 경제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별개의 수직적 위계체계를 통해서 중첩되어 조직되어 있다. 이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각 기관마다 목표, 관할영역 중첩되며, 각 위계가 하급단위에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갈등하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은 종종 각 계선을 따라 내려오는 상충하고 갈등하는 목표들과 요구들에 직면한다. 이 경우 이 모든 목표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나 각 계선의 요구는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충족의 경우는 징벌대상이 될 수 있다. 상충되는 요구들이 한꺼번에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은 현장집행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선택되어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사소한 것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중적 감찰 및 독려 체계 때문에 두개의 기본적 수직적 위계체계의 위계질서가 붕괴하게 된다. 먼저 국가관료조직에 스며들어 있는 당과의 연결고리들 때문에, 국가조직의 공식위계가 붕괴한다. 국가기관은 해당 상급기관들 외에도, 해당 당조직의 위계에 이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당의 통제가 해당 기관에 대한 상급 국가기관의 통제를 상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이익관철과 애로사항 토로를 위해서 국가기관은 자신의 상급 국가기관 이외에도 당이라는 통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권력중앙

에 직속되어있는 보위부, 3대혁명소조의 통제까지 더하면, 해당 상급기관의 통제권은 더욱 상대화된다. 이는 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급 당조직은 기본적으로 해당 상급조직에 종속되어 있으나, 지도점열사업을 통한 중앙당의 직접감독, 그리고 보위부와 3대혁명소조의 감독 때문에, 해당 상급당조직의 통제권은 상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당 및 국가 각 상급기관의 통제권과 연결은 상대화되면서 다중적 통제와 연결이 등장하며, 서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임무와 역할 때문에 각 단체의 임무와 권한이 모호해진다. 이에 따라 불분명하고 복합적인 연계망이 탄생한다.³⁴⁾ 그리하여 해당 계통의 상-하 명령, 협상 관계에서의 '사람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각급 단위조직의 '사람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각급 단위국가조직의 협상능력은 -상급 기관과의 인적관계 이외에도, 당과 연결되는 인적관계, 권력중앙과 연결되는 인적관계 등- 여러 종류의 인적 연결고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거래 등을 해낼 수 있는 해당 관료의 연출망 축적과 인간관계 능력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인적관계 연결망을 기초로 한 협상능력의 차이 때문에, 국가조직 내에서 형식상 동일한 레벨의 기관일지라도, 실질적 협상능력과 이익 표출 가능성에서는 큰 능력 차이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료적 조정과 연출동원 과정에서 당-국가 관료가 실제로 구비해야할 능력은 단순한 명령-복종의 능력과 품성이

34) Maria Csanadi, "Beyond the Image: The Case of Hungary", *Social Research*, Vol.57 No.2 (Summer 1990), pp.324~331.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관리 능력이다. 김일성은 당사업 뿐만 아니라 행정경제기관의 사업도 명령-집행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방법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⁵⁾ 즉 행정경제기관과 당은 공히 다음의 당사업 방법에 나타난 방법에 따라 작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당사업이란 “사람과의 사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사업, 사상교양 사업을 잘하는 것”³⁶⁾이며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대중에게 당정책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 수행방도를 알려주며 분공을 조직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³⁷⁾이라 말하고 있다.

당-국가 관료의 이러한 인간관리 능력은 하부동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급의 여러 기관과 경로의 관직자들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데도 필요하다. 즉 상시적으로 직면하는 관료제 운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

35) 김일성,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 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5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제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63; 행정식 사업방법과 정치적 사업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이외에도 다음을 참조: 김일성, “현시기 당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 당사상 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360; 김일성,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당간부양성기관 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일, 「김일성저작집」 제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499~500.

36) 김일성, “현시기 당사상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 당사상 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369.

37) 위의 글.

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경로의 상급-동급 기관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급-동급의 관료들을 때로는 설득 또는 때로는 협박하고 매수하여 후원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경로의 연줄을 동원하여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지원을 받아내야 하며, 역으로 언젠가의 훗날의 위하여 상대방에 도움도 주어야 한다. 또한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규칙이외의 불법적 사항을 저지르고 묵인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기본 성격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이 경우 연줄관계와 인간 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 경제운영의 혼란과 관련한 연줄의 축적과 동원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구가 서로 상충하는 것은 고속성장을 하도록 요구하는 성장전략 때문에 더욱 심각해 진다.³⁸⁾ 예를 들어 공장,

38) 이하에 서술하는 북한 경제관리운영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다음을 참조: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발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61년 12월 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앞의 책, pp.17~41; “기본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건설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4년 1월 9일, 앞의 책, pp.562~593; “새환경에 맞게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하여”, 국가건설위원회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3월 26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앞의 책, pp.115~162; “국가예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9년 6월 30일, 앞의 책, pp.522~581;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37~72; “로력

기업소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항상 설비를 잘 정비하고 있어야 하고 자재 예비를 한달 간 가지고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야 자재낭비와 노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을 월말, 분기말, 연말에 몰아쳐서 돌격전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생산하기 쉬운 것만 생산하여 금액상으로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물지표계획까지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생산의 시간계획을 잘 지켜서 다른 공장들에 제때에 자재를 공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계획을 상급기관에 제출할 때는 예비를 숨기지 말고 동원적이고 현실적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가 생산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실은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현실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 설비능력을 넘어서는 만성적 증산압력과 만성적 자재부족이다. 이 두 현실이 초래되는 원인은

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몇 가지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1년 9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314~334;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공업부문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10일, 「김일성저작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145~169; “제2차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계획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7월 10~11일, 「김일성저작집」 제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307~356;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27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5권, 앞의 책, pp.389~404; “인민경제의 계획규율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9년 12월 12일, 앞의 책, pp.405~429.

다름아니라 최고지도부가 요구하는 전체 경제의 고속성장 전략 때문이다. 만성적 자재부족 때문에 자재가 불규칙하게 공급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적으로 설비능력 이상의 증산 압력을 받는 경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재공급이 불규칙적인 경우 자재가 없을 때는 놓고 자재가 있을 때는 돌격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은 파동적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증산압력에 따른 과잉 설비가동, 그리고 돌격전 때문에 설비의 마모가 심해지고 제때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설령 제때 정비를 해놓더라도 설비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그 자재는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한 결정과 조정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자재를 빼앗긴 다른 산업부문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원만한 협동생산은 불가능해진다.

고속성장 과정 속에서 현장의 공장, 기업소가 직면하는 이러한 혼란된 상황은 공장, 기업소의 운영이 규칙대로만 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혼란된 상황에서 불구하고 공장,기업소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 양적인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³⁹⁾ 특히 공식경로를 통한 자재공급이 만성적

39)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즉,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실속 있게 짜들지 않고 빈 구호만 웨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타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을 불러다 회의나 하는 것으로 조직지도사업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전력이 긴장하요, 자재가 모자라오,수송이 걸렸소 하면서 생산이 잘 안되는 원인을 객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만 잘하면 지금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도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며 자재와 수송 문제도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0년 12월 20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5권, 앞의 책., p.488.

으로 불규칙하고 또한 할당된 자재를 공급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재 공급을 위해서 비공식적 경로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안의 자재공급체계가 수립된지 이삼십 년이 지나서도 공장 마다 자재를 구하러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때로는 사실상의 뇌물, 또는 공장간 자재의 불법적 바꿔치기, 인적 연줄 등을 통하여 비합법적으로 자재를 구하게 된다. 또한 어쨌든지 서류 상으로 양적 생산량이 달성된 것으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품질을 낮춘다든지 또는 생산하기 쉬운 것만 잔뜩 생산한다든지 하는 편법을 쓰게 된다.

또한 고속성장 압력, 생산증대 압력, 만성적 자재부족 상황 등은 상이한 경제부문간, 그리고 한 부분 내에서도 공장간에, 또한 지역간에, 그리고 지역내부에서도 여러 상충하는 요구들 간에, 유한한 투자재원과 자재, 원료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도록 만든다. 또한 한 계선 내부에서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에 이익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즉 과중한 증산압력 때문에 공장, 기업소는 설비, 자재, 노동력을 숨기게 되며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높은 생산계획을 내리려고 한다. 따라서 하급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한 속임수와 은폐, 그리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장악통제 시도가 항상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수평적 쟁탈전과 수직적 갈등의 경우에도 그것이 노골적인 정치적 갈등과 이익단체의 결성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한 쟁탈전은 관료체제 내부에서 은폐된 정치로서 나타난다. 그 표현중의 하나가 이른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의 만연이다.⁴⁰⁾

40)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은 ‘본위주의’를 “개인주의의 변종이며 공명주의

이처럼 ‘계획경제’의 현실적 운영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어진다. 이러한 혼란은, 언뜻 보기에 매우 사소한 물품의 공급상의 애로 때문에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품공급 기업소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볼트와 너트 같은 비폰드물자 때문에 완성된 트랙터를 만들 수 없다든지, 또는 자재 공급 공장에서 생산우선 순위를 조절하여 해당 공장 부분품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지 하는 류의 문제로 걸리는 경우이다. 또한 수송의 경우에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수송하여주면 해결되는 문제 등이다.⁴¹⁾ 시장경제의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 들이다. 그러나 관료적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관료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 기업소의 관리자들은 기업운영에서 애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결단자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또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화 과정 중에는 여러 종류의 수직적 수평적 협상이 벌어진다. 부(1948-1972년간에는 성)계통에서 부(성)-관리국-기업 간의 수직 계선에서는 기업의 생산목표 책정과 자재 공급을 놓고 협상이 벌어진다.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에 가능한 한 높은 생산목표와 적은 자재를 부여하려 하고, 역으로

의 한 표현형태로서 국가나 사회의 전반적 리익은 보지 않고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의 리익과 공평만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리기주의적인 낡은 사상 또는 그런 작풍”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찬,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88), p.1208.

41)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앞의 책, p.266~268 참조. 그 외 여러 곳.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낮은 생산목표와 많은 자재를 요구하게 된다.⁴²⁾ 또한 계획을 묶는 가운데서 수평적 갈등과 협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구계획위원회와 부, 관리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⁴³⁾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갈등과 협상의 해결은 전적으로 해당 관료들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⁴⁴⁾

북한의 경제관리기구의 2가지 주요임무는 1. 불균형의 발견과 그 해결, 2. 하부의 속임수에 대한 대응이다. 관료제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에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시장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치-행정적 결정을 통해서만 시정이

42)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계획을 세울 때 생산은 통제수자보다 적게 하며 자재와 로력은 통제수자에 예견된 것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계획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와 같이 통제수자를 어기고 많은 보장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 맞추느라고 많은 시간을 없애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계획을 제때에 묶어 내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김일성, “일원화체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앞의 책, p.407.

43) 김일성의 다음의 지적 참조. 즉, “흔히 성, 관리국에서는 험하게 일할 생각으로 기본건설자금을 통제수자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획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 실태자료에 기초하여 건설을 더하지 않고도 예비를 동원하면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책.

44)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지시에서도 그것은 명확해 진다. 즉, “통제수자에 예견되어 있는 기본건설투자로는 도저히 생산을 보장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까지 통제수자 무조건 받아 물라고 한다면 구태여 계획초안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러모로 토의하고 계획초안에 그것을 반영하여 우에 올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책; 그리고 “계획을 묶을 때 통제수자보다 더 많은 기본건설투자가 제기 되었다면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느 대상은 당장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므로 모자라는 건설자금을 채워주고 그 대신에 어느 대상은 천천히 하여도 일없는 대상이므로 거기에 예견했던 자금의 일부를 줄이지는 식으로 조절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책, 408.

가능해진다. 이 경우 그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료적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또한 상대에 대하여 비-시장적인 종류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자신의 애로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때그때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정립하고, 그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성립한다. 고속성장의 논리 때문에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록 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당의 개입 또는 행정경제기관들 사이의 즉응적 담합이 중요해지고 그러할 수록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는 중요해진다.

공식적 관리운영체계가 초래하는 이러한 성격의 문제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식적 관리기구의 인적구성에 기초한 비공식적 거래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즉, 공장, 기업소의 관리자는 개인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또는 반합법적인 특혜를 누리하고자 한다. 즉, 자재공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재공급기업의 생산과 공급 및 수송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한다거나, 계획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정 자재를 획득한다. 계획목표와 관련해서는, 부의 관리를 설득하여 과중한 생산목표를 내려 잡고 자재와 노동력 배당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영향력이 없는 탄 기업은 더 높은 목표와 더 적은 자재와 노동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가족관계 또는 가까운 친구관계 또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담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호성은 종종 엄격한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특혜는 앞으로 언젠가의 보답을 기대하고 있다.

제 IV 장 관료제적 연줄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

앞에서 북한에서 연줄관계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후견-피후견 그룹 등이 형성되는 제도적 배경이 되는 관료체제의 구조와 운영상의 목표를 서술했다. 또한 앞서서 서술된 바의 관료체의 구조와 운영목표 때문에 초래되고 있는 연줄관계의 성격과 기능을 서술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이론적 차원에서 관료제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비공식적 인간관계, 연줄관계 등이 어떠한 기본 성격을 가지는가를 서술했고 북한체제에서의 다중적 통제와 경제운영상의 혼란이 그 속에서의 행위주체들이 연줄관계를 축적하고 동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했다. 이 장에서는 그 연줄망과 인간관계의 구체적 양태들에 대해서 서술한다. 우선 '수직적 계선에 입각한 후견-피후견 그룹'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그 연줄망과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기본 특징을 서술한다. 그러한 성격의 비공식 그룹은 구체적으로 여러 단위에 걸쳐 중첩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단위, 행정계선 단위, 지역단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료체와 주민 사이 등에 그러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한다.

1. 기본구조: 수직적 계선에 입각한 후견-피후견 그룹⁴⁵⁾

북한에서의 연출관계는 이러한 경제관리운영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운영방식과 관련되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사회주의적 관료체계에서 자원에 대한 처분은 전적으로 행정적 결정의 연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크든 작든 행정적으로 자원배분을 내리는 지위에 있는 행위자는 자기자신, 가족, 친구, 그리고 다른 결정행위자-다른 분야에서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그 능력 때문에 전자에게 언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게 된다. 이 경우에 관료 위계 체계의 직급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배분기능과 결단기능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 그에 따라 상-하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서 비동가적이고 비동질적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선 각급 단위의 권력중양과 당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사항이 정치화되어 각급 권력중양과 당의 결정에 의존해야 한다. 각급 권력중양과 당은 국가소유를 통한 자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 우선적 정책목표 설정권, 충성과 실적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권의 배분권 등의 그에 부합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각급 권력중양과 당은 끊임없이 간섭해주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각급 권력중양과 당은 관할 영역 내의 모든 당 및 국가의 하부조직을 종속시키고 있으나, 역으로 하부의 모든 당 및 국가단위로부터의 압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45) T.H.릭비의 '수직적 공생 도당'(vertical symbiotic cliques) 개념을 참조. Rigby, "Politics in Mono-organizational Society", pp. 56~58.

예를 들어 특정 국가단위의 경우 자신의 상급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권력핵심장치들인 차상급 또는 최고 권력중앙 및 당기구의 간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급 권력중앙과 당기구가 각급 단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 역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당 단위에서 관철시킬 수 있으며,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앞서 서술되었듯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즉응적 조율과 계선 간의 담합에 의해서 일이 되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직적 관료 행정체계에서, 상급자의 욕구는 하급자의 협력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는 협력하여 여러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무시될 수 있는 가를 결정해야 하며, ‘중심고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탈법적 행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탈법적 공모 때문에 양자 모두가 공동으로 규율위반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당면 ‘중심고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 계통과 규율을 무시하고서 여러 계선의 해당 조직들 간의 상호적 의사소통을 해내야 한다. 이 경우에 한편에서 공식조직과 다른 편에서 당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비공식조직이 사실상 공존하게 된다. 이들은 당면과제를 달성하는 데 공통의 목표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즉응적 협력을 해가고 각급 계통의 결정들을 조율해 간다.

이러한 공모와 조율은 기본적으로 관료체의 조직단위인 기관과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성립한다. 최고지도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공모와 조율은 이율배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

이러한 공모와 조율은 중앙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하부기관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서 중앙에 순기능적으로 역할하고 있다. 다른 편에서 이러한 공모와 조율은 중앙이 하달하는 과중한 압력에 하부단위가 방어하는 방식으로 기능 한다. 북한은 이를 이른바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본위주의’가 나타나는 기본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앙의 과도한 증산압력과 혼란된 주변환경은 하부단위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며 실패시 책임추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상부 과제의 미달성시 해당 관료계선의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공동책임의 문제 때문에 각 지방 그리고 기관 단위에서 당계통과 행정경제 기관계통이 해당 단위의 이익을 상부와 외부에 대하여 공동으로 옹호하게 된다. 또한 어떤 한 수직 계선 내의 상-하급 기관들은 연합하여 다른 계선에 대하여 해당 계선의 이익을 옹호하게 된다.

이 경우에 각급 단위에서 감독자-피감독자, 독려자-피독려자 사이에 담합이 일어난다. 즉 각급 행정경제 단위에서 당기구 계통 조직, 그리고 지구계획위원회 계통의 조직은 이러한 본위주의를 감독하고 생산을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독-독려 기관은 해당 행정경제기관의 실적 달성 여부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또는 최종책임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감독-독려기관은 해당 행정경제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계획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또는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적극 나서게 된다. 즉, 감독-독려기관은 해당 행정경제 기관에 과중한 계획업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더 많은 자재가 배당되도록, 그리고 실

제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혼란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게 된다. 즉, 해당 행정경제기관과 그 감독-독려기관은 공동으로 담합하여 외부 그리고 상부에 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게 된다.

이러한 공모와 조율 관계의 축적에 의하여 조직의 위계와 과업 관철에 접맥되어 있는 상호 협력하는 후견-피후견 그룹이 중층적으로 형성된다.⁴⁶⁾ 그 성격은 혼란된 상황에서 운영되는 관리 운영 체계에서 어떤 공식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결단이 함축하고 있는 한편에서 공식기준, 다른 편에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비공식적 이익의 불명확한 혼합, 그리고 혼란과 그에 따른 상황의 비예측성이 함축하는, 호혜자-수혜자 간의 불명확한 교환관계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 즉, 수직적 계선에 입각한 후견-피후견 그룹은 관료적 결단위계와 공식적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형성되며 상급자를 핵으로 하는 비공식적이고 그 경계가 다소간 뚜렷하지 않은 상-하급자 혼합그룹으로서 그 내부에서 비동시적-비대칭적-비등가적 호혜, 그리고 인간적 의리와 친목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급관료는 자신의 하급자를 도와주고 보호한다. 그는 하급자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시켜 준다. 그는 하급자들의 당면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체제내에서의 장래를 보장해준다. 그는 하급자들의 행위를 다른 상급자와 비판자로부터 옹호해준다. 그는 하급자가 인간적으로 궁지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과업을 경감시켜준다.

46) 김성철은 이와 같은 현상을 '조직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로서 '조직 옹호를 위한 후원자의 영입', '비공식 집단의 형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철, 「북한관료부패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하급자들은 상급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소문 또는 실제일 등에 대하여 알려준다. 그들은 상급자에게 현재 일이 되어 가는 상황을 보고해주고, 자기그룹 외부 인물 중에서 말썽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알려준다. 또한 상이한 계선 간의 협력에 대하여 토론한다. 상급자가 부재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토론할 시간이 없을 때, 하급자는 -상급자를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가 아마도 할 방식대로- 그를 대리하여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상급자 하급자 모두가 연루되어있고 상호배려는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진다.⁴⁷⁾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관료체제에서의 공식적 상-하 관계, 그리고 공식 업무처리 과정 등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형성되는 구체적 양태를 살펴본다.

2. 공장 내의 후견-피후견 그룹

북한의 공장 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제'는 1961년 12월 김일성에 의해서 제안되었다.⁴⁸⁾ 이 체제에서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

47) Rigby, "Politics in Mono-organizational Society", pp.57~58.

48) 대안의 사업체제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김일성,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내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1년 12월 15일, 「주체의 경제관리체제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앞의 책, 1~39; "새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하여",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61년 12월 16일, 앞의 책, pp.40~90.;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발취)", 황해제철소 당위원회에서 한 연설 1962년 8월 30일, 앞의 책, pp.135-154; "대안의 사업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1월 9일, 앞의 책, pp.155~171; "대안의 사업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1

영의 최고기관은 공장당위원회이다. 그 밑에 공장당집행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배인과 공장당위원장이 있다. 공장 내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영도 밑에 당위원장과 지배인이 다같이 져야 한다. 지배인은 생산작업과 직접 관련된 실무적인 경제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당위원장은 당원과 노동자들을 경제과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공장의 행정경제계통 상급 기관인 부(1948-1972년간에는 성), 관리국에서 내려오는 명령, 지시는 공장당위원회의 토론사항이었고, 만약 그것이 당정책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했다. 공장당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군과 도의 상급당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공장 내의 당조직이 생산실무조직인 지배인-기사장 계선과 담합하여 기관본위주의를 부리지 않고 제대로 감독-독려기능을 했더라면 공장 내에 또 다른 감독-독려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1964년, 1965년, 1969년에 걸쳐 계획의 일원화 체제⁴⁹⁾를 세우면서, 공장 내부에 공장 외부기관인 지구계획위원회 직속의 국가계획부를 두게 된다.

년 4월 2일, 앞의 책, pp.469-493.

49) 계획의 일원화 체계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3일,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앞의 책, pp.249~285; “일원화체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9년 7월 2일, 앞의 책, pp.390~413;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12월 19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앞의 책, pp.666~695.

국가계획부 일군들의 공식임무는 당적, 국가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일하면서 기관본위주의적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는 것이었다. 이 국가계획부가 다시 한번 공장의 당조직, 행정경제조직과 담합하여 기관본위주의에 빠져 들지 않았다면 1973년 이후 3대 혁명소조원들이 공장, 기업소에 파견되어 공장, 기업소 일군들의 이른바 ‘보수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등에 대하여 투쟁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⁵⁰⁾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보여주는 것은 각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서 감독-독려하는 자와 감독-독려 당해야 하는 자 사이에 공생적 협력관계가 중앙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이익에 거스르는 공장, 기업소 단위의 공생관계를 분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독-독려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50) 3대혁명소조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경공업월간’에 경공업공장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대학 교원, 학생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월 31일, 「김일성저작집」 제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90~119;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공업부문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10일, 앞의 책, pp.145~170;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남포시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남포시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3월 5일, 앞의 책, pp.242~268;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 앞의 책, pp.269~304;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96~139.

3. 행정경제 개선에 따른 후견-피후견 그룹

경제관리운영의 실무기구인 국가의 위계적 행정경제관료체였다. 행정경제관료기구인 크게 보아 4단계의 위계체계 즉 국가계획위원회-부(1948-1972년간에는 성), 위원회-관리국-공장, 기업소의 위계로 되어있었다. 이들 경제행정기관의 주요임무는 당의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경제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산에 대한 보장사업과 지도사업을 통해 계획을 실지로 집행하는 것이었다.⁵¹⁾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각 상급단위는 각 하급단위의 실정에 정통해야 했다. 또한 계획은 원료, 자재, 설비, 노동력, 기술력량, 자금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잘 타산하여 세워져야 했다. 상급단위는 하급단위에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자재, 기술, 노동행정, 후방공급 등에 대한 보장사업도 해야 했다. 보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보장 사업이었다. 자재는 위에서 아래로 현장까지 현물로 배달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부급 단위에 자재상사가 설치되었다. 부, 관리국의 공장, 기업소에 대한 생산지도사업도 했다. 이는 생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또한 계획집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상급 경제지도기관의 개입과 조정역할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부, 관리국의 생산지도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부, 관리국이 공장, 기업소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했으며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했다. 생산지도사업은 해당 당위원회 회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어야 했다.

51) 행정경제기관의 사업체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앞의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김일성의 강연들 참조.

김일성의 연설문의 곳곳에는 이러한 행정경제 계선을 따라 감독자와 피감독자 사이, 즉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각급 단위에서 당기관과 행정경제기관이 공생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그 첫째 사례로서 정무원 위원회나 부들에서 공장, 기업소에 내려간 일군들이 하는 현지 사업에 대한 보고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불평했다. 이들은 “자기들이 생산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다보니 자체의 결함 때문에 아래형편을 그대로 보고하지 못”하며, “더우기 지금 국가경제기관들에 보수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들어 앉아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보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로 “3대혁명소조들은 사업보고를 객관적 립장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확합니다. ... 3대혁명소조들은 어느 부장에게 매여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 그대로 보고”⁵²⁾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과 성당위원회와 관계 대한 김일성의 1965년의 언급을 들 수 있다. 즉, “(성당위원회를 내온지가 3~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 부상, 총국장들이 당전원회의와 내각에서 결정한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계획에 없는 공사를 해도 누구하나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⁵³⁾이다. 또한 1976년에는 “당중앙

52)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남포시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앞의 책, p.259.

53) 김일성, “국가경제기관들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자”, 금속화학공업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1월 3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p.8;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성의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당위원회를 직무본위에서 당성본위로 다시 꾸릴 것을 지시하고 있다.

위원회 경제부서들에서는 위원회, 부들의 사업을 바로 감독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⁵⁴⁾고 질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 부상을 비롯한 성지도 일군들이 당정책을 잘 집행하지 않고 아직도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없이 행동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⁵⁵⁾ 그리하여 “국가계획위원회나 중공업위원회 일군들 가운데는 당의 결정, 지시에 대하여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났습니다.), 중공업위원회 전 경제계획국장은 당의 결정이나 지시를 참고자료정도로 여기는데 까지 이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⁵⁶⁾고 한다.

세 번째로서 정무원내 부들은 험하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처들 끼리 책임을 회피하며 또는 부들이 상급단위인 정무원에 책임을 떠미는 현상에 대한 김일성의 지적이다. 즉 1) 일부

54) 김일성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서들에서 위원회, 부들이 일을 잘못하였을 때에는 객관적인 립장에 서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 되었고 저것은 저렇게 잘못 되었으니 고쳐야 하겠다는 식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회, 부들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당당 협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서들이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변명하였습니다. 결국 지난날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서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행정의 뒤꼬리를 따라다니 었으며 사업에서 발언권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김일성, “정무원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제1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4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91

55) “국가경제기관들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자”, 금속화학공업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1월 3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앞의 책, p.4.

56) 앞의 책, p.1.

성들에서는 생산계획을 될수록 적게 받아 일을 쉽게 하려고만 하면서 아래에서 올라온 계획수자를 깎아내려 보내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다.⁵⁷⁾ 2) 정무원 위원회, 부의 책임일군들이 찍하면 자재 타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타발을 하며 일이 잘못되는데 대한 책임을 정무원 총리나 부총리에게 올리밀고 있다는 것이다.⁵⁸⁾ 3) 일부 정무원 위원장, 부장들은 위원회, 부들 사이에 련계를 가지고 대책을 토론하면 얼마든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무원에 문건을 올려 보내여 해결해줄 것을 요구해온다는 것이다. 4) 어떤 정무원 위원장, 부장들은 자재가 계획에 예견된 수량보다 좀 적게 공급되면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마치 웅당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책임을 국가계획위원회에 넘겨써왔다⁵⁹⁾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경제의 부문관리를 책임지는 행정경제 계선인 부(1948-1972년간에는 성)-관리국-공장에서 계선 내부에서 감독-피감독관계인 행정경제의 상급-하급 기관, 그리고 행정경제 기관과 그 계선 담당 당기관이 담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부 계통 계선의 상부인 정무원 그리고 다른 계선에 대하여 기관본위주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7)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앞의 책, p.682.

58) “인민경제의 계획규율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9년 12월 12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411.

59) 앞의 책, p.408.

4. 지역 단위의 후견-피후견 그룹

직접적 경제관리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직적 계선에 입각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위계는 당기관 위계이다. 당기관 계선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후견-피후견 그룹은 특히 각급 지역단위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당, 군당, 시당 등의 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중층적 위계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각급 지역 단위에서 당위원장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 때문에 그러하다.

경제관리운영의 다중적 체계는 여러 계선 간의 상호감독과 중재 노력을 통하여 하부단위에 대한 실적감독과 경제 불균형의 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다중적 계선 체계와 그 계선에 따른 상충하는 요구들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계선조직과 요구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계선은 총비서-정치국-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군당위원회 계선이다. 이 계선의 각급 책임비서들은 각 계선의 여러 상충하는 요구와 명령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그때 당면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내는 '주인'격이다.⁶⁰⁾ 각급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 계선의 당조직은 관할영역의 행정기관의

60) 도당위원회, 군당위원회의 권한, 조직, 기능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새로운 경제체제를 내올 데 대하여", 앞의 책, pp.38~40; "중심군당위원회의 과업에 대하여", 중심군당위원장들앞에서 한 연설 1963년 4월 27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앞의 책, pp.498~510;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5권, 앞의 책, pp.493~494.

행정을 대행하지 말고 키잡이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과업이 주어지거나 긴장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당이 일선에 직접 나서서 행정을 대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지방 단위에 도당위원장, 군당위원장 등의 생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둬으로써- 중앙 집권적 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¹⁾ 즉, 1) 지역당 책임비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상충하는 요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상급기관이 설행 여러 모순적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급기관은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자가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결정과정을 분권화시키고 있다. 3) 현장지휘자는 경우에 따라 중앙의 결정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지역당 조직은 또한 수직적 중복계선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 통로와 조율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통로가 각 계선에 따른 수직통로로만 조직되어있기 때문에, 계선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조율의 문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도나 군에는 상급단위가 직접관장하는 공장, 기업소 뿐만 아니라, 지방단위가 관장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 상급단위 관할 공장운영과 해당지역간의 조율과 협력문제, 상급단위 공장과 지역공

61) Rigby, "Politics in Mono-organizational Society", p.39.

장과의 조율과 협력문제등 한 지역 내에서의 수평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 각 부문별 계선과 다른 경제부문 계선과의 의사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관할 지역내에서 최고권위를 갖는 책임자인 지역당 조직은 관할 지역 내의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이러한 권한과 기능 때문에 해당 영토 내의 후견-피후견 관계, 인간적 연줄 관계는 각급 당책임비서의 수직 위계를 따라서 계층적으로 형성된다. 도당위원회의 책임비서는 도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그는 도내의 모든 당기관, 국가기관을 감독통제할 뿐아니라, 각급 기관들 간의 갈등들에 대하여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도내의 거의 모든 직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을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단위의 수직적 계선에 입각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발생하고, 다시 군 단위에서는 군당위원장, 공장에서는 공장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직적 계선에 입각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발생하게 된다.

5. 당-국가 관료와 주민의 관계에서 후견-피후견 그룹

북한의 대안의 사업체계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공장, 기업소는 단순한 생산조직이 아니라, 정치조직이자 소비 및 사회적 공공용역이 제공되는 기본단위이다. 공장, 기업소의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공장당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는 당이 조직되는 기본적인 단위이고, 공장 내의 당원과 당조직을 통하여 근로자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있다. 공장, 기업소는 ‘후방공급’ 기능을 통하여 식량, 부식물, 로동보호물자, 주택,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장, 기업소의 기능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생산조직일 뿐이며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그것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기업의 외부에서 식량, 부식물, 주택, 편의시설 등을 획득하고 이용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임금을 통한 의존 이외의 다른 생활영역에서 노동자는 기업에 대하여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공장, 기업소에 임금 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비 상으로, 사회용역 분야 등에서도 종속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적 노동자와는 달리 북한의 노동자는 직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가 주민들의 정치적 출세경로, 소비 및 복지 생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업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포괄적이다.

특히 북한의 공장,기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당조직은 노동자의 정치적 충성도와 관리자에의 협력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출세기회, 소비 및 복지 혜택을 차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역 당위원회 또는 공장당위원회는 공장,기업소의 간부문제, 입당문제, 당원들의 책벌문제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장당위원회의 양성부는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로동자구의 모든 교육기관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후방공급'과 관련하여 당위원회는 식량, 부식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단히 포괄적 권한과 배분 기능을 기초로 공장,기업소의 공장당위원회의 당비서와 지배인은 공장 운영 상에서 매우 협력적인 일부 노동자들을 편파적으로 후하게 보상할 수 있다. 당위원회가 관할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출세기회, 소비 및 복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식기준은 체제 원칙에 대한 충성 즉 당성이다. 그러나 이른바 '당적 과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협력관계는 점차로 인물적 충성관계로 발전하며 따라서 개별 기업 내에서의 '당성'은 관리자에 대한 인물적 충성과 협력과 혼합되어 있다. 공장지도부에 대한 이러한 인물적 충성에 대해 관리자는 특혜적 배분권한을 통하여 일부노동자를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성, 상급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그리고 사적인 물질적 특혜수혜 등이 3위일체로 혼합되어 있다.⁶²⁾

62)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pp.162~189 참조.

북한 주민은 국가소유의 공장, 기업소 이외에는 고용기회를 가지지 못하며, 나아가 자영업을 영위할 수도 없다. 또한 공장, 기업소를 통한 국가의 매우 포괄적 배분기능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은 주택이나 그 이외의 물품의 배급 결정권자인 공장의 간부에게 연줄, 호혜적 주고받기 등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이 경우 인간적 감정과 도구적 의도가 혼합되어 있다. 이 경우 간부와 우연히도 친지 관계인 경우는 더욱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명절 등에 의례화된 소소한 선물, 사소한 편의제공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호혜관계는 반드시 당장 직접적이거나 등가적이어서 할 필요는 없다.⁶³⁾

63) 관료와 주민 간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성철, 앞의 책, pp.46~52.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 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라는 제목하에 '공공자원의 횡령', '주민생활과 관련한 수뢰', '인사관련 수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 V 장 결 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출관계라 지칭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활용되고 있다. 연출관계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된 서방국가의 경우에도 정치, 사회생활 등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출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견적 일반성을 넘어서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와 이유, 중요성, 그 활용실태는 상당히 다르다.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연출관계, 후견-피후견 그룹 등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그 모든 형태, 모든 원인과 기능을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 형태, 원인, 기능 중에서도 북한에서 특히 사회주의적 관료체제의 성격과 관련하는 측면, 다시 말해 관료제적 연출관계 그리고 관료체제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후견-피후견 관계를 서술했다.

북한의 경우와 같은 일당체제, 국가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연출관계는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에서보다 훨씬 보편적인 현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물론 관료체제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관계, 시장적 경제주체, 그리고 선거와 자율적 이익단체 들 간의 경쟁과 타협 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관료적-정치적 결정과정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관료체제는 국가 영토 내의 모든 조직과 활동을 포괄한다. 시장적 계산, 경쟁, 선거 등의 결단 메커니즘에서와는 달리, 관료체제의 정치적-행정적 조율과 결단 과정에서는 결단에 결단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열려 있다. 바로 이러한 공간 때문에 행정적-정치적 결단자들이 상호호혜를 주고받으며 그에 기초하여 후견-피후견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나아가 사회주의적 관료체제의 구조는 상호호혜와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을 다소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관료체제의 운영의 실체는 관료세포간의 치밀하고 엄격한 조율 하에서 시계처럼 운영되지 않는다. 중앙은 중-하부 단위의 운영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관료체제의 실제 운영상황 과정에서 중-하부 관료세포는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부조화에 직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하부의 관료세포들 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즉응적인 비공식적 담합과 거래, 그리고 공모와 조율의 관계형성이 불가피해진다. 이처럼 관료체제의 기능구조와 운영상의 내재적 문제 때문에 관료체제 내에서 관료들 간의 상-하 그리고 수평적 상호호혜, 비공식적 담합과 거래, 공모와 조율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료제적 연출관계의 축적 그리고 인간적 의리까지 함축하는 비공식적 후견-피후견 관계를 번성시키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 관료체제에서 관료제적 연출과 후견-피후견 집단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료체제의 특징과 운영상의 목표, 그리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관료체제 내부의

혼란과 부조화이다. 북한의 경우 관료제의 구조특성과 운영특성 때문에 그러한 혼란과 부조화는 한층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첫째로, 북한의 관료체제는 중복하는 임무와 기능을 가진 다중적 계선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미시적·거시적 혼란과 부조화가 한층 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관료체제는 관료세포 하부단위의 실적 감독과 독려를 위하여 다중적 계선을 장치해 놓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공장은 대략 7계선의 상급기관에 의하여 통제 받고 있다. 우선 행정경제 계통이 이원화되어 부(1948-1972년간에는 성)-관리국-공장 의 계선,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지구계획위원회-국가계획부 계선의 이중 계선이 존재한다. 당계통도 이원화되어, 각급 행정경제계선의 당조직, 즉, 부(또는 성)당위원회-관리국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의 계선과 지역 당의 계선 즉, 도당위원회-군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의 계선의 이중계선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한 공장은 재정은행기관의 원에 의한 통제, 3대혁명소조, 사법감찰 기관 등에 의하여 통제 받고 있다. 이러한 다중 통제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시장기구의 실적 감독 및 독려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다중 통제 때문에 임무의 중복, 권한 영역의 불명료성이 한층 커져서, 혼란과 불확실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이유는 북한 관료체제의 운영목표에도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 관료체제는 경제를 항상적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략목표아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극대 투입을 예견하여 극대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존자원과 성장목표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파생적으로 상급단위와 하급단위 사이에 생산목표 할당과 자재배정을 둘러싼 수직적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경제 여러 부문간에 거시적·미시적 불균형들이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하부단위는 상부단위가 자신을 장악통제하여 극대 생산목표를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저항하며, 역으로 상부는 하부의 그러한 저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장악통제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여러 불균형 중에서도 최하부 생산단위인 기업소, 공장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인 자재부족이다. 다음은 잦은 설비고장으로, 과도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설비를 무리하게 가동시키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자재부족과 설비고장은 기업소의 생산목표달성을 위협하고, 기업 내부의 노동과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기업소 간의 조화로운 협동생산을 흐트러 놓는다. 이에 따라 기업소의 지배인과 당간부는 행정경제 상급단위와 당 계통, 지역 단위, 그리고 협동생산 연계 공장들과 여러 형태의 즉응적 조율과 담합,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매수, 정치적-행정적 압력 등의 방법을 통해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관료체제의 혼란과 부조화를 처리하는 가운데서 관료제적 연줄이 활용되고 축적되며, 그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발생한다. 이러한 후견-피후견 그룹의 특징을 보면, 1) 공식업무를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2) 관료체제 조직위계의 수직적 계선을 따라서 중층적으로 형성된다. 즉, 이러한 중층적 후견-피후견 그룹은 관료적 결단위계와 공식적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형성되며 상급자를 핵으로 하는 비공식적이고 그 경계가 다소간 뚜렷

하지 않은 상-하급자 혼합그룹이다. 그 내부에서 비동시적-비대칭적-비등가적 호혜, 그리고 인간적 의리와 친목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그룹은 공장 단위, 행정계선 단위, 지역 단위, 그리고 관료와 주민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관료체제 운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상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하부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후견-피후견 그룹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는다. 상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후견-피후견 그룹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한 그 때문에 묵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료제 내의 명령의 하달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 관료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을 하부로 전달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상-하 위계에 따라 성립해 있는 인간적 연출과 친분관계, 후견-피후견 관계의 맥을 통하는 경우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상부 명령에 대한 중-하부의 편리한 해석과 적당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로, 중-하부의 연출관계와 비공식 그룹은 관료체제의 구조와 운영상에 내재하는 혼란과 부조화를 극복하고 전체 관료체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능하고 있다. 상부가 중-하부의 상황에 일일이 간섭하고 감독하지 않더라도 관료제적 연출에 기초한 중-하부 단위 간의 담합과 거래, 공모와 조율에 의하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즉 중-하부에 만연하는 후견-피후견 그룹은 관료체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하부에 만연해 있는 후견-피후견 그룹은 관료제 상부에 대하여 역기능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관료체제 내에 만연하는 후견-피후견 그룹은 1) 이른바 '본위주의', 그리고 2) 부패와

파벌 형성의 온상이 된다. ‘본위주의’는 수평적으로는 각 계선 그리고 지역 간에, 수직적으로는 각 계선과 지역의 상-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료제의 상부는 관료제의 각 단위에 가능한 한 적게 주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게 하고자 한다. 상부가 실적목표를 하달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 계선 및 지역 사이에, 그리고 각 계선과 지역의 상-하 단위 사이에서, 목표는 낮게, 지원은 많이 받아 내기 위한 치열한 갈등과 협상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관료체제의 각 계선 단위, 지역단위, 그리고 기관단위로 강하든 약하든 후견-피후견 그룹이 형성되어 다른 계선, 지역, 기관들에 대하여 협소하고 이기적인 요구 즉 ‘본위주의’를 내세운다. ‘본위주의’는 관료체제 전체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다. 또한 중-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후견-피후견 그룹은 중-하부가 상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매체로 기능 한다. 중-하부의 해당 관련자들이 공모하는 경우, 그들은 상부에 여러 형태의 허위보고를 올릴 수 있다. 그리하여 보다 낮은 실적 명령과 더 많은 지원이 내려오도록 도모하고, 실패를 감추며 성공을 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중-하부에 만연하는 인적 연줄과 의리관계에 기초하는 후견-피후견 그룹은 중앙의 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중-하부 관료단위와 지방단위에서 ‘봉건 영주 집단’을 형성하거나, 은밀한 부패집단을 형성하는 온상이 된다. 또는 그것이 보다 큰 규모로 발전하는 경우, 중앙의 핵심인물을 정점으로 줄줄이 엮여지며 관료체 내부의 일정 계선 그리고/또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파벌이 탄생할 수 있다. 과거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잠재적 토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북한체제는 1) 엄격하고 위계적인 체제로서 모든 것이 규율 잡혀 있고 정돈되어 있다는 이미지, 2) 관료체의 모든 단위세포와 인물들이 중앙의 명령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이미지, 3) 중앙과 중-하부 모든 단위의 이익이 일치하며 따라서 중-하부가 자발적으로 상부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다는 등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옳지 않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실태가 북한 체제 성립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정상적 상황'이었다. 1) 북한의 겉모습은 엄격한 위계와 조직체계이지만 중-하위의 실무 단위의 운영 상황은 혼란스럽다. 2) 또한 북한 체제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익갈등이 존재한다. 3) 중-하부 단위는 상부에 대하여, 그리고 각 계선과 지역 별로 개별적 이익을 관철 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그에 대하여 상부는 그것을 일정한 선에서 통제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관료제적 규칙과 한계 내에서 진행되는 '은폐된 정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갈등은 관료제 내부의 여러 비공식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해결되면서 공개적 대립과 분열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관료체제의 비공식적인 인간적 연출망과 후견-피후견 그룹은 북한 체제의 공식적 겉모습 보다는 훨씬 실질적인 기능방식이다. 이러한 기능방식으로부터 북한의 당-국가 관료의, 그리고 일반주민의 인격 형성이 영향받고 있다. 즉 당-국가 관료 및 주민은 그러한 북한의 공식적 가치체계와 운영 체계 뿐아니라 비공식적 기능방식과 그 가운데서 필요한 비공식적 가치규범에 동시에 익숙해져있다. 그 비공식적 가치 규

범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일정한 한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느슨한 후견-피후견 그룹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⁶⁴⁾

64) 관료제적 연줄과 후견-피후견 그룹 등이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에 관하여 책임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능력을 벗어 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탈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체제변형에서 유사한 현상과 관계가 행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변화 양상 등에 대한 광범한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의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
北亞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對外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文化정책 比較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政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
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
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4-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4-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 ~ 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 ~ 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 ~ 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 ~ 1995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한·미 WORKSHOP : US-Koreans Relation at Time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上)

95-02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下)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統一文化시리즈 95-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